

목 차

사 업 보 고 서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
I. 회사의 개요	3
1. 회사의 개요	3
2. 회사의 연혁	9
3. 자본금 변동사항	16
4. 주식의 총수 등	16
5. 의결권 현황	18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19
II. 사업의 내용	21
III. 재무에 관한 사항	46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83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85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89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89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91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92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92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01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05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05
2. 임원의 보수 등	112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14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6
XI. 재무제표 등	121
XII. 부속명세서	158
【 전문가의 확인 】	168
1. 전문가의 확인	168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168

사 업 보 고 서

(제 46 기)

사업연도 2013년 01월 0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3 월 31 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충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양재동)

(전 화) 02-3464-1114

(홈페이지) <http://www.hyunda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본부장

(성 명) 이 원 희

(전 화) 02-3464-229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14. 3 . 31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충호 (서명)

신고업무담당이사

이원희 (서명)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 HYUNDAI MOTOR COMPANY 라고 표기하며 약식으로는 HMC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1967년 12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양재동)
- 전화번호 : 02-3464-1114
- 홈페이지 : <http://www.hyundai.com>

라.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와 연결종속회사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정비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차량부문과 차량할부금융 및 결제대행업무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부문 및 철도차량 제작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열회사 현황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회사로서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에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57개의 계열회사가 있으며 그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회사수	상 장	비 상 장
자동차 제조 및 판매	2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자동차부품 제조업	13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현대케피코 현대파워텍 현대위스코 현대메티아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엠시트 현대파텍스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에이치엘그린파워 현대위아아이에취아이터보
철강제조업	4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비앤지스틸	삼우
증권중개업	1	HMC투자증권	-

물류	1	현대글로벌비스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카드
IT 관련사업	3	-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앤소프트 현대씨엔아이
생명보험업	1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2	-	현대엔지비 현대오토론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업	2	현대로템	메인트란스
건설업	4	현대건설	현대엠코 하퍼이알앤씨 현대스틸산업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용역업	2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부동산 개발, 관리 및 관련업	4	-	현대도시개발 부산파이낸스센타에이엠씨 송도랜드마크시티 울촌제2산업단지개발
광고대행업	1	-	이노션
에너지 관련업	3	-	그린에어 부산정관에너지 현대에너지
산림 및 조경업	2	-	서림개발 서림환경기술
영농 및 축산업	1	-	현대서산농장
금속제품 도매업	1	-	현대머티리얼
골프장 운영업	2	-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컨트리클럽
교육서비스업	1	-	현대건설인재개발원
출판업	1	-	종로학평
학원운영업	1	-	임시연구사
스포츠 클럽 운영업	2	-	기아타이거즈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합 계	57	11	46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지배관계	자산 500억
----	-----	----	------	---------	------	---------

				자산총액	근거	이상 여부
현대캐피탈㈜	1993-12-2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금융	21,884,962	과반수 의결권	Y
현대카드㈜	1995-06-1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금융	11,250,632	실질지배력	Y
현대로템㈜	1999-07-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85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	3,296,562	상동	Y
현대캐피코㈜	1987-09-03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912,202	과반수 의결권	Y
그린에어㈜	2008-12-18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315	산업용가스 제조 및 판매	369,274	상동	Y
현대오토폰㈜	2005-10-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평동 688-14번지 엠텍IT타워 3~5층	차량 전자제어장치 연구개발	153,216	상동	Y
현대파텍스㈜	2005-11-07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길 29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115,743	상동	Y
썬덴텍엔지비	2000-10-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엔지니어링 서비스	11,617	상동	N
메인트란스㈜	2008-06-24	서울 강서구 개화동 388-1	철도운송지원 서비스업	7,892	상동	N
전북현대모터스애프터씨㈜	2009-01-0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63-1 전주월드컵경기장 2층	프로축구단	1,555	상동	N
Hyundai Motor America (HMA)	1985-01-01	3200 Park Center Drive, Costa Mesa, CA 92626, USA	완성차 및 부품 판매	6,062,965	상동	Y
Hyundai Capital America (HCA)	1989-09-06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7,673,523	상동	Y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HMMA)	2002-04-12	700 Hyundai BLVD, Montgomery, AL 36105, USA	완성차 제조 및 판매	2,640,184	상동	Y
Hyundai Translead, Inc. (HT)	1989-11-27	8880 Rio San Diego Drive, Suite 600 San Diego CA 92108, USA	특장제품 제조 및 판매	331,582	상동	Y
Stamped Metal American Research Technology, Inc. (SMARTI)	2004-01-01	121 Shinyoung Drive, Luverne, AL 36049, USA	지주회사	158,959	상동	Y
Stamped Metal American Research Technology LLC	2004-01-01	121 Shinyoung Drive, Luverne, AL 36049, USA	부품 제조	158,959	상동	Y
Hyundai America Technical Center, Inc. (HATCI)	1986-05-09	6800 Geddes Road Superior Township, MI 48198, USA	자동차 연구개발	63,518	상동	Y
Rotem USA Corporation	2004-01-22	One Crescent Drive, Suite 102, Navy Yard Corporate Center, Philadelphia, PA 19112, USA	철도차량 제조	86,532	상동	Y
Hyundai Auto Canada Corp. (HAC)	1995-11-01	75 Frontenac Drive, Markham, ON L3R 6H2, Canada	완성차 및 부품 판매	809,396	상동	Y
Hyundai Auto Canada Captive Insurance Inc. (HACCI)	2002-12-13	900 Howe St, 7th Flr. Vancouver, BC V6B 3X8, Canada	보험	90,486	상동	Y
Hyundai Motor India Limited (HMI)	1996-05-06	No H1, Slipcot Industrial Park, Irungattukottai, Sriperumbudur, Tamilnadu - 602117	완성차 제조 및 판매	2,203,183	상동	Y
Hyundai Motor India Engineering Private Limited (HMIE)	2006-11-09	Survey No.5/2 & 5/3, Izzathnagar, Backside of NAC, Opp: Hightech City Railway station(MMTS) Lingampally Mandal, Ranga Reddy District, Hyderabad-500 084	자동차 연구개발	33,245	상동	N
Hyundai Capital India Private Limited (HCI)	2012-11-12	5th Floor, Corporate One, Plot No. 5., Non-Hierarchical Commercial Centre, Jasolar, New Delhi - 110076, Delhi, INDIA	금융	503	상동	N
Hyundai Motor Japan Co., Ltd. (HMJ)	2000-01-07	Akasaka 1-Chome Center Building 12F, 11-30, Akasaka 1-Chome, Minato-Ku, Tokyo, 107-0052, Japan	완성차 및 부품 판매	5,906	상동	N

Hyundai Motor Japan R&D Center Inc. (HMJ R&D)	1995-10-16	16F, Minatomirai Center Bldg, 3-6-1, Minatomirai, Nishi-Ku, Yokohama-Shi, Kanagawa, Japan	자동차 연구개발	3,912	상동	N
Beijing Jingxian Motor Safeguard Service Co., Ltd. (BJMSS)	1994-05-18	18A Zhichun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완성차 판매 및 정비	17,253	상동	N
Beijing Jingxianronghua Motor Sale Co., Ltd.	2004-05-20	18A Zhichun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완성차 판매 및 정비	25,128	상동	N
Beijing Xinhuaqiaqiyuetong Motor Chain Co., Ltd.	2001-04-17	18A Zhichun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완성차 판매 및 정비	45	상동	N
Hyundai Millennium (Beijing) Real Estate Development Co., Ltd.	2001-04-04	No.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부동산 투자	90,745	상동	Y
Rotem Equipment (Beijing) Co., Ltd	2006-06-30	Shunyi Qu Nanfaxin Zhen Jiaogezhuang Cun, Cunwei Huixi 300m Beijing, China	자동차 설비 판매 및 유지보수	1,334	상동	N
KEFICO Automotive Systems (Beijing) Co., Ltd.	2008-11-19	101300, 2-B Hao, Aoyundadao, Juyuangongyequ, Mapozhen, Shunyi Qu, Beijing, China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156,717	상동	Y
KEFICO VIETNAM COMPANY LIMITED	2009-09-19	Plot#XN01, Dai An Industrial Zone, Hai Duong City, Vietnam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76,875	상동	Y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Pty Limited (HMCA)	2003-10-01	Cnr of 394 Lane Cove Road & Hyundai Drive Macquarie Park NSW 2113 Australia	완성차 및 부품 판매	742,880	상동	Y
Hyundai Motor Manufacturing Czech, s.r.o. (HMMC)	2006-07-07	Prumyslova zona Nosovice Nizni Lhoty 700 Czech Republic	완성차 제조 및 판매	2,743,127	상동	Y
Hyundai Motor Czech s.r.o. (HMCZ)	2008-05-26	Siemensova 2717/4 155 00 Prague 5 Czech Republic	완성차 및 부품 판매	145,862	상동	Y
Hyundai Motor Europe GmbH (HME)	2000-01-24	Kaiserleipromenade 5, D-63067 Offenbach, Germany	마케팅 및 완성차 판매	1,165,291	과반수 의견권	Y
Hyundai Motor Deutschland GmbH (HMD)	2012-01-03	Kaiserleipromenade 5, D-63067 Offenbach, Germany	완성차 및 부품 판매	909,908	상동	Y
Hyundai Motor Europe Technical Center GmbH (HMETC)	2004-12-07	Hyundai-Platz, D-65428 Ruesselsheim, Germany	자동차 연구개발	115,587	상동	Y
Hyundai Motor Sport GmbH (HMSG)	2012-12-19	Carl-Zeiss strasse 4, Alzenau, Germany	고성능차 제작 및 마케팅	7,081	상동	N
Hyundai Capital Europe GmbH	2009-09-29	Theodor Heuss Allee 11, 60486 Frankfurt am Main, Germany	금융	5,702	상동	N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LLC (HMMR)	2008-03-18	Lit. A, bld. 20, Levashovskoe motorway, Sestroretsk, Kurortny District, Saint Petersburg, 197706, Russia	완성차 제조 및 판매	1,429,631	상동	Y
Hyundai Motor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B.V. (HMCIS B.V)	2006-12-12	Teleportboulevard 140, 1043 EJ Amsterdam, The Netherlands	지주회사	876,788	상동	Y
Hyundai Motor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HMCIS)	2007-01-23	Russia 123317 Moscow, ul, Testovskaya, 10<North Tower>	완성차 및 부품 판매	876,788	상동	Y
Hyundai Capital Services Limited Liability Company	2011-05-06	15F, North Tower Business Center, 10, Testovskaya St., Moscow 123317, Russia	금융	7,996	상동	N
Hyundai Assan Otomotiv Sanayi Ve Ticaret A.S. (HAOSVT)	1995-11-01	Sehit mehmet fatih ongul sokak, No.2 kozyatagi 34742 Istanbul/Turkey	완성차 제조 및 판매	767,940	상동	Y
Eurotem DEMIRYOLU ARACLARI SAN. VE TIC A.S	2006-07-04	Mithatpasa Mahallesi Ibrahim Kangal Cad. No. 12/1-2 54100 Adapazari, Turkey	철도차량 제조	17,585	상동	N
Hyundai Motor UK Limited (HMUK)	2005-07-21	728 London Road, High Wycombe, Bucks, HP11 1HE, United Kingdom	완성차 및 부품 판매	422,809	상동	Y
Hyundai Motor Company Italy S.r.l (HMCi)	2008-09-12	Via G. Bensi 1/1 - 20152 Milano (MI), Italy	완성차 및 부품 판매	313,601	상동	Y
Hyundai Motor Espana, S.L.U. (HMES)	2009-11-24	Edificio Nectar. C/ Quintanapalla, 2. 1 Pl. 28050.Madrid. Spain	완성차 및 부품 판매	264,104	상동	Y

Hyundai Motor France SAS (HMF)	2012-01-03	1 Avenue du Fief, 95310 St-Ouen-l'aumone, France	완성차 및 부품 판매	433,594	상등	Y
Hyundai Motor Poland Sp. Zo.O (HMP)	2000-04-01	22 Woloska street.,02-675,Warsaw,Poland	완성차 및 부품 판매	116,182	상등	Y
Hyundai Motor Norway AS (HMN)	2004-12-28	Ensjoveien 12D, Postboks 6466, Etterstad 0605 Oslo, Norway	완성차 및 부품 판매	81,793	상등	Y
Hyundai Motor De Mexico S De RL De CV(HMM)	2013-08-07	Antonio Dovali Jaime 70 Torre D 10 Santa Fe Alvaro Obregon Distrito Federal 01210, Mexico	완성차 및 부품 판매	-	상등	N
Hyundai de Mexico, SA DE C.V., (HYMEX)	1989-11-27	la Encantada No. 7474 Parque Industrial El Florido, Tijuana, B.C. Mexico	특장제품 제조	66,152	상등	Y
Hyundai Rio Vista, Inc.	2000-09-22	8880 Rio San Diego DR. San Diego, CA 92108	부동산 투자	23,674	상등	N
Hyundai Motor Hungary (HMH)	2005-02-08	Bartok Bela ut,47,Bartok-haz 7th floor,H-1114 Budapest,Hungary	완성차 및 부품 판매	-	상등	N
Hyundai Motor Brasil Montadora de Automoveis LTDA (HMB)	2008-09-12	Avenida Limeira Avenue, 222, 1st Floor, Areiao/Vila Renende District. Piracicaba, Brazil	완성차 제조 및 판매	1,026,486	상등	Y
Hyundai Capital Brasil Servicos De Assistencia Financeira Ltda	2013-05-14	Avenida Engenheiro Eusebio Stevaux, nº 1.180, 3º andar, CEP 04575-904, Jurubatuba, Sao Paulo, Brasil	금융	-	상등	N
China Millennium Corporations (CMEs)	2001-04-04	Ugland House, South Church Street, George Town Grand Cayman, Cayman Islands	지주회사	90,745	상등	Y
맥쿼리라이언 사모증권투자신탁 제45호	2013-06-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투자	-	상등	N
신한BNPP법인용사모증권투자신탁제27호	2013-06-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투자	-	상등	N
미래에셋트라이엄프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3호	2013-06-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투자	-	상등	N
IBK파노라마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0호	2013-04-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투자	-	상등	N
우리프런티어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2013-04-0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투자	-	상등	N
KTB세이프 사모증권투자신탁 제78호	2013-05-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투자	-	상등	N
오토피아제삼삼축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07-05-28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96,834	실질지배력	Y
오토피아제사삼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09-03-19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100,253	상등	Y
오토피아제사삼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09-06-08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240,524	상등	Y
오토피아제사삼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0-02-09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193,181	상등	Y
오토피아제사삼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0-09-16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303,346	상등	Y
오토피아제사삼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1-04-27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434,593	실질지배력	Y
오토피아제사삼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1-10-10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300,456	상등	Y
오토피아제사삼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2-09-12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금융	557,820	상등	Y
오토피아제오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3-04-19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금융	-	상등	N

오토피아제오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3-06-1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금융	-	상동	N
오토피아제오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3-10-08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금융	-	상동	N
에이치비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2-12-0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여의도동)	금융	42,156	상동	N
에이치비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3-12-0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여의도동)	금융	-	상동	N
프리비아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1-01-03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448,139	상동	Y
프리비아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2-02-17	서울시 중구 다동 39	금융	450,569	상동	Y
Hyundai CHA Funding Corporation	2000-03-24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463,570	과반수 의결권	Y
Hyundai Lease Titling Trust	2005-11-01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6,516,644	상동	Y
Hyundai HK Funding, LLC	2010-04-26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2,966,660	상동	Y
Hyundai HK Funding Two, LLC	2008-03-20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177,369	상동	Y
Hyundai ABS Funding Corporation	2001-08-14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7,806,196	상동	Y
Hyundai Capital Insurance Services, LLC	2009-06-17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1,859	상동	N
HK Real Properties, LLC	2010-12-29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96	상동	N
Hyundai Auto Lease Offering, LLC	2011-05-27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680,682	상동	Y
Hyundai HK Lease, LLC	2011-07-14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금융	1,239,773	상동	Y
Hyundai Protection Plan, Inc.	2012-03-22	2999 North 44th Street, Suite 550, Phoenix, Arizona, 85018	보험	14,004	상동	N
Hyundai Protection Plan Florida, Inc.	2012-06-08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보험	1,955	상동	N
Hyundai Capital Insurance Company	2012-07-05	3161 Michelson Drive, Suite 1900, Irvine, CA 92612, USA	보험	-	상동	N

※ 상기 지배관계 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준임.

※ 상기 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직전사업년도 자산 500억 기준임.

사. 신용등급 내역

당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기타 수시평가에 의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시 대상 기간 동안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평가구분
2013-06-28	회사채	AAA(안정적)	한국신용평가	정기평가

2013-06-21		AAA(안정적)	NICE 신용평가	정기평가
2013-04-12		AAA(안정적)	한국기업평가	정기평가
2013-01-16		AAA(안정적)	한국신용평가	수시평가
2012-12-14		AAA(안정적)	NICE 신용평가	수시평가
2012-10-30		Baa1(Stable)	Moody's (미국)	정기평가
2012-04-19		AA+ (긍정적)	한기평	정기평가
2012-03-20		BBB+(Stable)	S&P(미국)	정기평가
2012-01-19		Baa2(Positive)	Moody's(미국)	정기평가
2011-11-17		AA+ (긍정적)	한신평	정기평가
2011-11-15		AA+ (긍정적)	NICE신용평가	정기평가
2011-06-07		BBB(Positive)	S&P(미국)	정기평가

(2) 신용등급체계 및 부여 의미

유가증권 종류별	국내신용 등급체계	무디스 (미국)	S&P (미국)	부 여 의 미
기업 어음	A1	-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음
	A2	-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이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C	-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함
	D	-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회사채	AAA	Aaa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AA	Aa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A	A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Baa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Ba	BB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B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	Caa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C	Ca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	C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음
	D	-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2000년 12월에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으로 최종 변경하였으며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	기 간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2	1967. 12. ~ 1968. 0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55	1968. 10. ~ 1973. 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5-4	1973. 02. ~ 1976. 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1976. 02. ~ 1978. 0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1978. 02. ~ 2000.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양재동)	2000. 12. ~ 현재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 동 일	주 요 변 동 내 용	비 고
1967년 12월 29일	정주영 대표이사 취임 정세영 대표이사 취임	-
1991년 01월 01일	정몽규 대표이사 취임	-
1991년 12월 31일	정주영 대표이사 사임	-
1998년 03월 19일	정세영 대표이사 사임	-
1999년 03월 10일	정몽규 대표이사 사임 정몽구 대표이사 취임	-
1999년 04월 24일	이계안 대표이사 취임	-
2001년 07월 25일	이계안 대표이사 사임	-
2001년 09월 08일	김동진 대표이사 취임	-
2004년 03월 12일	전천수 대표이사 취임	-
2005년 09월 20일	전천수 대표이사 사임	-
2006년 03월 10일	윤여철 대표이사 취임	-
2008년 09월 30일	김동진 대표이사 사임	-
2009년 03월 13일	윤여철 대표이사 사임 양승석 대표이사 취임 강호돈 대표이사 취임	-
2011년 03월 11일	강호돈 대표이사 사임 김억조 대표이사 취임	-
2011년 10월 01일	양승석 대표이사 사임	-
2012년 03월 16일	김억조 대표이사 사임 김충호 대표이사 취임 윤갑한 대표이사 취임	-

다. 사업 목적의 중요한 변동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 정관상의 목적사업이 현재 29개이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일	변동내역	주요사업 목적
-----	------	---------

설립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자동차 및 자동차부속품 제작 및 판매업 - 일반기계 및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 각종차량의 수리업 - 군납품업 - 기타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1971. 2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 수출입업
1977. 2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물 및 단조물의 제조, 판매업
1982. 2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납품업
1984. 2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검사 대행사업 - 프로축구단 운영
1986. 2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하역사업 - 자동차 부품 도매업
1990. 2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업
1996. 2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업
1997. 8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대행업 -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1999. 2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차량, 중기정비사업(원동기 재생, 정비 겸업) - 자동차 관련 정비기기 판매업 -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 부제품의 판매업- - 주차장 운영업 - 세차기 판매업 및 부대사업 - 가스시설 시공업 - 특수목적용 차량 및 부속품 제조판매업
1999.4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기계 및 동부속품 제조 판매업
2000.3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2002.3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 부정기 항공운송 및 항공기 사용사업과 항공기 취급 및 정비사업 - 차량정보 사업 등 각종 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 기기 판매·임대 사업
2005.3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판매업
2006.3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용품 제조 판매업 - 재생사업, 가맹사업 - 통신판매업
2009.3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2011.3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기 항공운송 및 항공기 사용사업과 항공기 취급 및 정비사업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판매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2013.3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시설시공업

라.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연 도	주 요 내 용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기술 차세대 고성능 '세타 GDi 엔진' 첫 공개 - 체코공장 준공 - 신형 '쏘나타' 출시 - 미국 프레스공장 생산성 1위 달성 - '투싼 ix' 출시 - '아반떼 하이브리드' 출시 - '신형 에쿠스' 출시 - 제네시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쏘나타 2.4' 출시 - 2011년형 싼타페/베라크루즈 출시 - 2011년형 투싼ix 출시 - 제네시스 쿠페 2011 출시 - 신형 '아반떼' 출시 - 전기차 '블루온(BlueOn)' 최초 공개 - 러시아공장 준공 - 누우/타우 GDi 엔진, 후륜 8속 자동변속기 공개 - 국내최초 CNG 하이브리드버스 '블루시티' 국산화 개발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형 '투싼ix' 출시 - 브라질 공장 착공 - 신 글로벌 브랜드 경영 선포 - '5G 그랜저' 출시 - 중국 난전기차와 '쓰촨현대' 설립 합자계약 체결 - '쏘나타 하이브리드' 출시 - '제네시스 프라다' 출시 - 'i40' 출시 - 신형 'i30' 출시 - '뉴 제네시스 쿠페' 출시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40 살론' 출시 - 전기차 콘셉트카 '아이오닉' 최초 공개 - 쏘나타 하이브리드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 신형 '싼타페' 출시 - 뉴카운티 중형버스 출시 - '벨로스터 터보' 출시 - '제네시스 2013' 출시 - '2013년형 아반떼' 출시 -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출시 - '쏘나타'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차 선정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CES에 차세대 스마트카 첫선 - 업계 최초 여성전용 특화 서비스 거점 '블루미' 오픈 - 싼타페, '2013 캐나다 올해의 차' 선정 -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 해외 누적 판매 5천만대 돌파 - 프리미엄 대형 SUV '맥스크루즈' 탄생 -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출시 - 아반떼 쿠페 출시 - 제네시스 다이내믹 에디션 더 블랙 출시 - 2014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출시 - 더 뉴 아반떼 출시 - '2013 국제비즈니스대상' 3개 부문 수상 - 중국 고객품질만족도 조사에서 3개 차종 1위 - 글로벌 100대 브랜드 43위 달성 - 더 뉴 아반떼, 최고급 디젤 프리미엄 모델 출시 - '엑센트 2014' 출시 - 그랜드 스타렉스 사륜구동 시판 - 중국 전용 전략차종 '밍투' 출시 - 'i40 2014' 출시 - '제네시스 쿠페 2014' 출시 - 글로벌 명차의 새로운 기준 '신형 제네시스' 출시 - 베이징현대, 중국 年판매 100만 대 돌파 - 그랜드 i10 '2014 인도 올해의 차' - 독일 아우토빌트(Autobild) 2013 품질만족도 조사 2위 -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4' 출시 - 벨로스터 터보 '튜익스 레이스' 출시
-------	---

마. 주요종속회사의 연혁

부문	회사명	주요연혁
차량부문	미국공장(HM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 신형 엘란트라 양산 - 2011년 : 엔진공장 증설 투자 발표 - 2012년 : 엔진2공장 양산 - 2013년 : 아반떼(MD) 양산
	인도공장(H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 생산/판매 누계 300만대 달성 - 2011년 : 뉴베르나 양산 - 2012년 : YF 쏘나타 양산 MD 엘란트라 양산 - 2013년 : Grand i10 런칭 생산누계 500만대 달성
	터키공장(HA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 i20 양산 - 2012년 : i20 개조차 양산 - 2013년 : i10 양산
	체코공장(HM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 ix20 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ix35 양산 - 2012년 : 신형 i30 양산 변속기2공장 양산 i30(GD) 양산 - 2013년 : ix35(EL) F/L, ix20(JC) 14MY양산 i30(GD) 14MY양산,
	러시아공장(HMM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 러시아 공장 준공식 - 2011년 : 쏘라리스 양산 - 2012년 : 쏘라리스, 올해의 신차수상 리오4도어 양산 - 2013년 : 쏘라리스 13MY 양산 생산누계 50만대 달성 리오 14MY 양산
	브라질공장(H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기공식 실시 - 2012년 : HB20 양산 개시 브라질 공장 준공식 실시 - 2013년 : HB20X 및 HB20S 양산 개시 "Most desired brand" 부문 수상 HB20, HB20S "The best of Brazil" 부문 수상 HB20, "Best passenger Car 부문 수상
금융부문	현대캐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프라임모기지 카드 출시 수입 중고차 무료 보장 서비스 시행 프라임론, 모바일 대출 서비스 시행 - 2010년 'MY BUSINESS 거래처 신용조회' 서비스 시행 '경영진 고객불만해결 프로그램' 시행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Direct Loan 출시 현대캐피탈 Stop & Listen 시행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A등급 획득 - 2011년 MY BUSINESS 인터넷 대출 시행 MY BUSINESS 상권분석솔루션 론칭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증자리론` 판매 - 2012년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 미니 도서관' 기부 '경차 리스 프로그램' 진행 '상용차 리스 프로그램' 진행 '개인 장기 렌터카 프로그램' 출시 중국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 - 2013년 우량 개인사업자 대상 'MY BUSINESS 멤버십' 런칭 말레이시아 '램 리그 어워드' 수상 아시아권 최초의 회사채 켄거루 본드 발행 스카이워커스 복합베이스캠프'CASTLE OF SKYWA LKERS' 준공 영국,1년만에 자산 1조 돌파

		아메리카(HCA), 美 JD파워 자동차금융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권 기록
	현대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My Business 카드 출시 현대카드 R10 론칭 My Business O 카드 출시 - 2010년 제주올레 디자인 재능 기부 현대카드 MY COMPANY 출시 현대카드 Platinum 3(M3, H3, R3, T3) 출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A등급 획득 - 2011년 the Black 리퀴드 메탈 출시 현대카드 MoMA 팝업스토어 부산 오픈 현대카드 Platinum 2 시리즈 론칭 현대카드 MY BUSINESS M2 Platinum 출시 - 2012년 IT카드 출시 기프트카드 잔액기부 서비스 시행 현대카드 'DIRECT' 출시 현대카드 'MUSIC' 사이트 오픈 보이스 피싱 보장보험 서비스 시행 현대카드 'MY MENU' 출시 사랑의 M포인트 기부' 캠페인 시행 - 2013년 개인사업자 대상 'MY BUSINESS 멤버십'런칭 디자인 재능기부 '오이스터 프로젝트' 실시 '오이스터 프로젝트' 2차 제품 출시 현대카드Chapter 2 M/M2/M3/T3 Edition2 출시 the Red Edition2 출시 X X2 출시 MY BUSINESS M/M2/M3/ the Red Edition2 및 MY BUSINESS X/X2 출시 CHAPTER 2 체크카드 & 하이브리드카드 출시 제휴카드 상품 출시 디자인 라이브러리, 2013 DFAA(Design For Asia Award) 대상 수상
기타부문	현대로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철도공사 경춘선 좌석형 전기동차 56량 수주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 공급계약 74량 체결 인도 방갈로 전동차 150량 수주 그리스 아테네 3호선 전동차 수주 중국 심천 3호선 전장품 연장선 114량 및 기술이전 - 2010년 방글라데시 디젤 기관차 수주 미국 덴버전동차 50량 수주

		터키 TCDD전기기관차 80량 수주 우크라이나 CS2전동차 90량 수주 철도공사 화물용 전기기관차 31량 수주 철도공사 전동차 196량 수주 - 2011년 철도공사 간선형 전동차 138량 수주 철도공사 디젤전기기관차 25량 수주 - 2012년 철도공사 호남선 고속철 220량 수주 터키 이즈미르 교외선 전동차 120량 수주 인도 하이dra바드 전동차 171량 수주 브라질 상파울로 자동차 옵션 90량 수주 홍콩 MTR SCL 전동차 333량 수주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1호선 전동차 180량 수주 - 2013년 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석탄취급설비 수주 대만 Talin 발전소 석탄취급설비 수주 인도 DMRC RS10 전동차 486량 수주 코레일 일반형 전동차 60량 사업 수주 김포 도시철도사업 차량 46량 및 E&M 사업 수주 뉴질랜드 마탕이 전동차 70량 수주 브라질 상파울로 교외선 전동차 240량 수주 부산시 1호선 전동차 사업(신조 48량, 개조54량) 수주 브라질 살바도르 2호선 전동차 112량 수주 미국 DTS 전동차 추가 10량 수주
--	--	---

※ 상기의 내용은 주요종속회사 중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 기준으로 작성됨.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 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	-	-	-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이며, 이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 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통주와 3종의 우선

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31,596,479주, 우선주 66,202,146주입니다. 감자, 이익소각 등으로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1,320,000주, 우선주 1,000,000주이며, 보유중인 자기주식수는 보통주 11,006,710주, 우선주 2,950,960주 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209,269,769주, 우선주 62,251,186주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13년 12월31일)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50,000,000	150,000,000	6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31,596,479	66,202,146	297,798,625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1,320,000	1,000,000	12,320,000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11,320,000	1,000,000	12,320,000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20,276,479	65,202,146	285,478,625	-
Ⅴ. 자기주식수		11,006,710	2,950,960	13,957,67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09,269,769	62,251,186	271,520,955	-

※ 상기 우선주는 기명식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로 구성됨.

구 분	발행한 주식 총수	감소한 주식 총수	자기주식수
우선주	25,109,982	-	1,950,960
2우선주	38,613,865	1,000,000	1,000,000
3우선주	2,478,299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총 13,957,670주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3년 12월31일)

(단위: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11,006,710	-	-	-	11,006,710	-
			우선주	2,950,960	-	-	-	2,950,960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11,006,710	-	-	-	11,006,710	-

			우선주	2,950,960	-	-	-	2,950,960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11,006,710	-	-	-	11,006,710	-
			우선주	2,950,960	-	-	-	-	2,950,960

※ 상기 우선주는 기명식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로 구성됨.

구 분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우선주	1,950,960	-	1,950,960
2우선주	1,000,000	-	1,000,000
3우선주	-	-	-

다. 보통주외의 주식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통주 외에 3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잔여재산분배, 상환, 전환 등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3.12.31)

(단위: 주)

구 분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발행주식수		25,109,982	37,613,865	2,478,299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보통주 대비 연 1% 추가 배당(액면가 기준) -비참가적, 비누적적	-최저우선배당률 : 2% (액면가 기준) -참가적, 비누적적	-최저우선배당률 : 1% (액면가 기준) -참가적, 비누적적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상환에 관한 사항	-	-	-
	전환에 관한 사항	-	-	-
기 타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20,276,479	-
	우선주	65,202,146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1,006,710	-

	우선주	65,202,146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09,269,769	-
	우선주	-	-

※ 상기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이익소각주식수 제외 기준임.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당사는 지속적인 투자기업으로서 투자재원 확보와 동시에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배당 관련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생략 (2)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하되, 최저우선배당율은 2%로 한다. 단,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최저우선배당율을 1%로 할 수 있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우선적 배당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시 배당전부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제7조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38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2013년	2012년	2011년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5,181,546	5,279,509	4,751,497
주당순이익 (원)		19,065	19,426	17,495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534,409	520,833	480,105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10.3	9.9	10.1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0.9	0.9	0.8
	우선주	1.6	2.6	2.8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1,950	1,900	1,750
	우선주	2,050	2,000	1,850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 상기 내용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됨.

※ 상기의 우선주는 2우선주를 기준으로 작성함.

구 분	제46기 (2013년)	제45기 (2012년)	제44기 (2011년)
우선주 주당배당금(시가배당율)	2,000원(1.7%)	1,950원(2.8%)	1,800원(2.9%)
3우선주 주당배당금(시가배당율)	2,000원(1.8%)	1,950원(3.4%)	1,800원(3.6%)

※ 주당순이익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주)

구 분	제46기 (2013년)	제45기 (2012년)	제44기 (2011년)
당기순이익	5,181,546	5,279,509	4,751,497
우선주 배당금	(1,191,775)	1,214,235	1,093,178`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3,989,771	4,065,274	3,658,318
유통보통주식수	209,269,769주	209,269,769주	209,104,580주
기본주당이익	19,065원	19,426원	17,495원

* 유통보통주식수는 기중 자기주식수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주식수가 반영됨.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와 연결중속회사(이하 연결실체)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정비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차량부문과 차량할부금융 및 결제대행업무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부문 및 철도차량 제작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 매출비중은 차량부문이 약 82%, 금융부문이 약 11%, 기타부문이 약 7%가 되며, 각 부문별 주요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문	주요사	주요제품
차량부문	현대자동차, HMA, HME, HMCA, HMMA, HMMC 등	자동차 등
금융부문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HCA	할부금융, 리스, 신용카드
기타부문	현대로템 등	철도제작 등

[차량부문]

가. 사업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 연 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동차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에 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대리점, 할 부금융, 탁송회사 등이,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 모 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13년까지 총 8,024만 대의 자동차를 생 산했는데, 이 중 43.7%인 3,510만 대를 내수 시장에, 나머지 56.3%인 4,514만 대를 해외 시 장에 판매했습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급 본격화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 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 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 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4) 경쟁 요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국가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진입 결정 이후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업체는 종업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부실 경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쉽사리 퇴출을 감행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컨셉트 창출 및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 및 A/S망 구축 등을 매개로 고객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비용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 비용, 양산차 제조 생산성, 간접 인력의 생산성,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한국시장

(가) 시장 여건

한국시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판매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2009년에는 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 제도 시행과 자동차 업체의 신차 투입으로, 2010년과 2011년에도 신모델 출시와 수입차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2년은 유럽재정위기 여파와 신흥국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신차 효과가 약화되면서 전년비 4.1% 감소한 141만 대가 판매되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2월 대내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일부 업체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비 2.0% 감소한 138만 3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승용은 전년비 16.6% 감소한 중형을 비롯하여 대부분 차급에서 판매가 부진했으나, SUV와 미니밴은 신차효과로 각각 14.2%, 25.6% 증가했습니다.

(나) 영업의 개황

2013년 1~12월 한국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비 4.0% 감소한 64만 1천 대를 판매하여 46.4%의 시장 점유율(수입차 제외)을 차지했습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신차효과로 SUV는 전년대비 20% 증가하며 호조였으나, 하반기 상용 일부 모델의 공급부족, 쏘나타 모델 노후화 및 승용 부문 수요감소로 인해 점유율이 1%p 감소했습니다.

시장수요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차는 상품 개발, 가격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 성향을 고려하여 i40 살론, 아반떼 쿠페, 투싼 ix 가솔린 모델 등 차종별 파생 모델을 출시하고 디젤 라인업을 확대하였으며, 중대형 인기 차종 및 고성능 4개 차종의 가격을 인하하는 '착한 가격'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대차 서비스 브랜드인 '블루멤버스(BLUEmembers)'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2) 미국시장

(가) 시장 여건

미국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1,319만 대로 판매가 급감, 2009년은 1,040만 대까지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산업수요 감소로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업체는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SUV와 픽업 등 소형상용차 판매가 다시 늘어나면서 5년 만에 판매가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 조건 완화와 교체 수요가 지속되었습니다.

2013년 1~12월은 전년동기비 7.5% 증가한 1,558만 2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일본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승용차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가안정 및 대기수요 유입으로 픽업이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신차효과 및 공급 확대에 CUV차급도 전년대비 15.5% 성장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개황

2013년 1~12월 미국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동기비 2.5% 증가한 72만 1천 대를 판매해 4.6%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는 22.7% 증가한 24만 8천 대를 판매하며 전체 판매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신차 효과에 힘입은 쏘나타는 전년비 25.1% 증가한 8만 9천 대로 호조였으며, 고급 차종인 그랜저도 33.1%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하여, 2013년 2월 미국 누적판매 800만 대를 돌파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제이 디파워(J.D.Power)사가 발표한 2013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 제네시스가 중형 고급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쏘나타는 내구품질조사(VDS)에서 중형차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직 비전(Strategic Vision)'사가 발표한 '2013년 종합 가치 평가'에서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품성 향상은 브랜드 가치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13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현대차는 2012년보다 10계단 순위가 상승한 43위에 오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3) 아시아시장

(가) 시장 여건

아시아 지역의 대표 시장인 중국시장은 2009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 증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서부 내륙 지역에서도 주요 업체들이 생산능력과 판매망을 늘리며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긴축 정책과 소형차 구매 지원 정책이 종료되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12년에는 상반기 주요 업체의 할인 판매와 정책효과로 판매 호조를 보였으나 9월 이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여파로 일본업체 판매가 급감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013년 1~12월 중국시장에서는 전년동기비 16.5% 증가한 1,737만 1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승용은 일본업체의 판매 급증과 SUV, MPV차급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판매 호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상용도 일부 도시의 신규 배기가스 배출 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선수요 발생으로 중형 트럭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인도시장은 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주도하면서 급성장했으며, 금융위기를 계기로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2010년 세계 6위의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차급별로는 경소형차 위주의 차급 구조에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중형 차급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휘발유 가격 상승, 할부금리 인상 등 자동차 구매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년비 5.4% 증가에 그친 243만 대가 판매되었지만, 2012년에는업체들의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전년비 9.2% 증가한 265만 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013년 1~12월 인도시장에서는 전년동기비 7.3% 감소한 246만 1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고유가(디젤가격 상승), 고환율(루피화 약세), 고금리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작년 4월 소비세 인상 전 선수요 발생으로 판매가 크게 늘었던 2월, 3월의 기저효과도 부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시장 수요는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나) 영업의 개황

2013년 1~12월 중국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비 21.2% 증가한 102만 7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중국 전략차종인 밉투가 11월 출시 후 두달 간 1만 1천 대, 신차 효과가 지속된 YF쏘나타는 10만 6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랑둥(중국형 MD)이 20만 3천 대, 신형 싼타페가 6만 9천 대, 신형 ix35가 14만 8천 대를 판매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2013년 1~12월 전년비 4.8% 감소한 37만 7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시장 수요가 7.3%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모델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2002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누계 판매 500만 대를 달성하며 향후에도 판매와 브랜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베이징 국제 마라톤 대회 후원 등 스포츠마케팅 강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교통사고 유자녀 후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며 중국 고객과 밀접한 브랜드 알리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4) 유럽시장

(가) 시장 여건

과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던 유럽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긴축정책 및 고용부진으로 소비심리가 냉각되며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6년 연속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2009년에는 정책효과에 의해 일시적인 회복을 보였으나, 폐차인센티브가 종료된 2010년 이후 기저효과 및 경기불황으로 시장침체를 지속하며 유럽의 산업수요는 6년 평균 4.6% 감소했습니다.

2013년 1~12월 유럽시장에서는 전년비 1.6% 감소한 1,374만 3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물 경기 침체 확산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재정위기가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하반기에 들어서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영국은 소비심리 회복으로 22개월 연속 호조를 지속하며 전년비 10.8% 증가하였으며, 스페인은 폐차인센티브 PIVE 시행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독일은 상반기 재정부담 누적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부진했으나 하반기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여전히 부진합니다.

(나) 영업의 개황

2013년 1~12월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동기비 8.8% 감소한 40만 5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 속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판매 목표 축소 및 승용 일부 모델 노후화로 판매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토빌트(Autobild)誌가 실시한 '2013 품질만족도 조사(2013 Quality Report)' 에서 유럽 현지 메이커들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며 보수적인 유럽시장에서 품질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여자 유로 2013 축구 대회, 2013 피파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의 공식 후원 등 유럽축구연맹(UEFA)와 파트너십을 통해 2017년까지 후원하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

가. 사업의 개요

금융부문의 주된 사업은 할부금융, 리스, 신용카드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소비재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대여해주고 수수료 및 원리금을 분할 수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사업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부금융사업의 특징]

- ① 여신전문금융업 :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전문으로 함
- ②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사업
- ③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
- ④ 자금조달력이 중시되는 사업
- ⑤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

리스금융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제도로써 기업금융 및 도매금융의 성격을 가집니다. 리스금융 역시 할부금융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매개로 하는 물적금융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부문의 특징은 할부금융과 같습니다.

상기 열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은 자금을 대여해주고 높은 금리로 양호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신용을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해주기 때문에 자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신용카드의 존재로 카드회원은 현금 없이 신용으로 물품과 용역의 구입이 가능하고, 가맹점은 물품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지출 증감 및 국내 경기의 변동에 따른 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시장 여건 등

(1) 국내 시장 여건

국내 할부금융 시장은 자동차할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의 견조한 매출성장세와 더불어 신차 할부구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말 발생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신규할부취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내수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전체 할부금융취급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내수경기 회복 및 신차 출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변동성 및 국내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 여전히 자동차판매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요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차 내수 판매가 당분간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리스금융 시장은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 리스 이용업체의 부도 및 연체 급증에 따라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말 기준으로 실행액은 약 10조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최근 리스시장 회복추세는 주로 오토리스의 활성화에 기인합니다. 리스회사들이 높은범용성으로 중고가치가 양호하고 중고시장 또한 발달되어 있는 자동차를 리스실행에 적합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 이용자들도 오토리스를 통

해 구매금융은 물론 자동차 보유에 따른 각종 부담을 리스회사가 대신해준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부시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리스업계 전반의 성장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은 손익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대규모 수익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국내 신용카드업은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갑작스러운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해외(북미)시장 여건

자동차할부금융(retail loan)과 오토리스금융, 딜러금융(wholesale)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미국할부금융 산업은 외국계 자동차제조사와 연계된 할부금융사의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할부금융사 간 주요 경쟁요소는 가격으로, 이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의미이나, 고객이 매월 불입금에 더 민감할 경우 장기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합니다. 즉 고객 유치를 위해 구조를 유연하게 변경시키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할부금융사들의 주된 경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 자동차 할부금융업계는 각 판매사(OEM)와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저금리 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 미국 금융가에서 발생한 신용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과도한 공급증가에 따른 자동차업계 빅3(GM, Ford, Chrysler)의 위기로 인한 판매 위기는 할부금융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위험관리 경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에 이르기 까지 미국 전체의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용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각 개인 및 기업의 도산위험이 증가하여 할부금융사들의 리스크(연체율,대손율)가 상승하였습니다. 크라이슬러와 GM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은행 및 전속 할부사들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으며, 고객들의 할부금융 이용이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할부금융 상품에서 리스 및 딜러금융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각 할부금융사들은 리스상품을 철회하며 딜러금융에 대한 제공을 중단 및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 2008년 이후 2009년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미국정부는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와 같은 구제금융을 통하여 할부금융 영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ABS시장 등을 재 활성화 시킴으로써 부족했던 유동성 공급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010년 이후 시장의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었던 금융상황을 겪고난 후 할부금융사의 위

협관리 능력, 심사능력 및 유동성 관리능력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의 회복된 유동성으로 인해 각 할부금융사들의 재정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공격적인 할부금융 프로그램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국가 재정 문제 등의 불안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할부금융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3) 영업의 개황

■ 현대캐피탈(수익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이 자 수 익	32,141	47,994	42,376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424	3,497	4,169
대출채권수익	1,492,401	1,514,743	1,548,557
할부금융수익	255,712	358,858	436,247
리 스 수 익	902,681	916,030	871,572
대출채권처분이익	63,767	85,584	72,040
외환거래이익	268,992	463,544	67,536
배당금수익	4,671	4,888	5,990
기타 수익	199,447	146,543	279,962
수 익 합 계	3,222,235	3,541,681	3,328,448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

■ 현대카드(수익기준)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	2013년	2012년	2011년
카드수익	2,453,282	2,388,279	2,318,410
이자수익	20,566	22,594	26,006
투자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81	462	8,456
배당금수익	352	478	591
기타영업수익	53,198	113,824	55,915
영 업 수 익 합 계	2,527,479	2,525,635	2,409,379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

■ HCA(수익기준)

(단위:US\$천)

분 류	2013년	2012년	2011년
자동차할부금융	546,644	527,680	474,512
오토리스금융	384,972	246,589	127,510

딜러금융	47,628	33,838	29,362
총계	979,244	808,107	631,384

[기타부문]

(1) 산업의 특성

기타부문의 주요사는 현대로템이며, 현대로템의 주된 사업은 철도부문, 중기부문, 플랜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산업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시설 및 철도 차량 관련 산업과 철도 기술 개발산업 및 그 밖의 노선개발, 이용, 관리와 연계된 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사회 간접자본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철도차량 사업은 철도운송수단의 연구개발, 제작, 판매 및 유지보수와 연관된 전체 사업을 말합니다. 철도건설이 확정되면 토목, 건축, 전력 및 신호통신 등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과 연계되고, 철도차량의 신규수요가 이어져, 이를 제작하기 위한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 원자재 산업과 함께 국내외 판매를 위한 금융과 무역 등의 산업이 동반됩니다. 또한 철도산업은 공익사업이라는 특성과 함께 대규모의 자금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집행예산에 따라 철도차량의 수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민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해외시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방위산업은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군사적 의미로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물자, 용역 등의 획득과 이를 개발, 생산, 유지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은 일반적으로 기획, 프로세스관리,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 제작, 시운전, 운영의 사업분야로 나누어지며, 이 과정에서 플랜트 공정, 기계, 전기, 배관 등 여러 가지 공학 기반기술과 시운전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분야의 기술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원하는 플랜트를 완성하는가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또한 플랜트 산업은 대부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수요자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소싱을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철도산업은 선행종합지수를 결정하는 산업의 경기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수요는 대부분 신규 철도노선 건설에 후행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이 철도차량 사업의 향후 수요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종합지수의 하락은 2~3년 내 철도차량의 수요감소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침체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거나, 조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물량감소 영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량과 단가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집행또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수요변화는 매우 둔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향후의 국가교통기본정책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예측 가능한 계획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부문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사업의 변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주에 의한 장기공급계약 사업이므로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사업이 집행되기까지의 회의 결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은 크게는 국제경기 전망에 영향을 받으며, 작게는 국내 소비 및 투자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동, 동남아 등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 증대가 가속화 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시장여건 등

(1) 시장여건

전 세계 철도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 2012년 평균 약 216조원(€ 1,430억)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철도차량 분야는 신규차량을 기준할 때 약 33% 규모로 이는 항공이나 도로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훨씬 작은 수준입니다. 세계 철도차량 시장은 서유럽을 근거로 하는 선진업체의 주도 속에 기타 유럽 업체 및 내수물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화물운송 확대에 따른 기관차 및 화차시장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승객 수송용 고속전철 및 전동차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시장의 규모가 큰 아시아와 서유럽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의 여지가 상존하는 중남미, CIS지역의 성장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국내 철도기술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과 철도차량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의 상생노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경쟁구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정책의 경직성, 부품국산화의 한계 등 기업 자체적인 부분과 아울러 국내 철도차량 시장 개방화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의 턴키 발주방식과 금융조달(Financing)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수출의 장애요인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방위산업은 정부에 의하여 시장의 규모가 정해지므로, 경기변동 보다는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국내 방위산업 시장은 각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발과제에 대한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기존에 영위하였던 분야에 있어서는 그시장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플랜트산업은 프로젝트 대부분이 5억불 이상의 대형프로젝트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정부 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엔지니어링 기술 우위로 인한 시장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입니다. 때문에 플랜트 산업의 시장경쟁 요소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과 품질 초기시장 지배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요소는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수요자의 생산성 극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수요자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원가 및 기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생산 설비에 대한 기술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새로운 공법으로 혁신적인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영업의 개황

철도 사업의 경우, 국내에는 당사 외에도 객차와 화차, 경전철 등을 생산하는 몇 개의 회사가 있으나, 회사의 국내 철도차량시장 점유율은 수주금액 기준으로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철도차량시장의 경우 중국대표 철도차량기업인 CSR(중국 남차집단)과 CNR(중국 북차집단), 유럽의 봄바르디에, 알스톰, 지멘스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철도차량 시장 점유

율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수출주력 차종인 교외통근형 전동차, 메트로 및 디젤동차 등을 포함하여 약 2~3%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세계철도차량 시장점유 순위 10위권에 최초로 진입하였습니다. (2011년 당사 매출기준 세계시장비교, 세계시장 규모 자료 출처 : SCI / Verkehr Multiclient studies “ The World Wide Market For Railway Technology 2012”, 각 사 위 Annual Report)

중기 분야는 산업의 특성상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 국방비의 증가 흐름과 여기서 차지하는 방위력 투자비의 흐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전체 정부예산 309조원 중에서 국방비는 31조원으로 약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중에서 당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 구매비는 9.7조원 수준으로 전체 국방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에 해당합니다. 무기 구매비 중에서 당사의 주력 분야인 육상 기동전력은 약 11%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SIPRI)

한편,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 및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간 중동지역에 집중되었던 수주 편중세는 점차 아시아, 아프리카등 신흥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설비 분야별로는 Oil&Gas, 석유 화학이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발전, 담수, 해양 분야 그리고 산업시설, 기자재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가 점차 확대되어 5억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가 전체 수주의 8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플랜트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공사 종류별로는 세계GDP 시장에 기반한 발전플랜트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부문별 주요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차량 부문	매출액	103,198,545	85.7	103,878,093	88.0	94,381,955	89.3
	영업이익	6,412,596	81.0	6,714,889	82.4	6,647,586	83.1
	총 자산	80,927,475	55.2	77,264,305	56.6	71,314,560	57.3
금융 부문	매출액	10,146,973	8.4	8,799,513	7.5	7,401,809	7.0
	영업이익	1,120,128	14.1	1,177,231	14.4	1,203,430	15.0
	총 자산	59,157,882	40.4	53,424,342	39.2	48,539,075	39.1
기타 부문	매출액	7,077,614	5.9	5,348,113	4.5	3,895,091	3.7
	영업이익	388,421	4.9	254,716	3.1	146,324	1.8
	총 자산	6,496,797	4.4	5,742,620	4.2	4,441,339	3.6

※ 상기 금액은 연결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부문별 금액과 비중을 나타냄.

3. 신규사업 추진 현황

당사는 2013년 주주총회에서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일환으로 '기타 제철 및 제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자동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주요 제품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각 부문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차량 부문	매출액	103,198,545	85.7	103,878,093	88.0	94,381,955	89.3
	내부매출액	(31,663,499)	95.6	(32,571,552)	97.1	(27,253,897)	97.8
	순매출액	71,535,046	82.0	71,306,541	84.4	67,128,058	86.3
금융 부문	매출액	10,146,973	8.4	8,799,513	7.5	7,401,809	7.0
	내부매출액	(254,543)	0.8	(136,556)	0.4	(113,783)	0.4
	순매출액	9,892,430	11.3	8,662,957	10.3	7,288,026	9.4
기타 부문	매출액	7,077,614	5.9	5,348,113	4.5	3,895,091	3.7
	내부매출액	(1,197,454)	3.6	(847,890)	2.5	(513,280)	1.8
	순매출액	5,880,160	6.7	4,500,223	5.3	3,381,811	4.3

※ 상기 매출액은 연결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부문별 매출액과 비중을 나타냄.

5. 주요 제품 및 상품의 가격변동 현황

각 부문별 제품 및 상품의 가격변동 현황은 단순 판매가격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차량 부문	국내 완성차	승 용	33,043	33,874	34,271
		R V	33,398	32,004	32,164
		소형상용	19,342	18,586	17,468
		대형상용	118,656	110,141	107,318
	해외 완성차	승 용	30,005	31,201	29,945
		R V	40,376	39,333	41,271
		소형상용	40,390	42,155	43,963
		대형상용	58,088	57,274	60,516
기타부문	철도차량		1,400,000	1,800,000	2,750,000

※ 상기 차량부문의 가격은 품목별 판매가격의 단순 평균가격임.

※ 상기 차량부문은 국내 및 해외에 따라 일부 차종 등이 상이함.

※ 해외의 경우 북미지역(미국), 유럽지역(독일), 아시아지역(호주) 대표 시장의 판매가격에 환율을 적용한 단순 평균가격임.

※ 소형상용 및 대형상용의 해외 판매분은 전량 국내에서 수출되는 차량으로서, 수출지역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며 차종 또한 각국의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일부 차종으로 국한됨.

※ 상기 기타부문은 당기 주요 수주제품중 1량당 평균 금액 기준임.

6.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단위 : 억원, %)

부문	구분	매입유형	주요품목	매입액	비율(%)	비고
차량부문	국내공장 (HMC)	부품	모듈, 시트外	201,149	45.9	현대모비스外
		원부자재	철판, 페인트外	36,488	8.3	포스코.KCC外
	미국공장 (HMMA)	부품	모듈, 시트外	55,313	12.6	현대모비스外
		원부자재	철판, 페인트外	1,610	0.4	현대하이스코外
	인도공장 (HMI)	부품	모듈, 에어컨外	37,281	8.5	현대모비스外
		원부자재	철판, 페인트外	4,675	1.1	현대하이스코外
	터키공장 (HAOS)	부품	에어컨, 범퍼外	12,547	2.9	비스테온外
		원부자재	철판, 페인트外	694	0.2	현대하이스코外
	체코공장 (HMMC)	부품	모듈, 시트外	36,872	8.4	현대모비스外
		원부자재	철판, 페인트外	1,994	0.5	현대하이스코外
	러시아공장 (HMMR)	부품	모듈, 시트外	20,823	4.8	현대모비스外
		원부자재	철판, 페인트外	1,416	0.3	현대하이스코外
	브라질공장 (HMB)	부품	모듈/시트外	14,853	3.4	현대모비스外
		원부자재	철판/페인트外	1,188	0.3	현대하이스코外
	계	부품		378,838	86.5	
		원부자재		48,065	11.0	
기타부문	철도차량外	원재료	금속소재	10,874	2.5	포스코外
합 계				437,777	100.0	

※ 상기의 주요원재료의 매입현황은 차량부문은 각 생산공장 기준이며, 기타부문은 현대로템 기준임.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사업부문	품 목		2013년	2012년	2011년
차량 부문	철판	원/TON	1,060,000	1,060,000	1,006,667
	알루미늄	\$/TON	1,846	2,018	2,398
	구리	\$/TON	7,326	7,950	8,821
	플라스틱	\$/TON	1,482	1,414	1,541
기타부문	SUS LT2T	백만원/TON	5.2	5.3	5.6

※ 상기 차량부문의 철판가격은 포스코 열연, 알루미늄과 구리는 LME(Lodon Metal Exchange), 플라스틱은 PLATTS(극동아시아) 가격 기준임.

※ 상기 기타부문의 가격은 SUS301L LT 2T SHEET 가격 BASE 기준임.

7.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차량부문의 생산능력은 각 공장별 생산능력을 '년간표준작업시간 × 설비 UPH × 가동률'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설비 UPH는 공장설계시 목표 UPH를, 가동률은 인원 및 비작업시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별 생산능력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대)

사업부문	법인명	소재지	2013년	2012년	2011년
차량 부문	HMC	한국	1,807,000	1,868,000	1,868,000
	HMMA	북미	370,000	320,000	300,000
	HMI	아시아	650,000	640,000	600,000
	HAOS	유럽	108,000	100,000	100,000
	HMMC	유럽	300,000	300,000	230,000
	HMMR	유럽	200,000	200,000	115,000
	HMB	남미	150,000	29,000	-

※ 상기 생산능력은 각공장별 연간 표준작업시간 및 가동형태(2교대, 3교대) 등의 기준으로 작성됨.

(2) 생산실적

(단위 : 대, 억원)

사업부문	법인명	소재지	2013년	2012년	2011년
차량 부문 (대)	HMC	한국	1,850,727	1,905,26	1,892,254
	HMMA	북미	399,500	361,348	338,127
	HMI	아시아	633,006	638,775	619,785
	HAOS	유럽	102,020	87,008	90,231
	HMMC	유럽	303,460	303,035	251,146
	HMMR	유럽	229,400	224,420	138,987
	HMB	남미	167,346	27,424	-
기타 부문 (억원)	철도부문	한국	13,404	12,599	14,283
	중기부문	한국	4,460	3,767	3,745
	플랜트부문	한국	10,407	11,031	5,117

※ 상기 차량부문은 생산대수이며, 기타부문은 '생산진행률 × MH' 기준임.

(3) 가동율

가동율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단순 역산하여 나타낸 수치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시간)

사업부문	법인명	소재지	2013년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차량 부문	HMC	한국	1,807,000	1,850,727	102.4%
	HMMA	북미	370,000	399,500	108.0%

(대수)	HMI	아시아	650,000	633,006	97.4%
	HAOS	유럽	108,000	102,020	94.5%
	HMMC	유럽	300,000	303,460	101.2%
	HMMR	유럽	200,000	229,400	114.7%
	HMB	남미	150,000	167,346	111.6%
기타 부문 (시간)	철도부문	한국	1,367,812	1,214,866	88.8%
	중기부문	한국	864,745	788,755	91.2%
	플랜트부문	한국	70,398	69,712	99.0%

※ 상기 차량부문은 생산대수 기준이며, 기타부문은 가동 가능시간 대비 실제 가동시간 기준임.

나. 설비의 신설·매입 계획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 및 연결대상 회사의 생산에 중요한 시설 등으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 등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 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 타	계
기 초	5,799,466	5,131,969	5,833,154	1,902,312	2,072,957	20,739,858
증 감	(28,980)	411,608	977,942	511,980	609,006	2,481,556
상 각	-	(259,427)	(789,330)	-	(710,070)	(1,758,827)
기 말	5,770,486	5,284,150	6,021,766	2,414,292	1,971,893	21,462,587

(2) 주요 투자 현황

① 진행중인 투자

(단위 : 억원)

사업부문	법인명	품목	투자금액	비고
차량부문	HMC	신차, 공장신증설, 보완투자 등	18,454	한국
	HMMA		1,281	미국
	HMI		2,493	인도
	HAOS		1,023	터키
	HMMC		377	체코
	HMMR		161	러시아
	HMB		1,237	브라질
기타부문	현대로템	증설/보완투자	338	한국

※ 차량부문은 설비투자에 한정된 투자금액으로 연구개발비용은 제외된 기준임.

② 향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부문	법인명	품목	투자금액	비고
------	-----	----	------	----

차량부문	HMC	신차, 공장신증설, 보완투자 등	23,259	한국
	HMMA		2,380	미국
	HMI		2,295	인도
	HAOS		1,096	터키
	HMMC		483	체코
	HMMR		417	러시아
	HMB		175	브라질
기타부문	현대로템	증설/보완투자	410	한국

※ 상기의 투자계획은 2014년 설비투자에 한정된 투자금액으로 향후 시장여건 등에 의해 변경 될수있음

8.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당사와 연결종속회사 중 대표적인 수출기업은 차량부문의 현대자동차와 기타부문 의 현대로템입니다. 각 부문별 매출액과 현대자동차 및 현대로템의 별도기준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문별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매출	차량부문	71,535,046	71,306,541	67,128,058
	금융부문	9,892,430	8,662,957	7,288,026
	기타부문	5,880,160	4,500,223	3,381,811
합 계		87,307,636	84,469,721	77,797,895

② 현대자동차 매출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13년	2012년	2011년
제품	승용	내 수	7,537,218	8,319,264	9,223,007
		수 출	13,135,151	14,080,176	12,326,614
		합 계	20,672,370	22,399,440	21,549,621
	RV	내 수	3,487,007	2,821,478	1,783,622
		수 출	6,443,567	6,416,919	6,897,672
		합 계	9,930,573	9,238,397	8,681,294
	소형 상용	내 수	2,274,515	2,233,332	2,404,555
		수 출	1,053,377	1,272,888	1,486,967
		합 계	3,327,891	3,506,220	3,891,522
	대형 상용	내 수	1,836,326	1,986,353	2,161,850
		수 출	1,067,901	1,079,743	989,550
		합 계	2,904,227	3,066,095	3,151,399

	기타	내 수	1,040,506	1,110,771	1,105,666
		수 출	3,819,175	3,845,197	4,399,053
		합 계	4,859,681	4,955,967	5,504,719
합 계		내 수	16,175,572	16,471,196	16,678,699
		수 출	25,519,171	26,694,923	26,099,856
		합 계	41,694,742	43,166,119	42,778,555

※ 2013년 합계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3,572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2012년 합계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3,718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2011년 합계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4,478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③ 현대로템 매출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2013년	2012년	2011년
철도부문	전동차 外	내 수	953,773	695,793	610,910
		수 출	597,663	778,480	1,190,077
		합 계	1,551,436	1,474,273	1,800,987
중기부문	방산물자	내 수	392,368	302,446	324,928
		수 출	80,429	52,200	36,670
		합 계	472,797	354,646	361,598
플랜트부문	자동차설비/제철설비 外	내 수	536,426	1,009,596	270,234
		수 출	484,262	229,163	265,943
		합 계	1,020,688	1,238,759	536,177
합계			3,044,921	3,067,678	2,698,76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전략

(1) 차량부문

국내는 전국 직영지점 및 판매대리점으로 현금/외상/할부(자체, 금융, 오토)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 증진을 위해 고객 최우선 경영 실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개, 현장 맞춤형 특화 판촉 실시 등의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현지법인을 통해 지역별, 국가별 연동 대응하여 세계각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전략으로는 지역별 신차 효과 극대화, 고객서비스 강화, 고급차 판매 확대를 통한 브랜드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문

국내 자동차금융 영업은 각 완성차 업체의 판매망(직영점 및 대리점)을 영업거점으로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금융 수요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완성차 업체의 판매망에서, 각 판매망의 영업인력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융사의 자체적인 영업망은 지역별 영업지원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지점 등의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대캐피탈

(2013년 12월 31일 현재)

지역	본점	지점	합계
서울특별시	1	17	18
인천광역시		4	4
대전광역시		3	3
광주광역시		3	3
대구광역시		4	4
부산광역시		5	5
울산광역시		2	2
경기도		15	15
경상도		8	8
전라도		5	5
강원도		3	3
충청도		5	5
제주도		1	1
합계	1	75	76

■ 현대카드

(2013년 12월 31일 현재)

지역	본점	지점	합계
서울특별시	1	3	4
대전광역시		1	1
광주광역시		1	1
대구광역시		1	1
부산광역시		1	1
경기도		1	1
합계	1	8	9

(3) 기타부문

현대로템은 수주확대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영업팀을 통한 영업력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경로를 살펴보면 철도부문의 경우, 국내는 철도공사 및 지자체, 민자 사업자 물량을 경쟁입찰방식과 SOC사업의 일괄던키 방식으로 수주되고, 해외는 직접 수주 및 국내외 종합상사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수주됩니다.

이와 같은 수주확대 등을 위해 현대로템은 전략적 중점시장, 대상시장 선점 및 수주, 既진출 국 시장유지 및 확대, 철도관련분야 사업 및 부품 수출 확대, 고부가 가치 차량의 개발, 선진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부문의 경우 국내외 프로젝트별 입찰을 통한 수주가 되고, 이와 같은 수주 확대 등을 위해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수주, 국내 유일의 자동차 생산 Full Line UP을 활용한 턴키수주, 핵심기자재 제조 기반 EPC신규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의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가. 시장위험

연결실체는 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과 외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USD, EUR, JPY 등입니다.

연결실체는 환위험관리를 위하여 외화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환리스크를 제거하고, 환율전망에 따라 외화자금 수급의 결제기일을 조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통화선도,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의 외환파생상품을 헷지수단으로 이용하되, 매매목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5%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환종	5% 상승시	5% 하락시
USD	10,689	(10,689)
EUR	(27,184)	27,184
JPY	(5,737)	5,737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 있는 화폐성 자산·부채 및 파생상품 자산·

(*) 부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매출액, 매출원가 등 손익계산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2)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 부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는 고정이자율 차입금과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 차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과 관련하여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위험회피 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다.

당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 상승시	1% 하락시
현금및현금성자산	18,846	(18,846)
비파생단기매매금융자산	(6,424)	6,577
장단기금융상품	849	(849)
차입금 및 사채	(77,840)	77,840

한편, 회사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인 현대카드(주)와 현대캐피탈(주)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정규분포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손실가능금액을 의미하는 VaR를 이용하여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VaR로 측정한 이자율 위험 금액은 각각 65,863백만원 및 81,375백만원입니다.

(3) 가격위험

연결실체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단기매매지분상품 및 매도가능지분상품은 각각 38,927백만원 및 2,391,156백만원입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에 재무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평가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 등의 유동자금과 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금융기관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연결감사보고서 주식37의 지급보증 내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유동성위험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적인연구개발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통한 현금성자산의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시장 환경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무역금융 및 당좌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 조달구조 장기화, 신용등급 강화등을 통한 안정적 조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명목현금흐름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계
무이자부부채	13,074,251	15,666	298	13,090,215
이자부부채	15,040,963	35,118,473	780,044	50,939,480
금융보증금액	986,266	76,255	116,816	1,179,337

※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공정가액 변동위험 및 예상수출거래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옵션, 통화스왑, 이자율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가 적용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평가이익 1,207백만원 및 평가손실 1,112백만원을 각각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당기말로부터 59개월 이내입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가 적용되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과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가 적용되지 않은 기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전액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가 인식한 순손익(세전)은 각각 평가손실 230,974백만원과 410,510백만원 입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3년	2012년	2011년	비 고
연구개발비용 계	1,849,044	1,631,670	1,445,268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2.1%	1.9%	1.9%	-

※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연구개발실적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연비향상을 위한 가·감속시 에어컨 제어 기술	자체개발	- 가속/감속에 따른 에어컨 컴프레스 능동제어로 회생에너지 이용 및 소모동력 축소로 연비향상 및 가속성능 향상
다중 챔버에 의한 에어백 전개 기술	공동개발	- 하방향에서 승객의 가슴을 보호하고 상방향으로 2차적으로 전개하여 머리를 보호함
브리스톨 오디오	공동개발	- 블루투스 및 음성인식 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고급형 오디오 플랫폼 개발
햅틱 스티어링 휠 스위치	공동개발	- 모터 제어로 다양한 필링감을 제공하는 햅틱 기능 구현하는 스위치
자동변환 전조등 시스템	공동개발	- 다양한 주행환경에 최적화된 빔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향상 - 친환경 광원 LED 적용으로 전조등의 소비전력 감소
주차조향 보조시스템	공동개발	-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자동계측 산출, MDPS와 연계 제어 및 자동 조향을 통한 주차 지원
양전류자동차단 스마트 박스	공동개발	-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양전류 자동차단으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교환율 개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회생제동 협조제어 제동장치	공동개발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차량 등 회생 제동하는 차량에 적용 - 회생제동시 구동 모터와 유압의 토크를 제어하여 운전자의 제동 의지에 맞는 감속도 형성
트윈스크롤 터보차저를 적용한 가솔린 직분 엔진기술	자체개발	- 북미 ULEV/국내 09EM 배기 규제 만족 - 기존 V6엔진 탑재 차량 대비 연비개선
G 엔진용 2단 터보차저	자체개발	- 고압 및 저압용 2개 터보 차저를 직렬로 연결하여 엔진의 작동영역별 최적 성능 실현
하이브리드 변속기 개발	자체개발	- 엔진클러치와 모터를 적용하여 EV 주행이 가능한 Parallel Type 하이브리드 시스템 - 토크컨버터 없는 하이브리드 전용모터 내장형 6단 자동변속기 개발
액티브 에어플랩 기술개발	공동개발	- 엔진냉각을 위한 외기의 유입을 제어하는 시스템
왜곡보정 스마트 카메라 개발	공동개발	- 광각렌즈 적용시 발생하는 영상 왜곡 현상을 카메라 내부 프로세스로 영상 처리하여 이미지 보정 및 영상 변환 수행
자동차용 고내구성 오염 방지시트 개발	공동개발	- 자동차 시트에 방오 성능을 부여하여, 오염성을 개선 및 부착된 오염물의 부패에 따른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 시트 쾌적성이 개선
EV용 급속/완속 충전 케이블	공동개발	- 국제 표준화에 준한 EV용 급속/완속 충전 인터페이스 개발
후륜 8속 자동변속기	자체개발	- 기존 6속 대비 종량과 부품수를 줄이면서 성능 향상 및 연비를 개선한 독자 개발 변속기
GDI엔진 고압연료펌프 저소음 제어로직 신규개발	공동개발	- 유량제어 밸브이 닫힘/열림 속도를 신규 제어 로직을 이용하여 저감시감으로서 밸브 충격량의 최소화 구현
소형 I-4 감마 직접분사 가솔린 엔진	자체개발	- 1.6L 급 I-4 가솔린 직접분사 엔진 독자개발
타우5.0 가솔린 직접분사 엔진 기술	자체개발	- V8 가솔린 직접 분사 엔진 개발
Gate Type 기계식 키 인터락 구조개발	자체개발	- 전자식 키 인터락 구조를 게이트 타입 기계식으로 개발
차선유지지원시스템	공동개발	-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과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조향 지원시스템
중소형 건식 6속 더블클러치변속기	자체개발	-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두개의 클러치가 두개의 동력 입력축과 연결되어 기어 변속과 클러치 조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동화 수동변속기
고출력 컬럼타입 MDPS	공동개발	- 기존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의 출력 향상개발
북미 텔레매틱스	공동개발	- 글로벌 텔레매틱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북미차량 전차종 확대 적용 등
친환경 디젤엔진용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적용기 술	자체개발	- 유로5 배기규제 만족 등
자동변속기용 공회전 자동 엔진정시 시스템	자체개발	- 운전자의 의지 및 차량상태에 따라 엔진 재시동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개발	- 4개 카메라 이용 차량 주변 상황을 1개 화면으로 표시 등
표준형 AVN 3.0 플랫폼 개발	공동개발	- SD카드를 이용한 내비 업데이트 등
FLEX STEER	공동개발	- 조향력을 사용자 성향에 맞추어 가변적으로 선택 등
흡기계 기류음 저감 소음기 개발	공동개발	- 고주파 기류음 저감 소음기 개발을 통한 흡기소음 저감 기술 확보
연속 가변 밸브 리프트 구동 장치 개발	자체개발	- 독자 연속 가변 밸브 리프트 기구 및 엔진 개발
가변밸브 어코스트릭 덕트 구조 개발	자체개발	- 고성능 엔진 적용 차종 에어클리너 삽입형 어코스트릭 재질 가변 밸브 덕트 개발
감마 TURBO GDI 엔진 선행 개발	자체개발	- 감마엔진의 GDI+TCI화 선행개발
관성3점용 브릿지타입 하이드로 마운트 개발	공동개발	- H형 3점 마운트로 개발
2Stage 수분 분리 디젤 필터 개발	자체개발	- 2stage 여과방식으로 수분분리 기능이 강화된 디젤연료필터 개발 - 고압인젝션 연료펌프의 부식 & 마모 내구성 향상

CubiS-T	공동개발	- 상품성 및 원가경쟁력 향상된 내수 텔레매틱스 플랫폼 개발
고압/고유량 대응 저전류 소모용 GDI 연료 펌프 모듈	자체개발	- GDI 엔진 대응 저전류 소모 연료 펌프모듈 개발
트레일러 흔들림 방지 기능	공동개발	- 트레일러 흔들림 발생시 ESC 제어를 통한 주행안정성 확보
RV 워머 시스템	공동개발	- 변속기 오일 초기 워밍 개선 ATF 워머 & 밸브 개발
중국 텔레매틱스	공동개발	- 중국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으로 당사 브랜드 강화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상품력 향상
진공성형을 이용한 다층구조 NVH FELT 개발	공동개발	- CARPET 흡음재 성형 FELT 적용으로 NVH성능 향상
Anti-Pulling MDPS 로직 개발	자체개발	- 차량 쏠림 발생시 운전자의 조타 토크를 보상하는 MDPS 로직 - 직진 주행 성능 향상 및 운전자 피로도 감소 및 IQS 쏠림 개선
전기식 진공펌프 제어기 개발	자체개발	- 제어기 및 작동 로직 개발 - 자체 제어 로직 개발
열전 반도체타입 차량용 냉/온장고	자체개발	- 열전소자를 이용한 차량용 냉온장 시스템 적용 - 보관 음료 보냉/보온 가능
ARISU-MF	공동개발	- 멀티평선 스위치에 전용반도체(ASIC) 적용 - 암전류 0.4mA 달성
연료전지용 냉각시스템 개발	공동개발	- 연료전지차량 냉각성능 확보를 통한, 차량 주행 상품성 개선(최고속 냉각성능 확보)
샌드위치형 엔드플레이트	공동개발	- 연료전지 스택 체결용 경량 및 저열관성 엔드플레이트 구조 및 제작 공법 개발
100kW급 운전장치 개발	공동개발	- 100kW급 연료전지 차량용 운전장치 개발
연료전지차량 구동용 양방향 직류변환장치	공동개발	- 연료전지차의 구동용 양방향 직류변환장치 국산화 개발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최적 제어기술 개발	자체개발	- 연료전지와 고전압 배터리의 전력분배 제어기술 개발
유도 모터 효율 개선	자체개발	- 유도모터 양산 최초 적용 - 백터 제어 운전 기술을 이용한 효율 개선으로 연비 증대
연료전지차량용 수소저장시스템 통합제어기	공동개발	- 밸브 개방 소음 개선 - 충전 속도 및 편의성 향상
리모트 윈도우 (UP/DOWN) 시스템	공동개발	- 차량 내부 물품의 도난 방지 및 탑승전 차량 환기를 위한 시스템
외장부품용 초고유동 고강성 소재	공동개발	- 차량경량화 통한 연비향상 위한 경량 범퍼커버용 소재 개발
OLED 클러스터 개발	공동개발	-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를 클러스터에 적용하여 고객 감성 품질 향상
나노다이아몬드 코팅 피스톤	공동개발	- 마찰 저감 및 코팅제 내마모성 향상을 통한 연비개선
초소형 HVAC 시스템 개발	공동개발	- 실내 공조 장치 풍향/온도 조절 도어 구조변경 및 유로 최적화로 소형화 구현 - 사이즈,부품수 축소를 통한 중량 절감 및 거주성 향상
AT 인디케이터 문자 멀티 컬러 조명 기술 개발	자체개발	- 신개념 도광판을 이용하여 LED 개수 축소 및 멀티 컬러 구현
TACU 기능 내장형 스마트 정션박스	공동개발	- 스마트정션 블록 주기능에 TACU 기능을 통합 구현
피스톤링용 저마찰 Si-DLC 코팅재	공동개발	- 피스톤링 외주면에 저마찰 Si-DLC 코팅 적용하여 연비개선 및 CO2저감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	공동개발	-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하여 영상 화질 향상
표준프레임 업그레이드	자체개발	- 초고장력강 적용으로 프레임 슬림화 및 강성 증대
웰컴 라이트 패턴로고 램프 개발	자체개발	- 퍼들램프의 기능과 동시에 로고가 확대 적용시 선명도를 유지하는 기술 구현
지능형 환기 시스템 개발	공동개발	- 차량 실내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양을 자동으로 파악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래틀 노이즈 개선을 위한 폴가이드 개발	공동 개발	- 폴 가이드/헤드레스트 스테이/시트 백 프레임을 동시에 잡아주는 구조 적용
다이나믹 컴포트 기초기술 연구	자체개발	- 시트 다이나믹 컴포트 최적화로 감성품질 향상
볼스터 어저스터 시트 개발	공동개발	- 시트 측면부 볼스터 높이 조절을 통한 다양한 체형의 고객 측면 지지 성능 제공
ESC 크루즈 강판제어	공동개발	- 내리막길 주행시 크루즈 컨트롤 정속 유지를 통해 주행상품성 증대 구현
R-MDPS	공동개발	- 전기모터가 조향력을 직접 구동하여 연비, 조향 성능, 상품성 향상
변속기 NVH 개선 소재 및 공법	자체개발	- 애놀러스 기어 열처리 공법 변경으로 열변형 저감을 통해 NVH 개선
국부연화 센터필라 보강재	공동개발	- 충돌성능 및 충돌안정성 향상을 위한 국부연화 센터필라 보강재 개발
알루미늄 속업소버 하우징	공동개발	- 속업소버 하우징 일체형 박육 고강성 알루미늄 주조 공법 적용 개발
중공주조 TM 마운팅 크로스멤버	자체개발	- 트랜스 미션을 지지하는 TM 마운팅 크로스 멤버의 중공화 기술 개발
대화면 HUD	자체개발	- 대화면 HUD 영상에 레이아웃 최적화 및 운전자 친화적 콘텐츠를 적용하여 사용성/시인성 향상

SJB 일체형 CAN통신 5채널 통합 게이트 웨이 개발	자체개발	- 스마트정션블록과 통합된 CAN통신 5채널 게이트웨이
아웃사이드 미러 전용 반도체	공동개발	- 아웃사이드미러 제어용 모터/히터/램프 기능통합 MCU 일체형 전용반도체 개발
2단 가변오일펌프	공동개발	- 제어 스프링 및 솔레노이드 밸브 ON/OFF를 통한 오일압력 최적화로 연비개선
스마트키 핸드프리 테일게이트 시스템	자체개발	-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자체 기술 확보 및 신뢰성, 상품성 달성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제품/서비스 등의 상표 관리정책 현황

당사는 현대자동차의 기업 및 상품 브랜드의 가치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사 브랜드 최고 심의 기구인 '브랜드전략위원회'를 통해 브랜드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CI.Net을 통해 브랜드 관련 자산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및 스포츠 마케팅 투자 등 모든 고객 접점에서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선호도 및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는 국내 13,409건 및 해외 3,259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법령이나 정부규제는 자동차 제조 형식 승인,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자동차 관련 조세 등 다양합니다.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형식승인제도가 2003년 1월부터 자기인증제로 변경되는 등 최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는 먼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4가지 세금이 있으며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와 운행 시 자동차세와 교육세, 교통세, 부가세 등 4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 세제 간편화 차원에서 등록세와 주행세가 각각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 차원에서 일부 세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되기도 하였으나 교육재정 확충,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및 도로교통재원 확보를 위해 유류 관련 세금이 신설되고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한 단계 낮아져 2,000cc 초과 차량의 세율은 2012년 8%에서 2013년 7%로 인하되었고 2014년에는 6%로 낮아졌습니다. 택시용 LPG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이 2014년 6월까지 1년 간 연장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환경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운전자와 탑승자 보호를 위한 안전 규제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관련 법규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세제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연비 측정 방법 및 표시 방법 적용을 확대하여 신차뿐만 아니라 양산차도 신규 연비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휘발유와 가스차의 평균배출량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디젤차에 유로6 수준의 배출기준도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라. 회사 환경 규제

당사는 글로벌 환경 이슈 및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기후변화, 자원순환, 배출가스(대기 환경), 유해물질을 4대 핵심 이슈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동차와 관련된 기후변화 규제 정책은 제품과 생산공장 부문으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연비 및 CO2 규제, CO2 세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강력한 정책으로서 저CO2, 고연비 차량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순차적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생산공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당사는 자동차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 기술전략인 블루드라이브를 기반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의 연비와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두 번째 하이브리드 차종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판함으로써 대형차급까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전기차는 2010년 국내 최초로 고속 주행이 가능한 '블루온'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등에 30대 보급하였으며 2011년에는 관공서 257대를 추가로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15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장착한 중형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연비와 성능이 한 단계 향상된 3세대 수소연료전지차인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하여, 2015년까지 1,000대를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1년 북유럽4개국과 수소연료전지차 시범 보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2011년 2월에는 독일 클린에너지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2011년 5월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시와 보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EU의회 수소연료전지차 시범 운행 사업자로 현대자동차가 단독 선정되었으며,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EU의 정부과제에 참여하여 코펜하겐시 및 노르웨이에서 시범운행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를 양산하였으며, 코펜하겐,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관용차 용도로 인도하고 덴마크 시청 보급 사업을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시장에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차를 일반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친환경차 기술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상을 공고해 나갈것입니다.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뿐만 아니라 판매, 서비스, 연구 관련 건물 부문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총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베이스 라인으로하여 top-down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협약 체결한 이후 고유가, 이상기온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2012년 정부와 약정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등 기후 변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

당사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을 절감하고(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하는 등 3R 추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구의 소중한 자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폐차 중량의 95% 이상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활용 소재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자동차의 70% 이상을 차

지하는 금속류를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부품또한 기존에 매립, 소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폐기 시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재자원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폐차의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자동차의 배출 가스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도심의 대기질은 자동차의 절대량 증가와 인구 집중 현상의 심화로 인해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및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디젤 차량의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의 규제치를 한 단계 더 강화한 유로 5를 도입하여 2009년 9월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유로 5 대비 NOx를 56% 강화한 유로 6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무공해차(ZEV) 의무 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수도권 저공해차에 대해 엄격한 NOx와 PM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는 크게 연방정부의 'Tier-2 규제'를 따르는 지역과 캘리포니아주의 'LEV II 규제'를 따르는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LEV II 규제 및 무공해차 (ZEV: Zero Emission Vehicle)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배출가스 규제로 현재 '18년 이후에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PHEV, EV, FCEV만으로 대응하는 규제로써 자동차 업체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차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사는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 배출가스 배출량을 각 지역의 규제 수준 미만으로 엄격히 관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배출가스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당사는 2006년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4대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사용을 금지하는 글로벌 방침을 수립하고 국내공장을 시작으로 해외공장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공장은 일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문을 제외하고 4대 중금속 사용을 전폐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규제 (REACH)를 비롯해 미국, 한국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설계단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물질 성분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제품(자동차)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발암물질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공장 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해물질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제 43 기
[유동자산]	58,856,105	54,847,586	48,926,350	43,520,154
현금및현금성자산	6,872,430	6,759,338	6,231,946	6,215,815
단기금융상품	14,875,288	12,384,057	9,182,575	7,421,776
매출채권	3,485,345	3,686,824	3,845,517	3,192,003
재고자산	7,073,116	6,772,864	6,237,752	5,491,437
기타	5,371,335	4,377,036	3,770,872	3,467,568
금융업채권	21,178,591	20,867,467	19,657,688	17,731,555
[비유동자산]	74,565,374	66,690,228	60,553,625	51,193,977
유형자산	21,462,587	20,739,858	19,548,048	18,514,209
투자부동산	263,984	282,832	282,427	267,116
무형자산	3,129,090	2,883,218	2,660,109	2,651,568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4,694,995	13,117,731	11,709,238	6,909,451
기타	4,614,826	3,209,737	3,633,108	5,016,121
금융업채권	19,835,016	18,626,764	17,452,441	15,233,444
운용리스자산	10,564,876	7,830,088	5,268,254	2,602,068
자산총계	133,421,479	121,537,814	109,479,975	94,714,131
[유동부채]	31,919,682	32,835,699	33,163,508	31,445,486
[비유동부채]	44,919,008	40,784,540	35,988,765	30,380,672
부채총계	76,838,690	73,620,239	69,152,273	61,826,158
[자본금]	1,488,993	1,488,993	1,488,993	1,488,993
[연결자본잉여금]	4,130,668	4,158,988	4,114,010	3,900,935
[연결자본조정]	(1,128,779)	(1,128,779)	(1,128,779)	(918,214)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4,036)	(473,373)	375,281	409,914
[연결이익잉여금]	48,274,239	39,993,230	32,263,528	25,216,163
[비지배지분]	4,651,704	3,878,516	3,214,669	2,790,182
자본총계	56,582,789	47,917,575	40,327,702	32,887,973
매출액	87,307,636	84,469,721	77,797,895	66,985,271
영업이익	8,315,497	8,440,601	8,041,523	5,893,0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96,706	11,610,442	10,465,401	7,502,434
연결총당기순이익	8,993,497	9,061,132	8,120,298	6,010,815
지배회사지분 순이익	8,541,834	8,566,568	7,671,713	5,577,158
주당순이익	31,441원	31,532원	28,259원	20,553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92	87	75	73

2.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가. 연결대상회사의 변동현황

사업연도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제46기	현대캐피탈등 92사	<p>Hyundai Motor De Mexico (HMM)</p> <p>Hyundai Capital Brasil Servicos De Assistencia Financeira Ltda</p> <p>맥쿼리라이언 사모증권투자신탁 제45호</p> <p>신한BNPP법인용사모증권투자신탁 제27호</p> <p>미래에셋트라이엄프사모증권투자신탁 제13호</p> <p>IBK파노라마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0호</p> <p>우리프런티어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p> <p>KTB세이프 사모증권투자신탁 제78호</p> <p>오토피아제오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오토피아제오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오토피아제오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에이치비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오토피아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오토피아제삼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오토피아제삼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오토피아제사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Hyundai BC Funding Corporation</p> <p>Hyundai HK Funding One, LLC</p> <p>Hyundai Auto Lease Funding, LLC</p>
제45기	현대캐피탈등 87사	<p>Hyundai Motor Deutschland GmbH</p> <p>Hyundai Motor France SAS</p> <p>Hyundai Automobiles Services SAS</p> <p>Hyundai Accessories & Parts SARL</p> <p>Hyundai Protection Plan, Inc.</p> <p>Hyundai Protection Plan Florida, Inc.</p> <p>프리비아제삼차유동화전문회사</p> <p>지이캐피탈코리아(주)</p> <p>Hyundai Capital Insurance Company</p> <p>(주)현대캐피코</p> <p>KEFICO Automotive Systems (Beijing) Co., Ltd.</p> <p>KEFICO VIETNAM COMPANY LIMITED</p> <p>Hyundai Capital India Private Limited</p> <p>Hyundai Motor Sport GmbH</p> <p>오토피아제사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에이치비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Hyundai Automobiles Services SAS</p> <p>Hyundai Accessories & Parts SARL</p> <p>지이캐피탈코리아(주)</p> <p>프리비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p>
제44기	현대캐피탈등 75사	<p>프리비아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p> <p>오토피아제사십오차유동화전문회사</p> <p>Hyundai Capital Services Limited Liability Company</p> <p>오토피아제사십육차유동화전문회사</p> <p>Hyundai Auto Lease Offering, LLC</p> <p>Hyundai HK Lease LLC</p> <p>오토피아제사십칠차유동화전문회사</p>	<p>오토피아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회사</p> <p>오토피아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회사</p> <p>워크앤조이이천철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p> <p>오토피아제삼십팔차유동화전문회사</p> <p>오토피아제사십일차유동화전문회사</p>
제43기	현대캐피탈등 73사	-	-

※ 신규출자(12개사):Hyundai Motor De Mexico 등 12사

※ 해산(7개사):오토피아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7사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용된 모든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보고기간과 동일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 회사의 종속기업인 HAOSVT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가 바뀌었다고 판단하여 당기부터 기능통화를 USD에서 EUR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처리방침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기에 새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개정) '재무제표 표시'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개정) '종업원급여'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사외적립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이자수익(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비교 표시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해 개정 전 기준과 비교하여 전기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및 법인세비용이 각각 4,872백만원 감소, 1,218백만원, 1,658백만원 및 45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개정) '금융상품:공시'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정보를 비교표시되는 기간에 소급하여 공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제정) '연결재무제표'

동 기준서는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제정) '공동약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동 기준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제정) '공정가치 측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공정가치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개정) '금융상품: 표시'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제정) '부담금'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합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합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

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및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한편,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건설계약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수행한 공사의 측량,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등의 방법 중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합니다.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정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6)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됩니다.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이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되고 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이며,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한편, 외환손익은 관련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 또는 기타수익·비용으로 분류됩니다.

(7)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됩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가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및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손익을 제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해 누적 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차이로 측정하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 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출채권과 금융업채권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한편,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지만,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통제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비를 포함하며, 재고자산 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이동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11)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금액은 누적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일부를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속원가는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2 - 50	공구기구금형	2 - 15
기계장치	2 - 25	집기비품	2 - 20
차량운반구	3 - 20	기타유형자산	2 - 30

한편,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연결실체 지분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으며 영업권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종속기업을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2) 개발비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이며, 최초 인식 후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개별취득 무형자산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개발비	3 - 6
산업재산권	4 - 13
소프트웨어	2 - 10
기타무형자산	2 - 40

한편,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은 순현금유입이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가능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지 않습니다.

(15) 유·무형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유·무형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만약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을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상각하지 않고 적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7)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이자수익은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뉘고, 이자비용은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 하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1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한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퇴직급여채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

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 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 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순이자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내의 정상적 부품수리 및 비정상적인 부품개체, 수출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품의 매출시점에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부여된 총 대출한도 중 미실행된 한도에 대한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용역제공, 예약매출 및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사업결합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2) 자기주식

자기지분상품을 채취득하는 경우(이하 "자기주식")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기타자본항목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연결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됩니다.

2)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차감한 금액

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부채에 지급된 이자비용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5)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제거합니다.

(2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시기는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위험(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외화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채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 목적상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주석1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

정치를 수준 1,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26)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에 대한 주요 회계추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

영업권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주석 2. (20)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품의 보증수리 등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부채의 계산은 현재와 미래의 보증의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채무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법인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 유·무형자산의 측정 및 내용연수

사업결합을 통해 유·무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공정가치

의 추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 이외에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

1)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전환일 2010년 1월 1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하였습니다.

3)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하였습니다.

4) 토지에 대해서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인 4,411,286백만원(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1,954,751백만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으며, 관련 이연법인세효과 540,43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중 전환일 이전의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2) 주요한 회계정책 차이

1)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인식하였으나, 제거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금융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습니다.

2) 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과거 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고,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처리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확정급여채무 및 장기종업원급여를 계상하였습니다.

3) 충당부채 평가

연결실체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의 후속 측정 시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행할인율을 적용하여 충당부채를 재측정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당부채 계상시점에 제3자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4)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는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채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은 채무상품의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

하여야 하는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5)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보상점수를 부여한 거래를 충당부채 범위에 포함하여 매출한 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이연하여 수익인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이연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 투자부동산

연결실체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을 과거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과거 회계기준에서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처리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환일 이후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8) 대손충당금

연결실체는 과거회계기준에서는 금융업채권(대출채권, 할부금융자산 및 리스채권 등)에 대한 평가시 중장기 평균예상손실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업채권은 개별적으로 손상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이외의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유사신용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집합적인 발생손실을 검토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9)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일시적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시적 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투자자산의 회수방식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회계기준에서는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재무상태표상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표시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구분	변동내역	법인명
증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됨	(주)현대엔지비,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주), 로템설비북경유한공사, 메인트란스(주), Hyundai Motor Japan R&D Center Inc., Hyundai Capital Europe GmbH, Hyundai Motor Brasil Montadora de Automoveis, Beijing JingxianronghuaMotor sale Co., Ltd., Being Xinhuaqiyuetong Motor Chain Co.,

		Ltd.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청산이 예정되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됨	Hyundai Motor Hungary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활동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수동적 활동으로 제한되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보아 연결대상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됨	오토피아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감소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의결권있는 주식을 30%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력이 50% 이하로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연결대상기업에서 제외됨	기아자동차(주) 및 그 종속기업, 현대하이스코(주) 및 그 종속기업, 현대다이모스(주) 및 그 종속기업, 현대위아(주) 및 그 종속기업, (주)케피코 및 그 종속기업, 현대파워텍(주) 및 그 종속기업, 현대오토에버(주), 현대커머셜(주), 현대엠엔소프트(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Innocean Worldwide Americas, LLC, Hyundai Information Service North America, LLC, Beijing Mobis Transmission Co., Ltd, Hyundai Motor GroupChina. Ltd, 현대위아기차발동기(산동)유한공사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1)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과거회계기준	102,324,934	73,363,274	28,961,660
조정사항: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24,767,776)	(20,210,061)	(4,557,715)
토지 간주원가	2,456,535	-	2,456,535
종업원급여	-	321,935	(321,935)
충당부채	734,022	668,115	65,907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효과	478,709	-	478,709
대손충당금	268,500	-	268,500
이연법인세 조정액	(166,571)	44,659	(211,230)
기타	51,703	46,621	5,082
조정액 합계:	(20,944,878)	(19,128,731)	(1,816,14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81,380,056	54,234,543	27,145,513

2)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기간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순익
과거회계기준	118,077,818	81,342,217	36,735,601	7,982,924	8,482,806
조정사항: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27,185,274)	(20,680,341)	(6,504,933)	(2,221,013)	(2,221,013)
토지 간주원가	2,456,535	-	2,456,535	-	-
종업원급여	(14,371)	453,707	(468,078)	45,892	(118,812)
충당부채	809,831	818,263	(8,432)	(52,638)	(52,638)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효과	642,353	-	642,353	138,355	138,355
대손충당금	230,787	-	230,787	(25,500)	(25,500)
이연법인세 조정액	(256,162)	(248,166)	(7,996)	157,292	157,292
기타	(47,386)	140,478	(187,864)	(24,130)	(137,148)
조정액 합계:	(23,363,687)	(19,516,059)	(3,847,628)	(1,981,742)	(2,259,46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94,714,131	61,826,158	32,887,973	6,001,182	6,223,342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배당금 수취금액 및 법인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요약재무정보(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6기	제45기	제44기	제43기
[유동자산]	21,284,518	19,653,944	17,249,883	14,730,892
현금및현금성자산	642,836	1,395,068	1,510,820	1,772,837
단기금융상품	14,055,305	11,658,545	8,547,166	6,917,813
매출채권	3,177,486	3,982,708	4,469,652	3,591,029
재고자산	2,162,418	1,696,775	1,832,025	1,639,886
기타	1,246,473	920,848	890,220	809,327
[비유동자산]	36,429,659	34,291,985	32,986,127	29,748,309
유형자산	13,983,358	13,306,218	12,524,580	11,909,145
투자부동산	197,930	203,209	208,905	191,872
무형자산	2,208,812	2,036,219	2,074,929	2,145,783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6,744,078	16,365,673	15,495,659	11,877,733
기타	3,295,481	2,380,666	2,682,054	3,623,776
자산총계	57,714,177	53,945,929	50,236,010	44,479,201
[유동부채]	10,423,536	11,153,049	11,919,397	10,710,416
[비유동부채]	5,338,430	5,773,224	5,794,979	5,336,451
부채총계	15,761,966	16,926,273	17,714,376	16,046,867

[자본금]	1,488,993	1,488,993	1,488,993	1,488,993
[자본잉여금]	3,964,962	3,964,962	3,964,962	3,770,003
[기타자본항목]	(1,128,779)	(1,128,779)	(1,128,779)	(918,21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2,399	675,591	758,981	853,446
[이익잉여금]	36,894,636	32,018,889	27,437,477	23,238,106
자본총계	41,952,211	37,019,656	32,521,634	28,432,334
매출액	41,691,171	43,162,401	42,774,077	36,761,115
영업이익	3,721,008	4,305,224	4,698,411	3,408,181
당기순이익	5,181,546	5,279,509	4,751,497	3,482,194
기본주당이익	19,065원	19,426원	17,495원	12,826원
희석주당이익	19,065원	19,426원	17,495원	12,826원

4.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별도 재무제표 기준)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처리방침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기에 새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개정) '재무제표 표시'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개정) '종업원급여'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사외적립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이자수익(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비교 표시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개정 전 기준과 비교하여 전기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법인세비용은 각각 4,746백만원, 3,250백만원 감소 및 1,93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개정) '금융상품:공시'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정보를 비교표시되는 기간에 소급하여 공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제정) '공정가치 측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공정가치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개정) '금융상품: 표시'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제정) '부담금'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

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회사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KRW)입니다.

회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외환손익은 관련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 또는 기타수익·비용으로 분류됩니다.

(5) 금융자산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됩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가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및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손익을 제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해 누적 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회사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차이로 측정하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 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한편,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지만,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통제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고정 및 변동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며, 재고자산 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이동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9)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회사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속원가는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12 - 50
기계장치	6 - 15
차량운반구	6, 15
공구기구금형	6
집기비품	6

한편, 회사는 유형자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5~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발비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이며, 최초 인식 후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개별취득 무형자산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개발비	3
산업재산권	5 - 10
소프트웨어	6
기타무형자산	6 - 40

한편,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은 순현금유입이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가능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지 않습니다.

(13) 유·무형자산의 손상

회사는 유·무형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만약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을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적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한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순이자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사업결합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8) 자기주식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이하 "자기주식")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기타자본항목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회사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됩니다.

2)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차감한 금액

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부채에 지급된 이자비용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5)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제거합니다.

(20)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시기는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회사는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위험(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외화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 목적상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주석1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에 대한 주요 회계추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제품의 보증수리 등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부채의 계산은 현재와 미래의 보증의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채무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

1)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중 일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전환일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환일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아자동차(주) 등의 관계기업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인 3,046,550백만원(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2,395,220백만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4) 토지에 대해서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인 4,411,286백만원(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1,954,751백만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으며, 관련 이연법인세효과 540,43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중 전환일 이전의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2) 주요한 회계정책 차이

1) 금융자산의 양도

회사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인식하였으나, 제거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금융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습니다.

2) 종업원급여

회사는 과거 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고,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처리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확정급여채무 및 장기종업원급여를 계상하였습니다.

3) 충당부채 평가

회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의 후속 측정 시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행할인율을 적용하여 충당부채를 재측정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당부채 계상시점에 제3자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4) 금융보증계약

회사는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은 채무상품의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5)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보상점수를 부여한 거래를 충당부채 범위에 포함하여 매출한 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이연하여 수익인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이연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종속기업 등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과거 회계기준하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상에 원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7) 투자부동산

회사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을 과거 회계기준에서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8) 차입원가

회사는 과거 회계기준에서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처리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는 전환일 이후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이연법인세

회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일시적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시적 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투자자산의 회수방식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회계기준에서는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재무상태표상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표시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1)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과거회계기준	35,446,135	13,417,112	22,029,023
조정사항:			
금융자산의 양도	2,196,441	2,180,342	16,099
토지 간주원가	2,456,535	-	2,456,535
관계기업 간주원가	651,330	-	651,330
종업원급여	-	318,496	(318,496)
총당부채	672,122	682,424	(10,302)
기타	13,512	19,410	(5,898)
이연법인세 조정액	(185,957)	(194,881)	8,924
조정액 합계:	5,803,983	3,005,791	2,798,19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41,250,118	16,422,903	24,827,215

2)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기간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순이익
과거회계기준	41,067,680	13,720,878	27,346,802	5,266,971	5,752,733
조정사항:					
금융자산의 양도	1,532,212	1,527,460	4,752	(11,346)	(11,346)
토지 간주원가	2,456,535	-	2,456,535	-	-
관계기업 간주원가	651,330	-	651,330	-	-
종업원급여	(12,490)	441,977	(454,467)	40,746	(97,094)
총당부채	809,831	892,445	(82,614)	(72,312)	(72,312)
지분법평가	(1,837,984)	-	(1,837,984)	(2,170,626)	(2,037,045)

기타	22,306	25,050	(2,744)	95,956	63,729
이연법인세 조정액	(210,219)	(560,943)	350,724	326,849	326,849
조정액 합계:	3,411,521	2,325,989	1,085,532	(1,790,733)	(1,827,2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44,479,201	16,046,867	28,432,334	3,476,238	3,925,514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배당금 수취금액 및 법인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제46기, 제45기, 제44기 감사인 및 감사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인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2) 감사(검토)의견

구분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감사 (검토) 의견	적정	적정	적정

※ 모든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음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제46기, 제45기, 제44기 감사인 및 감사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인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2) 감사(검토)의견

구분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감사 (검토) 의견	적정	적정	적정

다.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1) 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6기	안진회계법인	분기검토, 반기검토, 결산감사	1,700	18,150
제45기	안진회계법인	분기검토, 반기검토, 결산감사	1,500	14,500
제44기	안진회계법인	분기검토, 반기검토, 결산감사	1,450	14,300

(2) 비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비고
제46기	세무자문	2013.09~2014.02	1,000	
	신규 멤버십 프로그램 벤치마킹	2013.12	44	
	교육과정 개발 자문	2013.03~2014.08	530	
	세무조정 업무	2013.03	18	
	소 계		1,592	
제45기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업무	2012.07~2012.08	30	
	통합COA 추진 자문	2012.01~2012.02	105	
	세무조정 업무	2012.3	18	
	지방세세무자문	2012.12	15	
	소 계		168	
제44기	멤버십 포인트제도 자문	2011.05~2011.09	133	
	해외대리점인수 자문용역	2011.07~2011.12	830	
	통합COA 추진 자문	2011.11~2011.12	45	
	소 계		1,008	

※ 제46기는 용역계약 체결 기준임

라. 특기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감사인은 공시 대상기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예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 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 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 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당사는 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이겨내며 473만대 판매를 달성하여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한국업체를 포함하여 글로벌 22개 브랜드의 각축장으로서 전 세계 선도 메이커가 심혈을 기울이는 시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은 환율과 FTA 효과를 활용한 수입차 업체의 가격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산업 수요도 정체되는 쉽지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유럽 명차 수준의 신형 제네시스와 연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블루멤버스 등 고객 지향형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여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당기말 연결총자산은 전년대비 11조 8,837억원이 증가한 13조 4,215억원, 연결총부채는 3조 2,185억원이 증가한 76조 8,387억원, 연결 자본총계는 8조 6,652억원 증가한 56조 5,82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 매출액은 전년대비 3.4%증가한 87조 3,076억원,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8조 9,9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리더로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과 해외 거점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가.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제46기	제45기	차이
[유동자산]	58,856,105	54,847,586	4,008,519
현금및현금성자산	6,872,430	6,759,338	113,092
단기금융상품	14,875,288	12,384,057	2,491,231

매출채권	3,485,345	3,686,824	(201,479)
재고자산	7,073,116	6,772,864	300,252
기타	5,371,335	4,377,036	994,299
금융업채권	21,178,591	20,867,467	311,124
[비유동자산]	74,565,374	66,690,228	7,875,146
유형자산	21,462,587	20,739,858	722,729
투자부동산	263,984	282,832	(18,848)
무형자산	3,129,090	2,883,218	245,872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4,694,995	13,117,731	1,577,264
기타	4,614,826	3,209,737	1,405,089
금융업채권	19,835,016	18,626,764	1,208,252
운용리스자산	10,564,876	7,830,088	2,734,788
자산총계	133,421,479	121,537,814	11,883,665
[유동부채]	31,919,682	32,835,699	(916,017)
[비유동부채]	44,919,008	40,784,540	4,134,468
부채총계	76,838,690	73,620,239	3,218,451
[자본금]	1,488,993	1,488,993	0
[연결자본잉여금]	4,130,668	4,158,988	(28,320)
[연결자본조정]	(1,128,779)	(1,128,779)	0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4,036)	(473,373)	(360,663)
[연결이익잉여금]	48,274,239	39,993,230	8,281,009
[비지배지분]	4,651,704	3,878,516	773,188
자본총계	56,582,789	47,917,575	8,665,214

당기말 연결총자산은 전년대비 11조 8,837억원이 증가한 133조 4,2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단기금융상품 취득 등으로 단기금융상품이 2조 4,912억원이 증가하였고 관계기업 지분법평가 등으로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가 1조 5,773억원 증가하였으며,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의 금융업채권과 운용리스자산이 각각 1조 5,194억원, 2조 7,3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총부채는 전년대비 3조 2,1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 1조 4,890억원 감소 및 미지급금 1,455억원 증가 등으로 유동부채가 9,160억원 감소하였으며, 사채가 2조 9,521억원, 장기차입금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5,236억원, 9,903억원으로 각각 증가함에 따라 비유동부채가 4조 1,3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연결당기순이익 8조 9,935억원 발생 등으로 8조 6,6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	제46기	제45기	차이
매출액	87,307,636	84,469,721	2,837,915
매출원가	67,859,491	64,967,273	2,892,218
매출총이익	19,448,145	19,502,448	(54,303)
영업이익	8,315,497	8,440,601	(125,1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96,706	11,610,442	86,264
연결당기순이익	8,993,497	9,061,132	(67,63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541,834	8,566,568	(24,734)
비지배지분	451,663	494,564	(42,901)

당사의 2013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대비 3.4%증가한 87조 3,07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원화 강세로 달러화 평균환율이 2.9% 하락하는 등 매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브라질 공장가동율의 확대, 터키공장 증설효과 및 SUV 판매 호조 지속에 따른 믹스 개선 등으로 매출액은 2조 8,3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원가의 경우 총매출원가율은 전년대비 0.8% 포인트 증가한 77.7%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율은 전년대비 0.3% 포인트 감소한 12.7%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5% 감소한 8조 3,15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율은 9.5%로 전년대비 0.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0.7%증가한 11조 6,967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등으로 법인세비용이 증가하여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8조 9,9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 기타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USD, EUR, JPY 등 입니다. 당사는 환위험관리를 위하여 외화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환리스크를 제거하고, 환율전망에 따라 외화자금 수급의 결제기일을 조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통화선도,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의 외환파생상품을 헷지수단으로 이용하되, 매매목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 지출

당사는 당기말 현재 전기말 대비 연결기준으로 약 2.6조원 증가한 21조 7,477억원의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유동자금은 i) 현금 및 현금성자산, ii)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이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전기말 대비 1,131억원 증가한 6조 8,724억원이며, 단기금융상품은 전기말 대비 2조 4,912억원 증가한 14조 8,753억원입니다. 당기말 연결기준 차입금은 전기말 대비 약 2.8조원 증가한 47조 9,669억원이며, 이중 일반대출 등 단기차입(유동성장기부채 포함)은 7,161억원 감소한 13조 9,781억원, 사채 등 장기차입은 3조 4,757억원 증가한 33조 9,888억원입니다. 당사의 당기중 연결기준 주요 자금지출은 배당금 6,325억원, 장기차입금 및 사채상환 16조 6,697억원 등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21.7조원 수준의 유동자금은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 유동자금 유지 및 유동자금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기간의 합리적인 조절 등을 통해 유동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부외 거래

당사의 부외부채는 본문 『X.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우발채무 등』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의 변경사항은 본문 『III.재무에 관한 사항 2.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7. 법규상 규제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법규상 규제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은 본문 『II.사업의 내용 11.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다.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라. 회사 환경 규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8.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회사의 영업활동은 국내 및 다수의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하고있는 바, 달러화, 유로화 및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율변동 위험과 관련하여, 미래 외화자금흐름의 노출 부분과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노출 부분을 합한 전체 환 Position을 위험관리대상으로 합니다.

환위험관리의 목적은 전체 환 Position의 원화 가치 변동성을 축소시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노출위험의 측정을 위하여 예상되는 전체 환 Position 원화 가치 변동을 통화별 상관관계, 변동성 및 향후 전망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적 환관리전략으로 내부적 관리기법과 외부적 관리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적 관리기법으로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 흐름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Matching이나, 환율전망에 따라 외화자금의 결제기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인, Leading이나 Lagging을 사용하고 있고, 외부적 관리기법으로 통화선물, 통화옵션 및 통화스왑거래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영업과 관련없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는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통화 변동성, 통화간 상관관계 및 예상 외화현금흐름을 감안하여 거래통화, 금액, 종류 및 만기를 결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매매목적의 거래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환관리전략은 신흥국을 포함한 해외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영업활동에서의 유입, 유출 통화 다변화를 모색하고 그로 인해 환위험으로부터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몽구, 오세빈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주요의결사항 등

구 분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 외 이 사				
				강일형 (출석률:100%)	임영철 (출석률:100%)	남성일 (출석률:100%)	오세빈 (출석률:100%)	이유재 (출석률:100%)
1차 정기	2013.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4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의 건 - 계열회사등과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현대모비스, 현대엘코,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이노션, 에이치엘그린파워, 현대아이에이치엘)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시	2013.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계열회사의 계약 이행 보증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시	2013.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사 겸임 승인의 건 (정의선 이사 :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엔지비, 김충호 이사 : 현대파워텍) - 지배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정기	2013.0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차 정기	2013.0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차 정기	2013.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윤리위원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사외이사 오세빈, 임영철, 이유재와 사내이사 김충호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목적으로하며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② 공정거래자

윤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③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④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의 사항을 대상으로 심의 및 의결 합니다.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중 개최된 윤리위원회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 외 이 사		
				임영철 (출석률:100%)	오세빈 (출석률:100%)	이유재 (출석률:100%)
1차 정기	2013.1.24	- 2013년 사회공헌 관련 주요 계획 승인의 건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차 정기	2013.04.25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차 정기	2013.07.25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차 정기	2013.10.24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라. 이사의 독립성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의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5명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5명으로 사외이사 오세빈, 사외이사 강일형, 사외이사 남성일, 사내이사 정몽구, 사내이사 김충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 총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국내외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사외이사가 당사 사업 등을 이해하고 사외이사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등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추 천 인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비 고
정몽구	이사회	업무총괄	-	재선임('14.3.14)
정의선	이사회	업무총괄	-	-
김충호	이사회	업무총괄	-	-
윤갑한	이사회	업무총괄	-	-
강일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 등	-	-
오세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법무 등	-	재선임('14.3.14)
임영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법무 등	-	-
남성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전략 등	-	-

이유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마케팅 등	-	-
-----	-------------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감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주 요 경 력	사외이사 여부
강일형	·학력: 연세대 행정학 석사 ·경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세무법인 다른 대표(현)	사외이사
오세빈	·학력: 서울대 법학과 ·경력: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현)	사외이사
임영철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경력: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기획단 단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국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현)	사외이사
남성일	·학력: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경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강대 교수(현)	사외이사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계/재무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과 당사 등과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구 분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1차 정기	2013.1.24	-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4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2012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보고> - 2012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가결
임시	2013.2.21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13.3.15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체결	-

2차 정기	2013.04.25	<보고> - 2013년 1/4분기 경영실적	-
3차 정기	2013.07.25	<보고> - 2013년 상반기 경영실적	-
4차 정기	2013.10.24	<보고> - 2013년 3/4분기 누적 경영실적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명칭 : 현대자동차그룹 (2013. 12. 31 현재, 국내)

상장사 (11개사)	비상장사 (46개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로템, 현대비앤지스틸, 에이치엠씨투자증권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엠코, 현대다이모스, 현대케피코, 이노션, 현대에너지, 현대스틸산업, 현대오토에버, 현대도시개발, 그린에어, 삼우, 해 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위스코, 해비치컨트리클럽, 현대메티아, 현대아이 에이치엘, 부산정관에너지, 현대오토론, 현대엠시트, 현대파텍스, 현대엠엔 소프트, 에이치엘그린파워, 송도랜드마크시티, 임시연구소, 위아마그나파워 트레인, 현대서산농장,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현대머티리얼, 하떠이알 앤씨, 현대씨엔아이, 서림개발, 서림환경기술, 현대엔지비, 메인트란스, 종로 학평, 율촌제2산업단지개발, 기아타이거즈,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부산파 이낸스센터에이엠씨, 현대건설인재개발원, 현대위아아이에취아이터보, 현대 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 계통도

① 국내법인

(2013. 12. 31 현재)

계업사	1 편 대 자 등 차	2 기 아 자 등 차	3 편 대 제 철	4 편 대 모 비 스	5 편 대 건 설	6 편 대 하 이 스 코	7 편 대 위 아	8 편 대 글 로 비 스	9 편 대 로 템	10 편 대 파 워 템	11 편 대 엔 지 니 어 링	12 편 대 엘 코	13 편 대 다 이 모 스	14 편 대 케 퍼 코
주요주주사														
편 대 자 등 차		33.88	7.87		20.95	29.37	26.79	4.88	43.36	37.58			47.27	100
기 아 자 등 차			19.78	16.88	5.24	15.65	14.20			37.58		19.99	45.37	
편 대 모 비 스	20.78				8.73					24.85		19.99		
편 대 제 철				5.66										
편 대 하 이 스 코			2.29											
편 대 위 아													5.12	
편 대 글 로 비 스				0.67								24.96		
편 대 로 템														
편 대 엘 코														
편 대 다 이 모 스														
편 대 메 티 아														
편 대 커 머 셸														
서 린 개 발														
편 대 건 설											72.55			
편대엔지니어링														
편대스틸산업														
합 계	20.78	33.88	29.94	23.20	34.91	45.02	40.99	4.88	43.36	100	72.55	64.94	97.76	100

계열사 주요주주사	15 이 노 선	16 원 대 비 엔 지 스 틸	17 원 대 에 너 지	18 원 대 스 틸 산	19 원 대 오 보 에 바	20 원 대 도 시 개 발	21 그 린 에 어	22 산 우	23 해 비 치 호 탈 앤 드 리 조 트	24 원 대 워 스 코	25 해 비 치 컨 트 리 블 라	26 원 대 메 티 아	27 원 대 아 이 에 이 치 엘	28 부 산 전 관 에 너 지
원 대 자 동 차					29.90						30.00			
기 아 자 동 차					20.00				40.00		15.00			
원 대 모 비 스					20.00				10.00		15.00		90.00	
원 대 제 철		41.12												
원 대 하 이 스 코														
원 대 워 아									17.00			50.94		
원 대 글 로 비 스									5.00					
원 대 브 텔							51.00							
원 대 엘 코											40.00			
원 대 다 이 모 스												48.53		
원 대 메 티 아										38.63				
원 대 커 머 셸														
서 린 개 발														
원 대 건 설			49.00	100		100								56.76
원대엔지니어링														
원대스틸산업														
합 계		41.12	49.00	100	69.90	100	51.00		72.00	38.63	100	99.46	90.00	56.76

계열사 주요주주사	29 편 대 모 트 비 스	30 편 대 엘 시 트	31 편 대 파 텍 스	32 편 대 엘 엔 스 프 트	33 에 이 치 엘 그 린 파 워 크	34 송 도 랜 드 마 크 시 티	35 입 시 연 구 사	36 워 아 마 그 나 파 워 트 레 인	37 편 대 서 산 화 장	38 편 대 출 발 설 계 건 축 사 사 무 소	39 편 대 머 티 리 어	40 하 퍼 이 알 앤 씨	41 편 대 씨 엔 아 이	42 서 린 개 발
편 대 자 등 차	60.00		56.00	31.84										
기 아 자 등 차	20.00		31.00											
편 대 모 비 스	20.00		13.00	25.67	51.00									
편 대 제 철														
편 대 하 이 스 코														
편 대 워 아								50.00						
편 대 글 로 비 스														
편 대 보 웰														
편 대 엘 코														
편 대 다 이 모 스		99.81												
편 대 메 티 아														
편 대 커 마 설														
서 린 개 발														
편 대 건 설						41.38			84.67	84.79		100	70.00	
편 대 엔 지 니 어 링													20.00	
편 대 스 톱 산 업													10.00	
합 계	100	99.81	100	57.50	51.00	41.38		50.00	84.67	84.79		100	100	

계열사 주요주주사	43 서원환 건설	44 현대엔 지비	45 메인 트랜스	46 현대 건설	47 물 문제 2 산업단 지개발	48 기 아 타 이 거 즈	49 전 북 현 대 모 터 시 에 프 씨	50 부 산 파 이 낸 스 선 터 에 이 엔 씨	51 현 대 건 설 인 재 개 발 원	52 현 대 위 아 아 이 에 원 아 이 터 보	53 현 대 캐 피 탈	54 현 대 카 드	55 현 대 커 머 셜	56 에 이 치 엔 씨 투 자 자 문 건	57 현 대 라 이 프 상 업 보 통
현 대 자 동 차		53.66				100					56.47	36.96	50.00	26.27	
기 아 자 동 차		24.39				100						11.48		3.68	
현 대 모 비 스														15.76	58.61
현 대 제 철															
현 대 하 이 스 코															
현 대 위 아										51.00					
현 대 글 로 비 스															
현 대 브 랜 드			80.00												
현 대 업 코								6.15						3.68	
현 대 다 이 모 스															
현 대 메 티 아															
현 대 커 머 셸												5.54			39.44
서 원 개 발	75.00														
현 대 건 설					48.00			18.48	100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합 계	75.00	78.05	80.00		48.00	100	100	24.63	100	51.00	56.47	53.98	50.00	49.38	98.05

② 해외법인

(2013. 12. 31 현재)

피	H	H	H	H	H	H	H	H	H	H	B	C	C	H	H	B	H	H	H	H	H	H	H	H	H	H	H	H	H	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자 출자	M A	M I	T	M P	M J	M E	A T C I	M J R & D	M C A	A O S	H M C	H M C	M E s	M H	M N	J M S S	M G C	M E T C	M U K	M M C	M C I S	M M R	M C Z	M C I	M E S	M B	M D	M F	M M
현대 자동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9.3	50.0	50.0	59.6	100	100	100	50.0	100	100	100	98.6	70.0	100	100	100	100	100	100	99.9
기아 자동차													30.3				30.0					30.0							
현대 모비스													10.1				20.0												

※ CME는 China Millennium Corporation I, II, III Ltd.로 구성됨.

※ 상기 자료는 현대자동차가 30%이상 출자하고 최대주주인(공동 최대주주 포함) 법인 기준임.

(3) 당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로는 당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 회사인 현대모비스이며, 공정거래법에 의거 상호 출자의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2013. 12. 31 현재)

성 명	겸 임 현 황	
	직 위	회사명
정몽구	대표이사(상근)	현대모비스
	이사(상근)	현대제철
	이사(비상근)	현대파워텍
	이사(비상근)	현대엔지비
	이사(비상근)	현대건설
정의선	이사(비상근)	기아자동차
	이사(상근)	현대모비스
	이사(상근)	현대제철
	이사(비상근)	현대오토에버
	이사(비상근)	현대엔지비
김충호	이사(비상근)	현대파워텍
	대표이사(비상근)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 2014년 3월 14일 정몽구 대표이사의 현대제철의 이사직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나. 타법인출자현황

(1) 매도가능금융자산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 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비고
				수량	지분	장부	취득(처분)		평가	수량	지분	장부	총자산	당기	
							수량	금액							

					율	가액			손익		율	가액		순손익	
현대제철	'13.12	경영참여	791,681	-	-	-	9,173,595	791,681	791,681	9,173,595	7.87	791,681	28,932,059	681,999	
현대중공업	'00.12	단순투자	56,924	2,190,000	2.88	529,980			32,850	2,190,000	2.88	562,830	32,131,726	451,668	
현대글로비스	'10.03	경영참여	210,688	1,830,939	4.88	405,553			17,394	1,830,939	4.88	422,947	4,422,278	347,277	
한국항공우주산업	'00.02	경영참여	151,086	9,747,511	10	251,973			30,705	9,747,511	10	282,678	1,976,019	89,619	
현대오일뱅크	'06.02	단순투자	53,734	10,653,193	4.35	137,490			8,033	10,653,193	4.35	145,523	8,597,935	152,358	
현대그린푸드	'07.02	단순투자	15,005	2,307,700	2.36	39,231			-462	2,307,700	2.36	38,769	1,590,520	50,790	
두산캐피탈	'99.07	단순투자	10,000	2,000,000	7.14	13,508			-3,160	2,000,000	5.44	10,348	1,382,262	-28,783	
현대산업개발	'05.05	단순투자	9,025	450,000	0.6	9,743			697	450,000	0.6	10,440	5,376,148	-210,732	
현대상선	'99.12	단순투자	9,161	693,007	0.41	16,355			-8,455	693,007	0.41	7,900	6,854,879	-585,881	
케이티	'09.06	단순투자	8,655	240,091	0.09	8,523			-948	240,091	0.09	7,575	25,693,894	-392,311	
유비벨룩스	'06.12	단순투자	1,710	311,897	5.19	7,860			-3,275	311,897	5.19	4,585	120,184	-2,004	
현대아산	'99.02	단순투자	22,500	450,000	1.88	2,117			-	450,000	1.88	2,117	285,532	-13,005	
NESSCAP Inc.	'06.01	단순투자	USD 2,031,694	10,130,775	4.53	1,199			-95	10,130,775	4.53	1,104	31,367	-3,309	
기타			44,905		-	37,799			2,122		-	39,921			
합 계						1,461,331			867,087			2,328,418			

※ 일부 출자 법인의 최초취득일자 및 최초취득금액은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작성됨.

2) 종속기업 투자내역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비고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HMA	'85.4	경영참여	USD 6,000,000		100.00	2,374,046					100.00	2,374,046	6,382,182	490,250	
HMI	'96.06	경영참여	USD 1,000,000	8,125,411	100.00	754,436				8,125,411	100.00	754,436	1,904,660	220,593	
HMMC	'06.7	경영참여	EUR 40,000,000		100.00	573,875					100.00	573,875	3,050,239	374,303	
HMB	'09.12	경영참여	USD 116,000		100.00	469,269					100.00	469,269	1,035,993	184,560	
HMMR	'08.3	경영참여	USD 430		70.00	287,337					70.00	287,337	1,285,326	209,710	
HAOSVT	'94.12	경영참여	TRL 1,750,000	560,050,302	89.29	203,813				560,050,302	89.29	203,813	903,987	20,049	
HT	'89.11	경영참여	USD 5,000,000	1,380,000	100.00	144,440				1,380,000	100.00	144,440	513,928	37,557	
HMF	'12.1	경영참여	EUR 76,202,841		100.00	143,558					100.00	143,558	294,752	-42,669	
HMD	'91.1	경영참여	DEM 1,000,000		100.00	140,922					100.00	140,922	549,672	2,150	
HMES	'09.11	경영참여	EUR 50,000,000		100.00	86,589					100.00	86,589	224,683	-10,889	
HMCi	'08.11	경영참여	EUR 26,642,123		100.00	73,890					100.00	73,890	270,048	-2,039	
HMETC	'05.1	경영참여	EUR 5,000,000		100.00	72,447					100.00	72,447	121,009	-2,210	
HMCIS B.V	'06.12	경영참여	EUR 3,200,000		98.60	68,041					98.60	68,041	923,966	96,107	
CMEs	'04.12	경영참여	USD 50,854,138		59.60	65,067					59.60	65,067	91,922	8,588	
HMCA	'03.09	경영참여	AUD 15,000,000		100.00	59,552					100.00	59,552	687,001	40,010	
HMP	'93.10	경영참여	USD 9,993,000	172,862	100.00	53,052				172,862	100.00	53,052	82,804	-1,068	
HME	'00.2	경영참여	EUR 5,000,000		100.00	41,631					100.00	41,631	1,130,991	4,164	
HATCI	'86.5	경영참여	USD 3,000,000	1,000	100.00	37,782				1,000	100.00	37,782	64,066	7,037	
HMCZ	'08.5	경영참여	EUR 28,800,000		100.00	27,051					100.00	27,051	125,775	2,089	

HMUK	'05.7	경영참여	GBP 20,000,000	25,600,000	100.00	13,462				25,600,000	100.00	13,462	308,009	10,479	
BJMSS	'94.05	경영참여	USD 2,546,400		100.00	8,150					100.00	8,150	35,726	1,536	
HMN	'04.12	경영참여	EUR 1,500,000		100.00	6,224					100.00	6,224	66,476	-19,514	
HMM	'13.10	경영참여	USD 5,000,000					5,308	5,308		100.00	5,308	5,128	-1,399	최초출자
HMJ R&D	'95.10	경영참여	JPY 900,000,000	4,000	100.00	2,945				4,000	100.00	2,945	2,938	82	
HMH	'04.12	경영참여	EUR 512,500		100.00	0					100.00	0	0	0	청산진행
HMJ	'00.01	경영참여	JPY 1,000,000,000	204,800	100.00	0				204,800	100.00	0	6,318	-343	
현대캐피탈	'93.12	경영참여	8,400	56,083,743	56.47	766,282				56,083,743	56.47	766,282	22,389,046	391,427	
현대카드	'03.06	경영참여	43,485	50,572,187	31.52	471,095	8,729,750	175,275	175,275	59,301,937	36.96	646,370	11,520,878	163,210	지분매입
현대로템	'99.07	경영참여	80,000	36,852,432	57.64	391,906				36,852,432	57.64	391,906	4,274,897	126,076	
현대캐피코	'00.01	경영참여	3,300	16,670,000	100.00	285,078				16,670,000	100.00	285,078	894,606	98,432	
현대오토론	'05.10	경영참여	250	10,397,700	60.00	60,300				10,397,700	60.00	60,300	190,240	3,306	
현대파텍스	'05.11	경영참여	22,400	4,480,000	56	25,845				4,480,000	56	25,845	135,107	2,295	
전북현대모터스애프터	'09.01	경영참여	1,000	200,000	100	1,000				200,000	100	1,000	1,790	-1	
현대엔지비	'00.10	경영참여	571	110,000	53.66	571				110,000	53.66	571	13,846	671	
맥쿼리라이언 사모증 권투자신탁제45호	'13.06	투자	100,000	-	-	-		100,000	100,000	-	100.00	100,000	102,266	1,495	최초출자
신한BNPP 법인용사모 증권투자신탁 제27호	'13.06	투자	100,000	-	-	-		100,000	100,000	-	100.00	100,000	102,923	2,716	최초출자
미래에셋트라이엄프 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3호	'13.06	투자	100,000	-	-	-		100,000	100,000	-	100.00	100,000	101,503	1,498	최초출자
IBK파노라마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50호	'13.06	투자	50,000	-	-	-		50,000	50,000	-	100.00	50,000	50,818	812	최초출자
우리프런티어 사모증 권투자신탁 제5호	'13.06	투자	50,000	-	-	-		50,000	50,000	-	100.00	50,000	50,865	849	최초출자
KTBS에이프 사모증권투 자신탁 제78호	'13.06	투자	50,000	-	-	-		50,000	50,000	-	100.00	50,000	50,647	640	최초출자
합 계						7,709,656			630,583			8,340,239			

※ 일부 출자 법인의 최초취득일자 및 최초취득금액은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작성됨.

※ 상기 종속기업의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함.

※ 일부 종속회사를 보유한 국내 및 해외법인의 재무현황은 연결기준으로 작성됨.

(3)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 투자내역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 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비고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BHMC	'02.09	경영참여	USD 108,695,000		50.00	1,086,261				-	50.00	1,086,261	9,304,715	2,582,807	
CHMC	'12.10	경영참여	USD 21,462,639	-	50.00	77,614		56,592	56,592	-	50.00	134,206	694,310	1,273	증자
WAE	'06.11	경영참여	USD 11,000,000	-	22.0	69,355				-	22.0	69,355	1,438,205	125,285	
HMGC	'04.10	경영참여	USD 2,250,000	-	50.00	47,072		17,432	17,432	-	50.00	64,504	472,048	85,394	증자
BDT	'03.07	경영참여	USD 11,350,000	-	24.08	47,800				-	24.08	47,800	91,922	8,588	
PTS	'10.11	경영참여	USD 9,600,000	-	30.00	34,671				-	30.00	34,671	713,212	54,362	
BHAF	'12.07	경영참여	USD 11,118,523	-	14.00	12,488				-	14.00	12,488	873,515	152	

현대건설	'11.4	경영참여	2,984,938	23,327,400	20.95	2,984,938				23,327,400	20.95	2,984,938	14,733,212	569,644	
기아자동차	'99.03	경영참여	504,900	137,318,251	33.88	2,896,832				137,318,251	33.88	2,896,832	36,182,040	3,817,059	
현대하이스코	'99.03	경영참여	143,744	23,554,188	29.37	455,837	16,855,651	-326,202	-	6,698,537	29.37	129,635	2,258,186	1,608,765	분할
현대파워텍	'01.03	경영참여	40,000	34,487,891	37.58	195,672				34,487,891	37.58	195,672	2082443	97851	
현대위아	'04.04	경영참여	347	6,893,596	26.79	193,871				6,893,596	26.79	193,871	4,860,455	425,007	
에이치엠씨투자증권	'08.04	경영참여	104,484	7,705,980	26.27	190,171				7,705,980	26.27	190,171	4,552,120	-7,230	
현대다이모스	'00.12	경영참여	13,216	14,184,824	47.27	139,415				14,184,824	47.27	139,415	1,643,315	84,835	
유코카캐리어스	'02.12	경영참여	29,347	2,640,000	12.00	62,758				2,640,000	12.00	62,758	2,547,962	255,829	
현대커머셜	'07.03	경영참여	50,000	10,000,000	50.00	54,258				10,000,000	50.00	54,258	4,154,667	36,617	
현대오토에버	'00.04	경영참여	1,250	598,000	29.90	32,030				598,000	29.90	32,030	483,307	45,636	
한국경제신문	'97.02	경영참여	3,316	3,842,406	20.55	28,482				3,842,406	20.55	28,482	221,876	12,938	
일진베어링	'99.01	경영참여	300	225,400	20	18,201				225,400	20	18,201	177,924	12,405	
대성정기	'87.11	경영참여	400	40,000	20	13,193				40,000	20	13,193	95,627	3,277	
현대엠앤소프트	'04.09	경영참여	778	1,319,577	31.84	13,098				1,319,577	31.84	13,098	126,038	16,333	
클래어픽셀	'11.09	경영참여	2,000	66,666	19.22	2,000				66,666	19.22	2,000	8,795	-149	
해비치컨트리클럽	'08.06	경영참여	4,500	900,000	30	0				900,000	30	0	283,944	756	
합 계						8,656,017			-			8,403,839			
									252,178						

※ 일부 출자 법인의 최초취득일자 및 최초취득금액은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작성됨.

※ 상기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의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함.

※ 일부 종속회사를 보유한 국내 및 해외법인의 재무현황은 연결기준으로 작성됨.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현대모비스	최대주주	보통주	45,782,023	20.78	45,782,023	20.78	-
정몽구	계열사임원	보통주	11,395,859	5.17	11,395,859	5.17	-
정성이	친인척	보통주	1,445	0.00	1,445	0.00	-
정성이	친인척	우선주	398	0.00	398	0.00	-
정명이	친인척	보통주	1,445	0.00	1,445	0.00	-
정명이	친인척	우선주	398	0.00	398	0.00	-
정윤이	친인척	보통주	3,125	0.00	3,125	0.00	-
정윤이	친인척	우선주	298	0.00	298	0.00	-
신성재	친인척	보통주	7,000	0.00	7,000	0.00	-
정의선	계열사임원	보통주	6,445	0.00	6,445	0.00	-
정의선	계열사임원	우선주	298	0.00	298	0.00	-
김충호	계열사임원	보통주	3,000	0.00	3,000	0.00	-
임영철	계열사임원	보통주	565	0.00	565	0.00	-
계		보통주	57,200,907	25.97	57,200,907	25.97	-
		우선주	1,392	0.00	1,392	0.00	-

2. 최대주주 개요 등

당사의 최대주주인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의 최대주주는 기아자동차(16.88%)이며,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임원 현황

구 분	성 명	약 력	담당업무
사내이사	정몽구	- 한양대 공업경영학 학사 - 고려대 명예경영학 박사 - 기아자동차 회장(1999.7~현재) - 현대자동차 회장(1999.3~현재)	대표이사 회장
	정의선	- 고려대 경영학 학사 - 美 샌프란시스코대 경영학 석사	기획/정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본부 이사 - 전략기획사업부 사장 - 기아자동차 사장(2005.3~2009.8) 	
	최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 경영지원 담당중역 	재경본부장
사외이사	이태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법학 학사 -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現) 법무법인원 대표변호사 	사외이사
	박찬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지대 경영학 학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 - 국세청 조사국 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 現) 피앤비세무컨설팅 대표 	사외이사
	이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국제경영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4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現)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사외이사
	이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미국 미시간대학원 기계공학 박사 - 한국기계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 現)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사외이사
	김기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한국중소기업학회 편집위원장 - MIT 및 하버드 대학교 방문교수 -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 現) 카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사외이사

※ 2014년 3월 14일 정명철사장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로 신규선임되어,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 및 5명의 사외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3년 주요 재무현황(별도)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자 산	19,889,067	-
부 채	4,572,806	-
자 본	15,316,261	-
매출액	17,512,013	-
영업이익	2,269,798	-
당기순이익	2,079,630	-

3. 주식의 분포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현대모비스	45,782,023	20.78%	-
	국민연금기금	16,682,512	7.57%	-
	정몽구	11,395,859	5.17%	-
우리사주조합		-	-	-

※상기 주식수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 및 의결권 행사 주식수 등의 기준임.

4. 주식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천주)

종 류			13년 7월	13년 8월	13년 9월	13년 10월	13년 11월	13년 12월
보통주	주가	최 고	237,500	249,000	256,500	266,000	258,500	249,500
		최 저	209,000	221,000	242,500	247,500	243,000	220,500
		평 균	220,304	231,786	250,361	258,310	251,286	230,325
	거래량	최 고	1,531	759	719	669	520	1,243
		최 저	303	291	260	235	211	210
		월 간	12,396	10,124	8,370	8,894	7,338	12,613
우선주	주가	최 고	100,500	108,000	112,000	119,500	130,500	126,000
		최 저	88,500	100,500	103,500	106,500	118,000	117,000
		평 균	93,161	103,190	107,028	112,452	123,690	121,275
	거래량	최 고	117	113	128	117	182	112
		최 저	12	17	27	24	16	16
		월 간	879	1,099	1,051	1,180	1,195	1,107
2우선주	주가	최 고	107,000	115,000	118,000	121,500	136,000	130,500
		최 저	92,700	106,000	109,500	112,500	121,500	122,500
		평 균	98,139	110,167	113,611	117,286	126,952	126,500
	거래량	최 고	507	162	228	124	168	160
		최 저	44	32	46	35	34	24
		월 간	2,350	1,899	1,920	1,581	2,111	1,336
3우선주	주가	최 고	95,800	103,000	105,000	115,000	124,000	118,500
		최 저	83,700	95,400	96,700	101,500	111,500	110,500
		평 균	88,461	98,762	100,572	107,929	116,810	114,075
	거래량	최 고	12	15	5	8	13	5
		최 저	0.2	0.5	0.5	920	570	204
		월 간	80	79	41	70	63	40

나. 해외증권시장

종 류			13년 7월	13년 8월	13년 9월	13년 10월	13년 11월	13년 12월
보통주	USD	최 고	106.62	112.16	119.79	124.88	122.42	118.00
		최 저	92.86	99.23	110.44	115.22	113.75	103.99
	원	최 고	120,185	125,280	130,254	133,222	130,110	124,687
		최 저	104,675	110,838	120,087	122,917	120,896	109,883
우선주	USD	최 고	44.74	48.41	52.08	56.31	61.80	59.85
		최 저	38.62	44.95	47.79	49.58	55.51	55.17
	원	최 고	50,432	54,073	56,629	60,072	65,682	63,242
		최 저	43,534	50,208	51,964	52,892	58,997	58,296
2우선주	USD	최 고	48.03	51.63	54.87	57.28	64.41	62.15
		최 저	40.62	47.17	50.32	52.37	57.15	57.76
	원	최 고	54,141	57,670	59,663	61,106	68,456	65,672
		최 저	45,788	52,688	54,715	55,868	60,740	61,033

※ 상기 금액은 1GDR 기준임(1원주 = 2GDR)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9명, 미등기임원 257명으로 총 266 명이
며, 이중 비상근 임원은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 5명 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기임원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정동구	남	1938년 03월	회장	등기임원	상근	업무총괄	학력: 한양대학교 경력: 한국표준협회 회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	11,395,859	-	2014.3.14 ~ 2017.3.13	2017년 03월 13일
정의선	남	1970년 10월	부회장	등기임원	상근	업무총괄	학력: 샌프란시스코대 석사 경력: 기아자동차 사장	6,445	298	2010.3.12 ~ 2016.3.11	2016년 03월 11일
김충호	남	1951년 10월	사장	등기임원	상근	업무총괄	학력: 중앙대학교 경력: 현대자동차 부사장	3,000	-	2012.3.16 ~ 2016.3.11	2016년 03월 11일
윤갑한	남	1958년 09월	사장	등기임원	상근	업무총괄	학력: 계명대학교 경력: 현대자동차 부사장	-	-	2012.3.16 ~ 2015.3.15	2015년 03월 15일
강일형	남	1949년 09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재무 등	학력: 연세대 행정학 석사 경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법무법인 대평양 고문 세무법인 다은 대표(현)	-	-	2012.3.16 ~ 2015.3.15	2015년 03월 15일
오세빈	남	1950년 03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법무 등	학력: 서울대 법학 석사 경력: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현)	-	-	2014.3.14 ~ 2017.3.13	2017년 03월 13일
임영철	남	1957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법무 등	학력: 서울대 법학과 석사 경력: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공정위 송무기획단 단장 공정위 정책국 국장 법무법인 세종변호사(현)	565	-	2012.3.16 ~ 2015.3.15	2015년 03월 15일
남성일	남	1954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전략 등	학력: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경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강대 교수(현)	-	-	2010.3.12 ~ 2016.3.11	2016년 03월 11일
이유재	남	1960년 07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마케팅 등	학력: 스탠포드대 경영학 박사 경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현)	-	-	2011.3.11 ~ 2016.3.11	2016년 03월 11일

※ 상기의 재직기간 및 임기 만료일은 등기임원 최근 선임일 및 임기 기준임.

※ 상기의 보유주식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임.

※ 등기임원 겸직 현황(2013. 12. 31 현재)

성 명	겸 임 현 황	
	직 위	회사명
정몽구	대표이사(상근)	현대모비스
	이사(상근)	현대제철
	이사(비상근)	현대파워텍
	이사(비상근)	현대엔지비
	이사(비상근)	현대건설
정의선	이사(비상근)	기아자동차
	이사(상근)	현대모비스
	이사(상근)	현대제철
	이사(비상근)	현대오트오버
	이사(비상근)	현대엔지비
김충호	이사(비상근)	현대파워텍
	대표이사(비상근)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이유재	이사(비상근)	KB국민카드

※ 2014년 3월 14일 정몽구 대표이사의 현대제철 이사직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 미등기임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담당업무(수정)	주요경력	주식수(주)		비고
					보통주	우선주	
설영홍	1945-08	부회장	중국사업총괄	동국대(석), 중국사업담당	50,430	96	
최한영	1952-12	부회장	상용사업본부 담당부회장	한양대, 상용사업본부 담당사장	-	-	
신종운	1952-10	부회장	생산개발담당부회장	한국항공대, 품질총괄본부장	-	-	
김용환	1956-01	부회장	전략기획담당부회장	고려대(석), 경영기획담당부회장	1,074	-	
양동철	1954-08	부회장	연구개발본부 담당부회장	UC대(박), 연구개발총괄본부장	970	-	
윤여철	1952-06	부회장	노무총괄담당/울산·아산공장담당부회장	연세대, 노무총괄담당	500	-	
정진행	1955-10	사장	전략기획담당	서강대, 기아자동차(주) 전략기획담당	6,333	-	
김해진	1957-10	사장	연구개발본부장	서울대(석), 파워트레인담당	6,000	-	
최성기	1950-12	부사장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고려대, 기아자동차(주) 중국사업본부장	-	-	
김병준	1957-03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창원기능대, 총무실장	3	-	
담도권	1959-11	부사장	현대차그룹(중국)유한공사 총경리	고려대, 북경사무소장	2,200	-	
이병호	1956-06	부사장	HMA (업무총괄)	동국대, 해외마케팅사업부장	-	-	
김원일	1959-08	부사장	상품전략본부장	연세대, 상품기획사업부장	-	-	
이원희	1960-02	부사장	재경본부장	웨스턴일리노이대(석), HMA (재경)	4	9,302	
김태운	1952-10	부사장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생산)	울산대, 해외기술기획팀장	-	-	
맹종호	1958-01	부사장	생산개발본부장	인하대, 선행생기센터장	-	-	
오석근	1961-07	부사장	현대디자인센터장	서울대, 현대해외디자인담당	-	-	
임영득	1955-06	부사장	해외공장지원실장	울산대(석), 현대파워텍(주) 대표이사	-	-	
김정훈	1960-01	부사장	구매본부장	영남대, 구매관리사업부장	-	-	
천귀일	1956-09	부사장	HMM 법인장	한양대, HMMR 법인장	-	-	
신명기	1957-09	부사장	HMMR 법인장	부산대, 현대품질사업부장	-	264	
한성권	1961-01	부사장	인사실장 / 인재개발원장[겸직]	조지워싱턴대(석), 인사지원담당	30	-	

곽우영	1956-09	부사장	차량IT서비스사업부장 / 차량IT개발센터장	고려대(박), 차량IT기획실장	-	-	
임탁욱	1956-09	부사장	해외영업본부장	홍익대, 러시아판매법인장	-	-	
박정국	1957-03	부사장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서울대(석), 시험담당	-	-	
김걸	1965-04	부사장	기획조정1실장	고려대, 글로벌전략실장	-	-	
박홍재	1962-01	부사장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	런던대(박), 경제분석실장	-	-	
황용서	1956-07	부사장	상용차개발센터장	아주대, 상용제품개발실장	-	-	
박정길	1958-08	부사장	설계담당	조선대, 바디기술센터장	-	-	
여수동	1961-09	부사장	기획조정2실장	영남대, 경영지원실장	-	-	
원종훈	1961-05	부사장	기획조정3실장	KAIST(석), 종합경영분석팀장	-	-	
예병태	1958-01	부사장	상용수출사업부장	부산대, 유럽총괄법인장	900	-	
곽진	1958-02	부사장	국내영업본부장	관동대, 판매사업부장	-	-	
문대홍	1960-02	부사장	파워트레인담당	KAIST(석), 파워트레인1센터장	-	-	
박광식	1957-09	부사장	정책조정팀장	성균관대, 정책지원팀	-	-	
조원홍	1964-11	전무	마케팅사업부장	펜실베이니아대(석), 모니터그룹코리아 대표	-	-	
정락	1954-12	전무	소형PM센터장	성균관대, 제품기획실장	-	-	
송대곤	1958-12	전무	공장원가관리사업부장	동아대, 공장원가관리실장	-	-	
이용우	1959-03	전무	HMB법인장	고려대, 해외판매사업부장	497	-	
김준하	1956-03	전무	HMMC 법인장	부산대, 2공장장	-	-	
함명창	1955-01	전무	상용국내사업부장	건국대, 부산경남상용지역본부장	-	-	
강병욱	1956-05	전무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총경리)	부산대, 기아자동차(주) 품질사업부장	-	-	
왕수복	1962-03	전무	중국사업본부장	청주대(석),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판매기획)	-	-	
이상훈	1956-12	전무	아산공장장	동국대, 울산공장부공장장	-	-	
서보신	1957-01	전무	HMI 법인장	한양대, KD지원실장	-	-	
공영운	1964-08	전무	홍보1실장 / 홍보2실장[겸직]	서울대, 해외정책팀장	-	-	
정준용	1959-03	전무	전주공장장	연세대, 엔진변속기공장장	-	-	
라현근	1955-12	전무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구매)	한양대, 기아자동차(주) DYK(구매본부장)	-	-	
김성배	1955-09	전무	브라질공장관리팀장	연세대, HMB 공장장	-	-	
이경수	1955-11	전무	HT 법인장 / HYMEX담당[겸직]	한국외대, 충남미지역본부장	-	-	
이기상	1958-08	전무	환경기술센터장	인하대(석), 환경차시스템개발실장	531	253	
차인규	1959-07	전무	시험담당	성균관대,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	-	
방창섭	1960-12	전무	품질본부장	크랜필드대(석), 현대품질사업부장	-	-	
정재욱	1959-03	전무	부품개발사업부장	부산대, 차체사시부품구매실장	-	-	
장원신	1958-03	전무	HAOS 법인장	고려대, HMES장	-	-	
한창환	1960-11	전무	HMI (판매)	서강대, 미주실장	-	-	
양진모	1958-09	전무	정책지원팀장	인하대, 정책지원팀	730	800	
임병권	1960-08	전무	유럽법인장	성균관대, 유럽실장	-	-	
정홍범	1961-03	전무	파이롯트센터장	연세대, 파이롯트전략실장	-	-	
이종욱	1957-05	전무	샤시기술센터장	인하대, 재료개발센터장	1,500	3,000	
김현수	1956-11	전무	바디기술센터장	부산대, 설계개선실장	1,248	234	
구영기	1957-06	전무	HMCIS법인장	인하대, HMI (판매)	-	-	
정형중	1957-01	전무	정책개발팀장	고려대, 인재개발실장	-	-	
문정훈	1959-06	전무	울산공장부공장장	동아대, 5공장장	-	-	
양승욱	1959-08	전무	파워트레인2센터장	한양대(석), 유럽기술연구소장	-	-	
양동환	1960-12	전무	현대생기센터장	성균관대, 생기전략기획실장	-	-	
성기형	1961-08	전무	부품구매사업부장	부산대, 의장전장부품구매실장	-	-	
류병완	1959-08	전무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서울대(석), HMI (경영지원)	-	-	
윤동현	1963-05	전무	기획실장	서강대, 경영세미나팀장	-	-	
장영욱	1958-11	전무	정보기술본부장	중앙대, 정보화추진사업부장	-	-	
한용빈	1965-09	전무	경영기획1팀장	서울대, 종합경영분석팀	-	-	
장재훈	1964-08	전무	생산개발기획사업부장	Boston Univ.(석), 현대글로벌비즈니스㈜ 글로벌사업실장	-	-	
김승진	1968-05	전무	경제분석실·자동차산업연구실담당	펜실베이니아대(박), 경제분석실·자동차산업연구실담당	-	-	
박세봉	1957-02	상무	글로벌지원센터(중국)장	경북공전, 설계개선실장	-	382	
이종승	1957-03	상무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	성균관대, 기아자동차(주) 중국사업2실장	-	-	

정창원	1960-01	상무	상용마케팅실장	서강대(석), 특장영업실장	100	-	
황인수	1961-01	상무	중국경영지원실장	서울대, 현대차그룹(중국)유한공사(품질)	-	-	
김동규	1958-10	상무	파워트레인생기담당	인천대, 기아자동차(주) 엔진생기실장	-	-	
김우태	1958-08	상무	파워트레인1센터장	고려대(박), 가솔린엔진개발실장	20	-	
고을석	1957-01	상무	시험2센터장	크랜필드대(석), 플랫폼개발실장	-	-	
윤병도	1958-07	상무	상품기획1실장	한양대, 선행상품전략실장	-	150	
정배호	1959-01	상무	상용평가실장	부산대(석), 시험2실장	-	-	
조현래	1958-04	상무	현대와싱턴사무소장	고려대, 기아자동차(주) 수출2실장	-	-	
권혁동	1958-01	상무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판매)	중앙대, 남부지역본부장	-	-	
배태모	1958-02	상무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	한양대, 상용중국합자설립TFT	-	-	
유재영	1957-06	상무	영업지원사업부장	중앙대, 대전지역본부장	-	-	
김영태	1958-09	상무	재경사업부장	영남대, HMMA (재경)	-	-	
정영철	1960-04	상무	감사기획팀장	콜로라도대(석), 정보보안기획팀장	30	-	
김시평	1961-12	상무	HMMA (경영지원)	울산대(석), HMMR (경영지원)	-	-	
이광국	1963-01	상무	해외정책팀장	연세대, 브랜드전략팀장	-	-	
하연태	1962-10	상무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아주대, 생산운영실장	-	-	
배형근	1965-04	상무	총무팀 (비서)	고려대, 기아자동차(주) 총무팀(비서)	-	-	
김원진	1964-10	상무	경영기획2팀장	고려대, 오토에버시스템즈 경영지원실	-	-	
이인구	1961-06	상무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기획)	한양대, 중국사업1실장	-	-	
최동우	1961-11	상무	HMMC (구매)	송실대(석), 구동부품개발실장	-	-	
전상태	1967-09	상무	혁신전략실장	MIT(석), 혁신전략1팀장	-	-	
이석동	1959-03	상무	2공장장	강원대, 지원사업부장	-	-	
조성환	1961-10	상무	미국기술연구소(HATCI)장	스탠포드대(박), 승용디젤엔진개발실장	-	157	
장영탁	1958-12	상무	엔진변속기공장장	인하대, 변속기생산실장	-	-	
최명화	1965-11	상무	마케팅전략실장	Virginia Tech(박), 마케팅전략실	-	-	
박우열	1957-06	상무	HMB (구매)	동아대, 상용부품개발실장	-	-	
전용석	1957-10	상무	5공장장	동아대, 2공장장	-	-	
최상구	1960-04	상무	판매사업부장	인하대, 남부지역본부장	-	-	
최정연	1959-03	상무	통합구매사업부장	건국대, 차체사시부품구매실장	-	-	
박형주	1960-02	상무	TOOLING센터장	영남대, 현대금형기술실장	-	-	
이병섭	1960-06	상무	현대외장디자인실장	헬싱키대학원(석), 현대스타일링실장	70	-	
이태환	1959-11	상무	아중동지역본부장	조지워싱턴대(석), 수출기획실장	-	-	
이인철	1961-09	상무	해외판매사업부장	성균관대, 기아자동차(주) 감사팀	-	-	
김태석	1959-01	상무	서비스사업부장	송실대, 서비스지원실장	-	238	
정홍주	1961-06	상무	HMMA (생산)	영남대, 자동화기술실장	-	-	
김언수	1963-08	상무	HMI (재경)	창원대, 울산경리팀장	-	-	
장동철	1964-03	상무	HR사업부장	한양대, 인력운영실장 / 인사지원실장[겸직]	-	-	
임태원	1961-09	상무	중앙연구소장	뉴욕주립대(박), 연료전지시스템개발팀장	420	-	
김무상	1959-06	상무	유립기술연구소장	지겐대(박), 상품성개발담당	-	-	
강병식	1960-11	상무	해석담당	미시간대(박), 바디기술센터	-	-	
김봉인	1958-04	상무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생산관리)	경북대, DYK	-	-	
박창욱	1960-06	상무	울산총무실장	부산대, 울산총무팀장	-	-	
곽석구	1957-04	상무	인도공장관리팀장	전북대, HMI (품질)	-	200	
박승도	1959-08	상무	앨라바마공장관리팀장	울산대, 선행품질2실장	70	-	
송근안	1960-06	상무	종합지원팀장	창원대, 글로벌종합상황실장	1	-	
장유성	1962-06	상무	북경현대공장관리팀장	연세대,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재경)	325	9	
박동일	1960-09	상무	전자기술센터장	중앙대, 전자설계실장	105	-	
이석장	1967-04	상무	경영지원3팀장	연세대, 글로벌전략지원2팀장	30	464	
최진길	1958-02	상무	3공장장	진주기계공고, 의장3부서장	30	-	
전삼기	1957-01	상무	인도원가경쟁력강화TFT장	전북대, RV총괄3PM	-	-	
임종대	1958-11	상무	재료개발센터장	울산대(석), 재료개발1실장	-	-	
김윤환	1958-04	상무	1공장장	울산대, 시트공장장	70	350	
탁영덕	1958-12	상무	상용설계2실장	크랜필드대(석), 상용설계실장	-	-	

이영택	1959-12	상무	HMB (생산개발)	영남대, 차량생기실장	70	-	-
신장호	1959-11	상무	HMI	부산대(석), 변속기생산실장	-	-	-
유재준	1959-07	상무	상용품질실장	아주대, 해외정비품질실장	-	-	-
김형정	1959-10	상무	미주실장	렌셀러공대(석), HAC (업무총괄)	40	50	-
정재호	1960-01	상무	선행생기센터장	부산대, 에너지기술센터장	-	-	-
김종무	1960-05	상무	상용수출1실장	경기대, 상용동구지역본부장	-	-	-
최동열	1961-04	상무	HMMR (생산기술)	인하대, HMI (시설/보전)	-	-	-
김대원	1960-08	상무	부품품질혁신실장	부산대, 업체협력실장	70	-	-
전춘석	1957-10	상무	가솔린엔진개발실장	서울대, 파워트레인프로젝트추진실장	-	-	-
최왕규	1960-12	상무	생기기획지원실장	부산대(석), 생기사업계획팀장	31	-	-
안영진	1960-06	상무	수출기획실장	시라큐스대(석), 미주실장	100	-	-
진병진	1959-07	상무	HAOS (생기)	동아대, 차량생기2팀장	-	-	-
진의환	1961-07	상무	HMB (경영지원)	연세대, 기아자동차(주) HMMG(경영지원실장)	-	-	-
오창익	1959-06	상무	R&D품질강화추진단장	KAIST(석), 연구개발기획실장	-	-	-
김택규	1963-04	상무	HMMMA	고려대, 회계관리실장	-	-	-
박두일	1962-05	상무	울산인사실장	영남대, 울산인사팀장	-	-	-
이종수	1963-11	상무	파워트레인제어개발실장	서울대(박), 파워트레인제어개발팀장	-	-	-
김동욱	1964-02	상무	HAC 법인장	연세대(박), 수출기획실장	-	-	-
양봉규	1958-02	이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대(박), 제주지역본부	60	110	-
이봉재	1970-12	이사	의전실장	고려대, 비서실	-	-	-
김현수	1958-07	이사	부산지역본부장	한양대, CS추진실장	-	-	-
김영현	1957-08	이사	전사PMTFT장	울산대, 소형총괄1PM	-	-	-
장충식	1956-05	이사	아산생산실장	조선대, 아산엔진실장	-	-	-
홍존희	1958-03	이사	중국기술연구소장	고려대(박), 현대차그룹(중국)유한공사 (연구개발)	30	200	-
이규오	1960-08	이사	인도기술연구소장	런던대(석), 플랫폼개발1실장	-	80	-
정원욱	1957-10	이사	내구성능개발실장	부산대(박), 내구신뢰성팀장	70	-	-
허승현	1960-02	이사	HMI (구매)	부산대, 차체사시부품개발실장	30	-	-
이재권	1960-08	이사	인천지역본부장	동국대, 영업관리실장	-	-	-
송세영	1958-11	이사	기아스타일링실장	홍익대, 기아내장디자인1팀장	-	-	-
오양섭	1963-02	이사	상용수출2실장	아주대(석), 상용수출실장	30	-	-
안석준	1960-01	이사	현대금형기술실장	부산대, HMMC(생기)	70	-	-
이장호	1958-10	이사	중남미지역본부장	고려대(석), 수출지원실장	30	-	-
정현철	1960-08	이사	아산엔진실장	경북대, 엔진보전부장	90	-	-
한영국	1960-08	이사	혁신종합관리센터장	강원대,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IT)	-	-	-
김재곤	1959-12	이사	협력지원실장	부산대, 협력지원1팀장	-	-	-
기회봉	1958-12	이사	상용생기실장	전남대(박), 상용생기계획팀장	40	-	-
이중철	1962-12	이사	파워트레인품질개선TFT장	고려대(석), 상품기획1실장	-	-	-
이상훈	1964-02	이사	HMA (재경)	충남대, 재정팀장	140	-	-
양동걸	1964-05	이사	HAOS	연세대, CS경영실장	-	-	-
임덕정	1960-12	이사	HMF장	부산대, 기아자동차(주) 프랑스판매법인장	-	-	-
도보은	1963-07	이사	경제분석실장	Texas A&M대(박), 금융감독원	-	-	-
이원구	1958-03	이사	부산경남상용지역본부장	인하대, 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40	-	-
김종률	1961-02	이사	남부지역본부장	부산대, 동북부지역본부장	30	-	-
배민규	1958-05	이사	법규인증실장	중앙대, 차량개발지원실장	522	223	-
이재준	1958-12	이사	서남부지역본부장	동양공전, 경기서북지역본부장	40	-	-
김화중	1958-06	이사	소재공정장	연세대, 소재3부장	118	-	-
이은우	1960-11	이사	시장분석실장	인하대, 상품전략2팀장	30	-	-
정시득	1958-01	이사	파워트레인선행생기실장	부산대, 파워트레인생기계획팀장	70	-	-
박병철	1959-04	이사	RV총괄2PM	송실대, 프로젝트2팀장	35	-	-
이승원	1959-11	이사	품질전략실장	경북대, 품질전략팀장	-	-	-
차석주	1962-03	이사	총돌성능개발실장	맨체스터대(석), 차체설계실장	-	-	-
손동인	1960-06	이사	HMMR (구매)	부산대, 기아자동차(주) 글로벌구매지원실장	-	-	-
김동석	1960-08	이사	환경안전보건실장	창원대, 안전보건팀장	-	-	-

손경수	1960-08	이사	HMMA (품질)	부산대, 품질보증실장	70	-	
박병일	1961-12	이사	주행성능개발실장	아주대, 현대모비스㈜ 차량시험개발실장	30	-	
이광윤	1960-03	이사	HMMA (구매)	영남대, 차체부품구매1팀장	175	-	
곽병해	1959-07	이사	감사2팀장	영남대, 의장전장부품개발실장	-	-	
김진	1959-10	이사	아중아실장	고려대, HMI (판매)	40	-	
오석구	1961-04	이사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시설관리)	영남대, 엔진보전부장	30	850	
최인균	1958-04	이사	동부지역본부장	국민대, 광주지역본부장	-	-	
문상민	1961-12	이사	차량생기실장	부산대, 선행생기2실장	50	-	
심현성	1960-03	이사	환경차성능개발실장	서울대(박), 하이브리드제어개발팀장	30	-	
이강래	1960-08	이사	해외서비스사업부장	인하대, 해외서비스실장	-	-	
조광래	1960-11	이사	현대품질사업부장	부산대, 품질경영실장	140	-	
김천성	1959-09	이사	전자품질사업부장	서울대, 전자품질1실장	105	-	
박재원	1960-03	이사	4공장장	울산대, 의장2부서장	-	-	
정순영	1958-08	이사	법인판촉실장	동아대, 인천지역본부장	-	-	
문용구	1955-08	이사	중부지역본부	송실대, 인천지역본부장	-	-	
이준복	1961-01	이사	아산지원실장	인천대, 아산총무팀장	-	-	
정인욱	1961-01	이사	상용기획실장	경상대, 부산경남상용지역본부장	-	-	
김기성	1962-04	이사	현대수선중고차 (업무총괄)	송실대, 판매추진팀장	-	-	
임승표	1963-02	이사	공장원가실장	경북대, HMMC (재경)	-	-	
최준혁	1964-01	이사	노사협력실장	영남대, 노사협력팀장	30	-	
이제봉	1960-09	이사	인사지원실장	중앙대, 강원지역본부장	40	-	
장세호	1960-06	이사	판매정보화실장	부산대, ERP운영실장	70	-	
도신규	1967-09	이사	재무관리실장	부산대, 경영관리실장	100	-	
강두식	1973-03	이사	HMCIS (대외협력)	울산대, HMMR (대외협력)	70	-	
김원태	1959-09	이사	제품기획실장	중앙대, 제품기획팀장	-	-	
김윤구	1965-06	이사	인사기획팀장	연세대, HMMA (인력운영)	-	-	
박재향	1964-12	이사	미래연구실장	뉴욕대(석), 미래연구실	-	-	
이경재	1960-09	이사	러시아공장관리팀장	전북대, 시설동력실장	135	-	
엄태신	1961-01	이사	체코공장관리팀장	연세대, 의장전장부품구매실장	3	100	
권상태	1964-03	이사	HMI (경영지원)	부산대, 터키공장관리팀장	105	-	
조진현	1960-03	이사	상용부품개발실장	부산대,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	-	
윤석태	1959-09	이사	총합성능개발실장	경희대, 총합성능개발1팀장	105	-	
정지석	1959-12	이사	서비스판촉실장	청주대, 서비스품질정보팀장	135	-	
박준식	1960-10	이사	현대엔진생기실장	명지대(용인), 아산엔진생기팀장	135	-	
오대운	1960-07	이사	성능시험실장	리즈대(석), 기술엔진기능시험팀장	-	-	
안동욱	1958-10	이사	대구지역본부장	단국대, 중앙지역본부장	-	-	
이광주	1959-12	이사	수출지원실장	동국대, 수출선적팀장	100	-	
임호	1960-07	이사	트럭경인상용지역본부장	서강대, 상용기획실장	70	-	
이정균	1960-08	이사	연구개발환경안전팀장	부산대, 시설지원팀장	-	-	
임재홍	1960-09	이사	생산3실장	경북대, 생산지원3실장	-	-	
박채영	1960-10	이사	시트공장장	울산대, 시트품질관리부장	5	-	
강병욱	1958-12	이사	도장생기실장	부산대, 현대기아열달기차유한공사	-	-	
지태수	1964-07	이사	사시설계1실장	Lehigh Univ.(석), 현가조항제동설계2팀장	-	-	
서석교	1959-06	이사	품질보증실장	영남대, 해외정비품질1팀장	-	-	
오세환	1959-10	이사	HMI (시설/보전)	울산대, 보전4부서장	-	-	
백경국	1960-07	이사	중대형총괄3PM(실장)	부산대, 디지털디자인실장	-	-	
이향	1964-06	이사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품질)	서울대, 현대차그룹(중국)유한공사 (품질)	-	-	
왕길항	1961-06	이사	북경경현	인하대, 고객접점환경개선TFT	-	-	
양희원	1963-03	이사	차체설계실장	인하대, 고성능차기술개발실장	-	-	
신문상	1962-08	이사	연구개발경영리팀장	충남대, 회계팀장	-	-	
이규복	1968-04	이사	HMB(재경)	서울대, 재무관리실장	30	-	
김철환	1963-08	이사	HMCA법인장	고려대, 해외마케팅실장	105	363	
유원하	1963-09	이사	대전지역본부장	한양대, 운영지원실장	-	-	

주성백	1963-09	이사	승용디젤엔진개발실장	연세대(석), 승용디젤엔진설계팀장	135	-	
문성곤	1964-07	이사	사업기획실장	부산대, 사업기획팀장	-	-	
오일석	1963-11	이사	생산정보화실장	동국대(석), 현대오트메버 미주법인장	-	-	
성인환	1961-11	이사	인력운영실장	한국외국어대,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마케팅)	70	-	
김현중	1963-12	이사	경영지원1팀장	충남대, 현대모비스 해외모듈부장	35	-	
윤석현	1964-11	이사	정책조정팀	고려대, 수원동부지점장	-	-	
서정국	1965-10	이사	법무기획팀장	조지타운대, 국제법무팀장	-	-	
허정환	1965-08	이사	전략홍보팀장	고려대, 신문홍보팀장	-	-	
이동석	1964-01	이사	생산운영실장	울산대, 경영개선팀	25	-	
임성호	1964-09	이사	HMMC (경영지원)	동아대, 인력운영팀장	65	-	
김선섭	1966-09	이사	경영전략실장	서울대, 경영세미나팀장	-	-	
서상원	1967-06	이사	연구개발인사실장	성균관대, 인사지원실장	10	-	
김상대	1964-10	이사	국내마케팅실장	미시간대(석), 마케팅전략실장	60	-	
임정환	1961-01	이사	상용설계1실장	Univ. of Arizona(박), 상용사시설계팀장	90	-	
이혁준	1969-12	이사	총무팀	중국인민대학(박), 북경사무소	-	-	
류성원	1963-12	이사	중국상품전략실장	지겐대(석), 중국상품운영팀장	35	-	
서인권	1963-06	이사	파이롯트개발실장	인하대, 파이롯트개발2팀장	45	-	
류기천	1963-12	이사	현대차그룹(중국)유한공사	서울대(석), 경영연구팀장	-	-	
김상현	1968-12	이사	회계관리실장	서울대, 회계팀장	135	-	
설호지	1976-12	이사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판매)	성균관대, 동풍열달기아	135	-	
이청휴	1966-02	이사	정책지원팀	고려대(석),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	-	
지요한	1964-03	수석연구위원	승용디젤엔진리서치랩 실장	서울대(박), 파워트레인센터	-	110	
박준호	1963-04	수석연구위원	R&H1리서치랩 실장	Ohio State Univ(박), 성능개발센터	-	-	

※ 상기 미등기임원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보유주식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임.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 사항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추가	권문식	사장	연구개발본부장	-
	황승호	부사장	차량IT서비스사업부장	-
제외	최한영	부회장	-	-
	오석근	부사장	-	-
	한용빈	전무	-	-
	함명창	전무	-	-
	김승진	전무	-	-
	박재원	이사	-	-
	한영국	이사	-	-

나. 직원의 현황

직원 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자동차 제조/판매	남	57,214	3,194	-	60,408	17.0	5,756,692	95	-

자동차 제조/판매	여	2,647	44	-	2,691	12.0	211,401	78	-
합 계		59,861	3,238	-	63,099	16.8	5,968,093	94	-

※ 상기 계약직은 일정 기간 근무 계약을 맺은 직원 기준임.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9	15,000	사외이사 포함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4	9,226	2,306	-
사외이사	1	87	87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4	348	87	-
계	9	9,661	1,073	-

※ 보수총액은 2013년중 공시대상기간 지급 기준임.

※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정몽구	대표이사	5,600	-
정의선	사내이사	1,832	-
김충호	대표이사	899	-
윤갑한	대표이사	894	-

2.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산정기준 및 방법
----	-----------

대표이사 정몽구	※ 보수총액 5,600백만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 - 근로소득: 급여 5,600백만원 - 기타소득: 해당사항없음 - 퇴직소득: 해당사항없음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에 의거 집행
사내이사 정의선	※ 보수총액 1,832백만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 - 근로소득: 급여 1,832백만원 - 기타소득: 해당사항없음 - 퇴직소득: 해당사항없음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에 의거 집행
대표이사 김충호	※ 보수총액 899백만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 - 근로소득: 급여 899백만원 - 기타소득: 해당사항없음 - 퇴직소득: 해당사항없음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에 의거 집행
대표이사 윤갑한	※ 보수총액 894백만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 - 근로소득: 급여 894백만원 - 기타소득: 해당사항없음 - 퇴직소득: 해당사항없음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에 의거 집행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채무보증 내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종속법인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채권자	기간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현대캐피탈	국내 종속법인	GE CAPITAL	2015년 1월	604,902		-187,717	417,185	-
현대로템		GWRL외	2028년 7월	8,875	617,002		625,877	-
현대카드		GE CAPITAL	2015년 1월	87,830		-44,563	43,267	-
HMM A	해외 종속법인	해외채권투자자 외	2015년 4월	187,443		-2,765	184,678	-
HCA		산업은행 외	2017년 6월	1,103,233		-16,274	1,086,959	-
SMART		국민(NY)	2013년 6월	53,555		-53,555	0	-
HMI		수출입은행	2014년10월	107,110		-67,536	39,574	-
HME		Unicredit	2024년 4월	41,166		-29,128	12,038	-
HMETC		BNP	2014년 5월	28,325	800		29,125	-
HMMR		CITI 외	2016년11월	496,258		-292,381	203,876	-
HMMC		산업은행 외	2015년 4월	761,847		-153,234	608,613	-
HT		Credit agricole	2013년 6월	85,688		-85,688	0	-
HMB		BNDES	2018년 8월	296,057		-106,103	189,954	-
HMP		Nordea	2015년 6월	14,163		-14,163	0	-
HMN		BNP	2014년 5월	0	14,563		14,563	-
HMD		BNP	2014년 5월	56,650		-27,525	29,125	-
HMUK		외환	2013년 8월	34,619		-34,619	0	-
HMCi		BNP	2014년 5월	141,626		-105,220	36,407	-
HMES		BNP	2014년 5월	70,813		-34,407	36,407	-
HMJ		스미모토 외	2014년 2월	24,950		-4,857	20,093	-
북경경현		신한	2013년 6월	8,594		-8,594	0	-
합 계				4,213,704	632,365	-1,268,329	3,577,741	-

※ 외화 지급보증금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특수관계자 등에 총 254,607백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자세한 출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성 명 (법인명)	관 계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등					비 고
		종류	거 래 내 역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현대카드	계열회사	동일 주	471,095	175,275	-	646,370	-
HMGC	해외현지법인	식	47,072	17,432	-	64,504	-

CHMC	해외현지법인		77,614	56,592	-	134,206	-
HMM	해외현지법인		-	5,308	-	5,308	
합 계			595,781	254,607	-	850,388	-

※ 상기 내용은 취득가 기준임.

나.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당사는 계열회사 HMC투자증권을 상대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연중 및 분기별 거래한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경우 1년간 적용되는 거래 한도, 기타 금융거래 및 회사채 등은 분기별 적용되는 거래 한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당기중 계열회사등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거래 목적물	금 액				비 고
		기초	증가(감소)	기말	손익	
HMC 투자증권	수익증권 (MMF 등)	100	1,000	1,100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기타금융거래(MMT등)	4,150	7,650	11,800	129	
	회사채 등	-	-	-	-	

또한, 당사는 2013년 4월 26일 계열회사인 현대제철로부터 현대카드보통주식 8,729,750주를 175,162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 영업거래

보고서 작성일 기준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인 HMA와 6,560,312백만원,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4,901,627백만원에 상당하는 영업거래를 하였고, 동 금액은 당사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를 초과합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비고(진행사항)
2012.4.19	조회공시 :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매각설	• 당사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6개 주주사는 2011년 6월 3일자로 주식공동매각약정을 체결 • 현재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관 하에 매각을 추진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시 한국항공 우주산업(주)이 공시예정이며, 당사는 최종확정시 공시 예정 임.	2012. 4. 20 2012. 5. 18 2012. 8. 17 2012. 9. 3 2012. 9. 18 2012. 12. 18 2013. 6. 18

2.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 일자	안 건	결의 내용	비 고
제45기 주주총회 (2013.03.15)	1. 제4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통과	-
제44기 주주총회 (2012.03.16)	1. 제4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통과	-
제43기 주주총회 (2011.03.11)	1. 제43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통과	-

3. 우발채무 등

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법
 인 대한 보증내역은 「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상대방	국내보증금액	해외보증금액(*)
관계기업	-	82,313

기타	164,058	963,339
계	164,058	1,045,652

(*) 외화 지급보증금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전기말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상대방	국내보증금액	해외보증금액(*)
관계기업	-	103,897
기타	186,652	973,338
계	186,652	1,077,235

(*) 외화 지급보증금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나. 진행중인 소송 사건

당기말 현재 회사와 회사의 종속기업은 국내 및 해외 소송사건에 피소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등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회사의 종속기업은 상기 소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 및 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888,266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수요자금융거래, 계약이행 및 보증담보 등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주) 주식 213,466주와출자금 등이 관련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예금, 보증금, 어음 및 수표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해외종속기업의 경우 상기에 포함된 담보제공자산 이외에 금융업채권 등이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 제공되어 있습니다.

라. 국내종속기업인 현대캐피탈(주)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제공받고 있는 신용공여한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Credit Line
GE Capital European Funding & Co.(*)	미화 7억불 상당의 유로화
Citi Bank, N.A.	미화 2억불
Mizuho Corporate Bank, Seoul Branch	65,000
JP Morgan, Seoul Branch	110,000
Citi Bank, Seoul	50,000
Standard Chartered, Seoul Branch	50,000

Societe Generale, Seoul Branch	110,000
Bank of China, Seoul	50,000
DBS Bank, Seoul Branch	150,000
SMBC, Seoul Branch	50,000
BNP Paribas, Seoul Branch	100,000
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20,000
Credit Agricole, Seoul	100,000
RBS, Seoul	110,000
ING Bank, Seoul	100,000
국민은행	200,000
산업은행	60,000
교보생명	50,000
수협은행	20,000

(*) 동 신용공여약정은 2014년 1월에 계약 연장하였으며, 미화 6억불 상당의 유로화로 한도가 변경됨.

마. 국내종속기업인 현대카드(주)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공받고 있는 신용공여한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Credit Line
GE Capital European Funding & Co.(*)	미화 1억불 상당의 유로화
국민은행	190,000
신한은행	150,000
NH농협은행	100,000
Citi Bank, Seoul	50,000
하나은행	100,000
SC은행	30,000
전북은행	30,000
수협은행	20,000
산업은행	40,000
Bank of Nova Scotia	50,000

(*) 동 신용공여약정은 2014년 1월 약정 해지되었음.

바. 국내종속기업인 현대카드(주)의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르면 유동화사채의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유동화가 해당 트리거(Trigger) 조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제재 현황

■ 현대캐피탈

2011년 4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2011년 9월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임직원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조치대상자	전/현직 여부	조치내용
2011.09.09	대표이사	현직	주의적 경고
	정보담당 임원	현직	감봉 3개월

■ 현대카드

(1) 2013년 7월,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연계없이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회원 모집업무 불철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일자	제재대상	제재내용
2013.07.31	기관	경영유의

(2) 2013년 11월, 신용카드 모집인의 본인확인 소홀로 인해 사망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일자	제재대상	제재내용
2013.11.14	직원	조치의뢰

5.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HCA는 보고기간 이후 2017년 만기인 회사채 미화 900,000천불과 2019년 만기인 회사채 미화 600,000천불을 발행하였으며, 유동회사채 미화 1,139,840천불을 발행하였습니다.

6. 녹색경영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해당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탄소 녹색경영 관련 연혁

일시	주요내용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공장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취득 ※ '12년 기준 국내외 공장 전 사업장 ISO 14001 인증(러시아, 브라질공장 제외)
1998	■ 생산공장의 사용연료를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도시가스로 전면 교체
2003	■ CEO, 글로벌 환경경영/방침 선포, 전사적으로 환경경영 강화
2005	■ 교토의정서 발효 대응 기후변화 대책반 구성 및 자발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감축 전략 수립 - 목표 :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2009	■ 온실가스/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GEMS) 구축
2010	■ 녹색기술 전략 '블루드라이브' 발표(친환경차 개발 강화)

2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외부검증 시행(로이드 인증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협약 체결 및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울산공장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 취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AGP(Automotive Green Partnership)을 활용한 에코-에너지 관리 솔루션 사업
20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사 201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외부검증 실시(로이드 인증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중소 상생 에너지 동행 사업 실시(협력사 에너지절감기술 보급)
201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산공장 지붕형 10MW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 완공

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일시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_eq)	에너지 사용량 (TJ)
2007	1,492,402	28,758
2008	1,476,706	28,505
2009	1,372,228	26,459
2010	1,541,424	29,711
2011	1,562,658	30,385
2012	1,552,510	31,475
2013	1,502,841	30,236

* 2013년 데이터는 외부 검증기관 검증 이전 자료임

다. 녹색기업 지정 등

- 전 생산공장 녹색기업(환경친화기업) 지정 : 울산공장('96. 5 ~ 현재),
아산공장('98. 1 ~ 현재), 전주공장('99. 12 ~ 현재)
- 탄소성적표지 및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	쏘나타('09.10), 투싼ix('10.7)아반테('10.9),그랜저('11.1) 엑센트('11.2),벨로스터('11.2),쏘나타하이브리드('11.5), i40('11.8), i30('11.9),싼타페('12.4), 제네시스('13.4)
저탄소 제품 인증	쏘나타 하이브리드('12.2)

XI.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6 기 2013.12.31 현재
제 45 기 2012.12.31 현재
제 44 기 2011.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자산			
유동자산	58,856,105	54,847,586	48,926,350
현금및현금성자산	6,872,430	6,759,338	6,231,946
단기금융상품	14,875,288	12,384,057	9,182,575
매출채권	3,485,345	3,686,824	3,845,517
기타채권	3,118,386	2,304,410	2,240,482
기타금융자산	507,821	109,299	356,444
재고자산	7,073,116	6,772,864	6,237,752
기타자산	1,667,936	1,905,445	1,137,862
당기법인세자산	54,845	34,575	36,084
금융업채권	21,178,591	20,867,467	19,657,68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2,347	23,307	
비유동자산	74,565,374	66,690,228	60,553,625
장기금융상품	35,495	1,359	211,540
장기성매출채권	43,309	43,801	76,843
기타채권	1,127,839	1,036,609	987,207
기타금융자산	2,731,884	1,594,464	1,897,943
기타자산	154,900	44,424	1,288
유형자산	21,462,587	20,739,858	19,548,048
투자부동산	263,984	282,832	282,427
무형자산	3,129,090	2,883,218	2,660,109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4,694,995	13,117,731	11,709,238
이연법인세자산	521,399	489,080	458,287
금융업채권	19,835,016	18,626,764	17,452,441
운용리스자산	10,564,876	7,830,088	5,268,254
자산총계	133,421,479	121,537,814	109,479,975
부채			
유동부채	31,919,682	32,835,699	33,163,508

매입채무	6,722,740	6,841,326	6,666,406
미지급금	4,687,490	4,542,007	3,752,684
단기차입금	5,292,798	6,781,749	7,880,014
유동성장기부채	8,685,254	7,912,341	8,320,194
당기법인세부채	605,280	550,847	925,519
총당부채	1,782,937	1,768,014	1,686,161
기타금융부채	144,069	148,311	455,914
기타부채	3,999,114	4,291,104	3,476,616
비유동부채	44,919,008	40,784,540	35,988,765
장기성미지급금	15,964	8,271	29,471
사채	29,322,780	26,370,689	23,654,325
장기차입금	4,666,030	4,142,473	3,484,127
순확정급여부채	389,306	821,749	648,639
총당부채	5,122,982	5,240,744	4,960,992
기타금융부채	440,113	356,193	200,197
기타부채	1,609,481	1,482,358	1,537,003
이연법인세부채	3,352,352	2,362,063	1,474,011
부채총계	76,838,690	73,620,239	69,152,273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1,931,085	44,039,059	37,113,033
자본금	1,488,993	1,488,993	1,488,993
자본잉여금	4,130,668	4,158,988	4,114,010
기타자본항목	(1,128,779)	(1,128,779)	(1,128,77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4,036)	(473,373)	375,281
이익잉여금	48,274,239	39,993,230	32,263,528
비지배지분	4,651,704	3,878,516	3,214,669
자본총계	56,582,789	47,917,575	40,327,702
부채와자본총계	133,421,479	121,537,814	109,479,975

연결 손익계산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매출액	87,307,636	84,469,721	77,797,895
매출원가	67,859,491	64,967,273	58,892,979
매출총이익	19,448,145	19,502,448	18,904,916

판매비와관리비	11,132,648	11,061,847	10,863,393
영업이익	8,315,497	8,440,601	8,041,52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3,057,109	2,581,564	2,409,350
금융수익	805,261	969,726	747,546
금융비용	552,709	624,473	779,666
기타수익	1,138,001	1,231,360	1,030,593
기타비용	1,066,453	988,336	983,94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96,706	11,610,442	10,465,401
법인세비용	2,703,209	2,549,310	2,345,103
연결당기순이익	8,993,497	9,061,132	8,120,298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541,834	8,566,568	7,671,713
비지배지분	451,663	494,564	448,58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1,441	31,532	28,259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1,441	31,532	28,259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연결당기순이익	8,993,497	9,061,132	8,120,298
기타포괄손익	(115,641)	(1,207,585)	(267,0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62,996	(354,811)	(231,184)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4,855)	(15,43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9,790	(247,197)	(175,500)
지분법이익잉여금	13,206	(102,759)	(40,24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378,637)	(852,774)	(35,910)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59,155	(80,693)	(91,860)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6,263	55,471	4,004
지분법자본변동	(60,746)	(190,728)	199,226
해외사업환산손익	(383,309)	(636,824)	(147,280)
총포괄이익	8,877,856	7,853,547	7,853,20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441,925	7,378,454	7,415,551
비지배지분	435,931	475,093	437,653

연결 자본변동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게 귀속되는 자본 합 계		
2011.01.01 (기초자본)	1,488,993	3,900,935	(918,214)	409,914	25,216,163	30,097,791	2,790,182	32,887,973
총포괄이익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15,842)	(15,842)	407	(15,435)
연결당기순이익					7,671,713	7,671,713	448,585	8,120,29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1,493)		(91,493)	(367)	(91,860)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2,891		2,891	1,113	4,004
지분법평가				199,216	(40,249)	158,967	10	158,97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5,438)	(165,438)	(10,062)	(175,500)
해외사업환산손익				(145,247)		(145,247)	(2,033)	(147,280)
총포괄이익 소계				(34,633)	7,450,184	7,415,551	437,653	7,853,20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412,227)	(412,227)	(45,423)	(457,650)
자기주식 취득			(400,137)			(400,137)		(400,137)
자기주식 처분		194,959	189,572			384,531		384,531
종속기업의 증자							12,871	12,871
종속기업의 처분		18,116				18,116		18,116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기타변동분					9,408	9,408	19,386	28,79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213,075	(210,565)		(402,819)	(400,309)	(13,166)	(413,475)
2011.12.31 (기말자본)	1,488,993	4,114,010	(1,128,779)	375,281	32,263,528	37,113,033	3,214,669	40,327,702
2012.01.01 (기초자본)	1,488,993	4,114,010	(1,128,779)	375,281	32,263,528	37,113,033	3,214,669	40,327,702
총포괄이익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4,743)	(4,743)	(112)	(4,855)
연결당기순이익					8,566,568	8,566,568	494,564	9,061,13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81,330)		(81,330)	637	(80,69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29,746		29,746	25,725	55,471
지분법평가				(189,602)	(102,759)	(292,361)	(1,126)	(293,48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1,958)	(231,958)	(15,239)	(247,197)
해외사업환산손익				(607,468)		(607,468)	(29,356)	(636,824)
총포괄이익 소계				(848,654)	8,227,108	7,378,454	475,093	7,853,54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480,105)	(480,105)	(43,262)	(523,367)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처분								
종속기업의 증자		42,866				42,866	232,050	274,916
종속기업의 처분		2,112				2,112	(10)	2,102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기타변동분					(17,301)	(17,301)	(24)	(17,32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44,978			(497,406)	(452,428)	188,754	(263,674)
2012.12.31 (기말자본)	1,488,993	4,158,988	(1,128,779)	(473,373)	39,993,230	44,039,059	3,878,516	47,917,575
2013.01.01 (기초자본)	1,488,993	4,158,988	(1,128,779)	(473,373)	39,993,230	44,039,059	3,878,516	47,917,575
총포괄이익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연결당기순이익					8,541,834	8,541,834	451,663	8,993,49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58,197		58,197	958	59,15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2,319		2,319	3,944	6,263
지분법평가				(61,148)	13,206	(47,942)	402	(47,54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7,548	247,548	2,242	249,790
해외사업환산손익				(360,031)		(360,031)	(23,278)	(383,309)
총포괄이익 소계				(360,663)	8,802,588	8,441,925	435,931	8,877,85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520,832)	(520,832)	(111,697)	(632,529)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처분								
종속기업의 증자		25,279				25,279	571,225	596,504
종속기업의 처분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53,599)				(53,599)	(121,676)	(175,275)
기타변동분					(747)	(747)	(595)	(1,34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28,320)			(521,579)	(549,899)	337,257	(212,642)
2013.12.31 (기말자본)	1,488,993	4,130,668	(1,128,779)	(834,036)	48,274,239	51,931,085	4,651,704	56,582,789

연결 현금흐름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08,466	5,339,686	4,132,11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109,043	7,868,089	6,426,813
(1) 연결당기순이익	8,993,497	9,061,132	8,120,298
(2) 조정	7,332,779	7,118,536	6,902,605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217,233)	(8,311,579)	(8,596,090)
2. 이자의 수취	703,243	617,736	550,026
3. 이자의 지급	(1,444,092)	(1,660,401)	(1,722,736)
4. 배당금의 수취	787,804	744,132	605,273

5. 법인세의 지급	(1,947,532)	(2,229,870)	(1,727,25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20,732)	(7,199,133)	(7,116,095)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224,284	(1,900,099)	(337,86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71,693	448,109	764,699
기타채권의 감소	76,395	93,261	412,462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5
유형자산의 처분	306,471	69,230	108,727
무형자산의 처분	26,673	1,935	11,047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1,504	241,806	355,584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07,515)	(539,551)	(764,965)
기타채권의 증가	(96,776)	(97,098)	(394,144)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854,853)	(1,160,000)	(5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171,093)	(3,000,038)	(2,899,177)
무형자산의 취득	(991,064)	(798,607)	(763,234)
종속기업의 취득		(290,989)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31,088)	(275,104)	(3,105,180)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24,637	8,012	(4,05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15,450	2,572,831	3,108,804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864,251)	(1,363,213)	(1,084,499)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차입	23,632,277	23,448,538	15,501,739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476,493	277,476	10,618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175,275)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	(16,669,654)	(18,890,467)	(10,436,527)
기타금융부채의 상환		(341,484)	
자기주식의 취득			(400,137)
배당금의 지급	(632,529)	(523,367)	(457,650)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액	(51,611)	(34,652)	(24,740)
환율변동효과 반영 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 가(감소)	303,184	713,384	124,828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90,092)	(185,992)	(108,69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6,759,338	6,231,946	6,215,81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872,430	6,759,338	6,231,946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46 기	2013.12.31 현재
제 45 기	2012.12.31 현재
제 44 기	2011.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자산			
유동자산	21,284,518	19,653,944	17,249,883
현금및현금성자산	642,836	1,395,068	1,510,820
단기금융상품	14,055,305	11,658,545	8,547,166
매출채권	3,177,486	3,982,708	4,469,652
기타채권	822,530	516,398	637,723
기타금융자산	52,557	77,705	29,574
재고자산	2,162,418	1,696,775	1,832,025
기타자산	371,386	326,745	222,923
비유동자산	36,429,659	34,291,985	32,986,127
장기금융상품	32	32	210,032
장기성매출채권	9,702	14,140	29,013
기타채권	954,017	901,180	875,654
기타금융자산	2,331,730	1,465,314	1,567,355
유형자산	13,983,358	13,306,218	12,524,580
투자부동산	197,930	203,209	208,905
무형자산	2,208,812	2,036,219	2,074,929
중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6,744,078	16,365,673	15,495,659
자산총계	57,714,177	53,945,929	50,236,010
부채			
유동부채	10,423,536	11,153,049	11,919,397
매입채무	3,702,345	3,870,150	3,947,963
미지급금	2,621,253	2,477,901	2,034,199
단기차입금	1,345,266	2,103,458	2,632,334
유동성장기부채	101,864	202,343	401,960
당기법인세부채	404,587	365,517	757,295
총당부채	1,159,983	1,172,022	1,226,774
기타금융부채	3,825	5,137	29,483
기타부채	1,084,413	956,521	889,389
비유동부채	5,338,430	5,773,224	5,794,979
사채	598,805	698,172	897,193
장기차입금	10,417	11,561	13,904
순확정급여부채	264,126	639,167	459,161
총당부채	4,210,733	4,258,748	4,320,837
기타금융부채	4,333	8,436	10,981
기타부채	48,425	51,549	43,808
이연법인세부채	201,591	105,591	49,095

부채총계	15,761,966	16,926,273	17,714,376
자본			
자본금	1,488,993	1,488,993	1,488,993
자본잉여금	3,964,962	3,964,962	3,964,962
기타자본항목	(1,128,779)	(1,128,779)	(1,128,77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2,399	675,591	758,981
이익잉여금	36,894,636	32,018,889	27,437,477
자본총계	41,952,211	37,019,656	32,521,634
부채와자본총계	57,714,177	53,945,929	50,236,010

손익계산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매출액	41,691,171	43,162,401	42,774,077
매출원가	31,964,124	32,805,374	31,937,192
매출총이익	9,727,047	10,357,027	10,836,885
판매비와 관리비	6,006,039	6,051,803	6,138,474
영업이익	3,721,008	4,305,224	4,698,41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465,479	175,706	186,835
금융수익	2,095,161	1,979,435	1,267,346
금융비용	154,869	239,182	362,302
기타수익	556,120	628,418	569,190
기타비용	359,533	463,173	476,48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323,366	6,386,428	5,882,995
법인세비용	1,141,820	1,106,919	1,131,498
당기순이익	5,181,546	5,279,509	4,751,49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9,065	19,426	17,495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9,065	19,426	17,495

포괄손익계산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당기순이익	5,181,546	5,279,509	4,751,497
기타포괄손익	271,842	(301,382)	(234,36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15,034	(217,992)	(139,899)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6,061)	(10,6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5,034	(211,931)	(129,28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6,808	(83,390)	(94,465)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56,808	(82,160)	(91,019)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1,230)	(3,446)
총포괄이익	5,453,388	4,978,127	4,517,133

자본변동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1.01.01 (기초자본)	1,488,993	3,770,003	(918,214)	853,446	23,238,106	28,432,334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10,611)	(10,611)
연차배당					(412,227)	(412,227)
자기주식취득			(400,137)			(400,137)
자기주식처분		194,959	189,572			384,53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1,019)		(91,019)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3,446)		(3,44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9,288)	(129,288)
당기순이익					4,751,497	4,751,497
2011.12.31 (기말자본)	1,488,993	3,964,962	(1,128,779)	758,981	27,437,477	32,521,634
2012.01.01 (기초자본)	1,488,993	3,964,962	(1,128,779)	758,981	27,437,477	32,521,634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6,061)	(6,061)
연차배당					(480,105)	(480,105)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처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82,160)		(82,160)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1,230)		(1,23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1,931)	(211,931)
당기순이익					5,279,509	5,279,509
2012.12.31 (기말자본)	1,488,993	3,964,962	(1,128,779)	675,591	32,018,889	37,019,656
2013.01.01 (기초자본)	1,488,993	3,964,962	(1,128,779)	675,591	32,018,889	37,019,656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연차배당					(520,833)	(520,833)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처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56,808		56,808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5,034	215,034
당기순이익					5,181,546	5,181,546
2013.12.31 (기말자본)	1,488,993	3,964,962	(1,128,779)	732,399	36,894,636	41,952,211

현금흐름표

제 4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4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6 기	제 45 기	제 44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94,874	7,140,705	6,470,652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5,406,783	6,809,016	6,558,006
(1) 당기순이익	5,181,546	5,279,509	4,751,497
(2) 조정	1,259,494	1,629,519	2,952,858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034,257)	(100,012)	(1,146,349)
2. 이자의 수취	509,287	386,851	338,961
3. 이자의 지급	(13,417)	(75,922)	(145,608)
4. 배당금의 수취	1,567,860	1,366,742	793,343
5. 법인세의 지급	(1,075,639)	(1,345,982)	(1,074,0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674,141)	(5,866,345)	(6,189,314)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423,238	(1,741,379)	(219,353)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278	22,710	4,152
기타채권의 감소	37,162	60,870	364,904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5
유형자산의 처분	23,961	19,829	22,008
무형자산의 처분	1,549	41	5,620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241,806	139,47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4,352)	(19,926)	(37,087)
기타채권의 증가	(39,856)	(69,304)	(380,635)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820,000)	(1,160,000)	(5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815,758)	(1,657,256)	(1,425,340)
무형자산의 취득	(768,756)	(631,529)	(625,526)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704,607)	(932,207)	(3,537,53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72,965)	(1,390,112)	(543,355)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750,509)	(508,047)	621,751

사채의 발행			298,697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	(201,623)	(401,960)	(651,439)
자기주식의 취득			(400,137)
배당금의 지급	(520,833)	(480,105)	(412,227)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752,232)	(115,752)	(262,01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395,068	1,510,820	1,772,83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42,836	1,395,068	1,510,820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46기	매출채권	3,579,248	45,934	1.3%
	미수수익	379,896	16,544	4.4%
	선급금	701,199	657	0.1%
	미수금	2,499,912	6,603	0.3%
	금융업채권	41,934,360	823,408	2.0%
	합 계	49,094,615	893,146	1.8%
제45기	매출채권	3,764,880	29,543	0.8%
	미수수익	420,093	16,119	3.8%
	선급금	517,548	5	0.0%
	미수금	2,220,752	5,241	0.2%
	금융업채권	40,510,700	749,166	1.8%
	합 계	47,433,973	800,074	1.7%
제44기	매출채권	3,968,491	40,346	1.0%
	미수수익	326,086	15,800	4.8%
	선급금	387,121	5	0.0%
	미수금	2,112,300	4,176	0.2%
	금융업채권	38,184,297	729,047	1.9%
	합 계	44,978,295	789,374	1.8%

※ 채권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금액임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6기	제45기	제4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800,074	789,374	658,236
2. 순대손처리액(① - ② ± ③)	457,102	358,171	254,835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482,057	430,436	328,326
② 상각채권회수액	141,440	133,039	137,108
③ 기타증감액	116,485	60,774	63,617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50,174	368,871	385,973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893,146	800,074	789,374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의 방법으로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중요성의 원칙에 의거 실제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사건 발생시에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계
금액	3,448,726	63,639	39,648	27,235	3,579,248
구성비율	96.3%	1.8%	1.1%	0.8%	100%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4.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46기	제45기	제44기	비고
자동차 부문	제품	3,674,372	3,374,876	3,233,130	
	상품	102,994	292,432	242,583	
	반제품	401,154	347,835	322,747	
	재공품	397,982	336,740	291,506	
	원재료	881,745	899,746	859,186	
	저장품	199,947	163,954	172,975	
	미착품	495,093	490,945	388,702	
	기타	435,460	408,697	407,128	
	소 계	6,588,747	6,315,226	5,917,957	
금융 부문	제품	-	-	-	
	상품	-	-	-	
	반제품	-	-	-	
	재공품	-	-	-	
	원재료	-	-	-	

	저장품	-	-	-	
	미착품	-	-	-	
	기타	31,971	15,905	12,667	
	소 계	31,971	15,905	12,667	
기 타	제품	97,116	101,993	60,143	
	상품	2,391	2,443	-	
	반제품	33,680	34,599	10,145	
	재공품	12,042	31,156	13,452	
	원재료	256,871	211,018	191,175	
	저장품	4,710	6,782	220	
	미착품	45,573	53,743	31,899	
	기타	15	-	94	
	소 계	452,398	441,733	307,128	
합 계	제품	3,771,488	3,476,869	3,293,273	
	상품	105,385	294,875	242,583	
	반제품	434,834	382,434	332,892	
	재공품	410,024	367,896	304,958	
	원재료	1,138,616	1,110,764	1,050,361	
	저장품	204,657	170,736	173,195	
	미착품	540,666	544,688	420,601	
	기타	467,446	424,602	419,889	
	소 계	7,073,116	6,772,864	6,237,75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5.3%	5.6%	5.7%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0회	10회	10회	

※ 재고미실현 소거 기준임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실사일자 2014년 1월 2일)

12월말 장부상 재고에 1월분 입고 및 불출을 가감하여 실사 당일의 재고수량과 비교하였으며, 실사결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 수량은 기말 장부상 재고자산수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사시 당사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장기체화재고는 없습니다.

5. 기업어음증권 발행현황

(1)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 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06	63,318	0.27	A-2 (S&P) // P-2 (Moody's)	2013.08.13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13	52,765	0.27	A-2 (S&P) // P-2 (Moody's)	2013.08.20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15	52,765	0.30	A-2 (S&P) // P-2 (Moody's)	2013.09.16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0	52,765	0.27	A-2 (S&P) // P-2 (Moody's)	2013.08.27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7	52,765	0.26	A-2 (S&P) // P-2 (Moody's)	2013.09.03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03	52,765	0.26	A-2 (S&P) // P-2 (Moody's)	2013.09.10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03	52,765	0.30	A-2 (S&P) // P-2 (Moody's)	2013.10.03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0	52,765	0.30	A-2 (S&P) // P-2 (Moody's)	2013.10.10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0	52,765	0.33	A-2 (S&P) // P-2 (Moody's)	2013.11.08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6	52,765	0.38	A-2 (S&P) // P-2 (Moody's)	2013.12.12	상환	Barclays, Citi,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3	26,383	0.25	A-2 (S&P) // P-2 (Moody's)	2013.11.04	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3	26,383	0.30	A-2 (S&P) // P-2 (Moody's)	2014.01.03	미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3	26,383	0.25	A-2 (S&P) // P-2 (Moody's)	2013.11.04	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3	26,383	0.30	A-2 (S&P) // P-2 (Moody's)	2014.01.03	미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9	52,765	0.31	A-2 (S&P) // P-2 (Moody's)	2014.01.07	미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9	52,765	0.20	A-2 (S&P) // P-2 (Moody's)	2013.10.10	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0	5,277	0.31	A-2 (S&P) // P-2 (Moody's)	2013.12.23	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0	52,765	0.36	A-2 (S&P) // P-2 (Moody's)	2014.01.13	미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0	6,332	0.22	A-2 (S&P) // P-2 (Moody's)	2013.10.18	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0	46,433	0.41	A-2 (S&P) // P-2 (Moody's)	2014.02.05	미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0	52,765	0.41	A-2 (S&P) // P-2 (Moody's)	2014.02.06	미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5	47,489	0.25	A-2 (S&P) // P-2 (Moody's)	2013.10.16	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5	52,765	0.26	A-2 (S&P) // P-2 (Moody's)	2013.10.16	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6	45,088	0.32	A-2 (S&P) // P-2 (Moody's)	2013.11.15	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6	26,383	0.42	A-2 (S&P) // P-2 (Moody's)	2014.01.14	미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8	35,115	0.25	A-2 (S&P) // P-2 (Moody's)	2013.11.01	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01	24,562	0.33	A-2 (S&P) // P-2 (Moody's)	2014.02.03	미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01	10,553	0.33	A-2 (S&P) // P-2 (Moody's)	2014.01.30	미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04	52,765	0.33	A-2 (S&P) // P-2 (Moody's)	2014.02.04	미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08	52,765	0.23	A-2 (S&P) // P-2 (Moody's)	2013.12.09	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15	45,088	0.19	A-2 (S&P) // P-2 (Moody's)	2013.11.22	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22	21,317	0.18	A-2 (S&P) // P-2 (Moody's)	2013.12.02	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22	23,771	0.17	A-2 (S&P) // P-2 (Moody's)	2013.11.25	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25	23,771	0.16	A-2 (S&P) // P-2 (Moody's)	2013.11.27	상환	JP Morgan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27	23,771	0.24	A-2 (S&P) // P-2 (Moody's)	2014.01.10	미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02	21,317	0.29	A-2 (S&P) // P-2 (Moody's)	2014.03.03	미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09	52,765	0.39	A-2 (S&P) // P-2 (Moody's)	2014.06.12	미상환	Citi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12	52,765	0.38	A-2 (S&P) // P-2 (Moody's)	2014.06.10	미상환	Barclays
HCA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23	5,277	0.23	A-2 (S&P) // P-2 (Moody's)	2014.01.23	미상환	Barclays
HCA	회사채	공모	2010.10.06	527,650	3.75	-	2016.04.06	미상환	Barclay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1.27	240,608	0.32	-	2012.02.15	상환	RB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1.27	277,544	0.69	-	2013.11.15	상환	RB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1.27	260,659	1.16	-	2015.04.15	미상환	RB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1.27	123,048	1.78	-	2015.12.15	미상환	RB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1.27	35,912	2.45	-	2016.04.15	미상환	RB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1.27	33,928	3.00	-	2017.06.15	미상환	RB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5.18	215,281	0.25	-	2012.05.15	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5.18	330,309	0.59	-	2014.03.17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5.18	292,318	1.04	-	2015.09.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5.18	116,136	1.65	-	2017.02.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5.18	38,371	2.27	-	2017.02.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5.18	36,239	2.86	-	2017.03.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05.18	26,646	3.51	-	2017.11.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10.05	242,719	0.34	-	2012.10.15	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10.05	332,420	0.62	-	2014.07.15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10.05	284,931	0.83	-	2015.12.15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10.05	199,726	1.30	-	2018.02.15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1.12.08	527,650	4.00	-	2017.06.08	미상환	BNP Paribas,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3.07	349,304	0.30	-	2013.03.15	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3.07	330,309	0.55	-	2014.06.16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3.07	474,885	0.72	-	2016.03.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3.07	176,214	0.95	-	2016.12.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3.07	26,646	1.51	-	2017.12.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3.07	41,041	2.10	-	2017.06.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3.07	30,963	2.61	-	2018.05.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7.19	359,857	0.29	-	2013.07.15	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7.19	411,567	0.54	-	2015.01.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7.19	494,936	0.62	-	2016.09.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7.19	192,001	0.81	-	2018.03.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7.19	29,200	1.39	-	2018.03.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07.19	44,977	1.95	-	2018.10.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10.17	355,636	0.23	-	2013.10.15	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10.17	526,595	0.40	-	2015.08.17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10.17	475,940	0.53	-	2017.04.17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10.17	159,435	0.73	-	2018.06.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10.17	30,382	1.06	-	2018.06.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2.10.17	46,813	1.42	-	2019.02.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1.30	364,079	0.20	-	2014.02.18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1.30	512,876	0.40	-	2015.12.15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1.30	445,337	0.56	-	2017.07.17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1.30	172,225	0.75	-	2018.09.17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1.30	29,918	1.13	-	2018.09.17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1.30	46,096	1.35	-	2019.06.17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6.12	480,162	0.53	-	2016.03.15	미상환	Credit Suisse,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6.12	454,834	0.71	-	2017.09.15	미상환	Credit Suisse,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6.12	176,963	1.01	-	2019.02.15	미상환	Credit Suisse,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6.12	28,778	1.45	-	2019.02.15	미상환	Credit Suisse,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6.12	43,151	1.71	-	2019.02.15	미상환	Credit Suisse,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6.12	35,152	2.48	-	2019.09.16	미상환	Credit Suisse,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6.12	367,244	0.25	-	2014.07.15	미상환	Credit Suisse,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9.06	263,825	0.22	-	2014.09.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9.06	432,673	0.57	-	2016.06.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9.06	442,171	1.01	-	2018.02.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9.06	125,190	1.55	-	2019.03.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9.06	24,578	2.10	-	2019.03.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9.06	36,872	2.48	-	2019.03.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공모	2013.09.06	30,044	3.09	-	2020.01.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사모	2011.08.10	149,853	0.31	-	2012.08.15	상환	RBS, etc
HCA	회사채	사모	2011.08.10	155,129	0.69	-	2013.11.15	상환	RBS, etc
HCA	회사채	사모	2011.08.10	283,876	1.02	-	2014.08.15	미상환	RBS, etc

HCA	회사채	사모	2011.08.10	53,440	1.12	-	2016.11.15	미상환	ABS, etc
HCA	회사채	사모	2012.06.20	168,848	0.38	-	2013.06.17	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사모	2012.06.20	284,931	0.68	-	2015.01.15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사모	2012.06.20	332,420	0.92	-	2015.08.17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사모	2012.06.20	59,427	1.05	-	2017.04.17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사모	2012.10.01	527,650	1.63	-	2015.10.02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사모	2012.10.01	527,650	2.13	-	2017.10.02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3.07	153,019	0.23	-	2014.03.17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3.07	342,973	0.51	-	2015.09.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3.07	341,917	0.66	-	2016.06.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3.07	79,677	0.77	-	2016.10.17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3.07	37,889	0.96	-	2017.08.15	미상환	J.P. Morgan,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5.22	485,438	0.54	-	2018.05.15	미상환	Barclays,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5.22	54,876	0.84	-	2018.05.15	미상환	Barclays,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8.01	88,540	1.17	-	2017.08.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8.01	142,466	0.25	-	2014.08.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8.01	296,434	0.75	-	2016.03.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8.01	269,313	0.98	-	2016.10.17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8.01	32,901	1.42	-	2017.11.15	미상환	Bank of America,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8.09	527,650	1.88	BBB+	2016.08.09	미상환	Citi, etc
HCA	회사채	사모	2013.08.09	527,650	2.88	BBB+	2018.08.09	미상환	Citi, etc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1.13	50,000	3.08	A2(한기평외)	2011.02.14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1.19	40,000	3.05	A2(한기평외)	2011.01.28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2.14	30,000	3.38	A2(한기평외)	2011.03.16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2.17	50,000	3.44	A2(한기평외)	2011.03.18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3.14	30,000	3.57	A2(한기평외)	2011.04.14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4.14	30,000	3.50	A2(한기평외)	2011.05.16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5.09	50,000	3.58	A2(한기평외)	2011.06.0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5.16	50,000	3.52	A2(한기평외)	2011.06.15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5.19	30,000	3.48	A2(한기평외)	2011.06.20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6.09	50,000	3.53	A2(한기평외)	2011.07.11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6.20	30,000	3.73	A2(한기평외)	2011.07.20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7.11	50,000	3.82	A2(한기평외)	2011.08.12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7.20	30,000	3.72	A2(한기평외)	2011.08.1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8.12	50,000	3.99	A2(한기평외)	2011.11.11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8.19	30,000	3.69	A2(한기평외)	2011.09.1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09.19	30,000	3.67	A2(한기평외)	2011.10.20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11.11	50,000	3.66	A2(한기평외)	2011.12.12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1.12.12	50,000	3.66	A2(한기평외)	2011.12.27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1.19	30,000	3.64	A2(한기평외)	2012.02.17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2.15	20,000	3.37	A2(한기평외)	2011.03.14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2.17	50,000	3.73	A2(한기평외)	2012.08.17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2.17	50,000	3.83	A2(한기평외)	2012.11.16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3.26	40,000	3.85	A2(한기평외)	2012.04.26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5.04	20,000	3.63	A2(한기평외)	2012.06.04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5.04	30,000	3.66	A2(한기평외)	2012.08.03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6.04	20,000	3.63	A2(한기평외)	2012.06.28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6.19	40,000	3.57	A2(한기평외)	2012.07.1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7.19	70,000	3.32	A2(한기평외)	2012.09.26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8.17	40,000	3.28	A2(한기평외)	2012.09.17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8.17	50,000	3.19	A2(한기평외)	2012.10.30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9.17	40,000	3.28	A2(한기평외)	2012.10.17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09.26	50,000	3.35	A2+(한기평외)	2012.10.2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10.17	40,000	3.07	A2+(한기평외)	2012.11.16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10.29	50,000	3.07	A2+(한기평외)	2012.11.2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10.30	50,000	3.08	A2+(한기평외)	2012.12.14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11.16	50,000	3.05	A2+(한기평외)	2012.12.28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11.16	40,000	3.07	A2+(한기평외)	2012.12.28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2.11.29	50,000	3.05	A2+(한기평외)	2012.12.31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3.01.09	100,000	3.12	A2+(한기평외)	2013.07.0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3.01.28	40,000	3.06	A2+(한기평외)	2013.06.28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3.01.28	20,000	3.06	A2+(한기평외)	2013.07.2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3.03.19	40,000	2.96	A2+(한기평외)	2013.12.19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3.07.09	60,000	2.92	A2+(한기평외)	2013.12.18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3.07.09	80,000	2.90	A2+(한기평외)	2013.11.13	상환	-
현대로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13.07.29	40,000	2.82	A2+(한기평외)	2013.10.29	상환	-
현대자동차	회사채	공모	2011.10.06	300,000	4.05	AA+(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2016.10.06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12	50,000	3.00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1.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17	100,000	2.9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1.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0	50,000	2.9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1.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14	50,000	3.24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2.28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17	100,000	3.1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2.28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0	3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2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0	3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2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1	24,000	3.6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13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1	2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1	2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5	100,000	3.30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3.28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7	100,000	3.30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3.28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8	30,000	3.6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7.19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8	50,000	3.54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3.28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8	20,000	3.4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7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8	10,000	3.4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7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8	10,000	3.4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7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8	20,000	3.4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7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8	10,000	3.4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7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2	30,000	3.5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21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2	20,000	3.5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21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2	10,000	3.5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21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2	10,000	3.3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4.21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2	10,000	3.3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4.21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2	10,000	3.3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4.21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14	100,000	3.30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4.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14	50,000	3.4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4.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18	100,000	3.30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4.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16	150,000	3.37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18	50,000	3.66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26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19	50,000	3.66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8.18	상환	-

[illegible]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16	10,000	2.69	A1(한신평/한기평)	2013.12.27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16	30,000	2.69	A1(한신평/한기평)	2013.12.27	상환	-
현대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16	20,000	2.69	A1(한신평/한기평)	2013.12.27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5.23	10,000	2.68	A1(한신평/한기평)	2013.05.28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6.07	10,000	2.68	A1(한신평/한기평)	2013.06.27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04	60,000	2.5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04	40,000	2.5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04	20,000	2.5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04	20,000	2.5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04	30,000	2.5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04	20,000	2.5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04	30,000	2.5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11.15	50,000	2.62	A1(한신평/한기평)	2013.11.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11.15	70,000	2.62	A1(한신평/한기평)	2013.11.26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12.16	50,000	2.69	A1(한신평/한기평)	2013.12.27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12.16	50,000	2.69	A1(한신평/한기평)	2013.12.27	상환	-
현대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12.16	10,000	2.69	A1(한신평/한기평)	2013.12.27	상환	-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1.11	50,000	3.90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2.07.11	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1.11	10,000	4.37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4.01.11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1.11	60,000	5.12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1.11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1.18	10,000	4.11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3.01.18	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1.18	50,000	5.09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1.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2.08	50,000	5.29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2.08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2.22	50,000	4.60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4.02.22	미상환	아이엠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2.22	20,000	5.17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2.22	미상환	한국SO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04	20,000	5.12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3.04	미상환	대신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08	30,000	4.60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4.03.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08	10,000	5.11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3.08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10	30,000	4.51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4.03.10	미상환	키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24	20,000	4.08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3.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24	30,000	5.40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8.03.24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25	10,000	4.87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3.25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25	10,000	5.49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8.03.25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28	20,000	4.88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3.28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29	20,000	3.92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2.03.29	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29	10,000	5.50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8.03.29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3.30	55,800	3M Libor+1.20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2.03.30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4.12	50,000	4.17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3.04.12	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5.02	20,000	4.22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2.11.02	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5.02	50,000	4.78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5.11.02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5.04	10,000	5.46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8.05.04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5.12	20,000	4.85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5.12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5.12	20,000	5.41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8.05.12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03	60,000	4.62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6.0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03	50,000	4.62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6.03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03	70,000	4.24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3.12.03	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03	20,000	4.93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7.06.03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09	20,000	4.66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6.09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09	30,000	4.58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6.06.09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09	20,000	4.24	AA+(한신평/한기평/한신평)	2014.06.09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20	50,000	3.96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2.06.20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6.20	30,000	3.96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2.06.20	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7.07	30,000	4.76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6.07.07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7.14	40,000	4.15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1.14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8.11	10,000	91일물 CD+0.72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8.11	미상환	메리츠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8.16	10,000	91일물 CD+0.76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8.16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8.17	30,000	91일물 CD+0.76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8.17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8.19	20,000	4.50	-	2016.08.19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8.22	30,000	91일물 CD+0.82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8.22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8.26	20,000	4.47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6.08.2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02	10,000	4.32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9.0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02	30,000	4.15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9.02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02	10,000	4.33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5.03.02	미상환	한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02	10,000	91일물 CD+0.51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3.02	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08	50,000	4.54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6.09.08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08	20,000	91일물 CD+0.61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3.08	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14	20,000	4.06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3.14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16	20,000	4.12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9.16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16	20,000	91일물 CD+0.70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3.15	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19	30,000	4.11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3.19	상환	메리츠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09.26	50,000	91일물 CD+0.92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3.26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0.05	58,700	4.33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12.20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1.11	10,000	4.16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5.1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1.11	70,000	4.02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5.11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05	50,000	4.05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12.22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08	60,000	3.77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2.08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08	30,000	3.89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4.01.08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08	10,000	4.75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8.12.08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09	70,000	3.81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5.09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09	50,000	3.84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3.08.09	상환	동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13	40,000	4.31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6.12.13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13	10,000	4.10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5.06.13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1.12.16	40,000	4.40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7.03.1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2.09	30,000	3.65	AA+(한신평/한기평)	2013.02.08	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2.10	57,000	4.03	AA+(한신평/한기평)	2015.03.23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3.06	30,000	3.75	AA+(한신평/한기평)	2013.09.06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3.06	40,000	3.96	AA+(한신평/한기평)	2014.09.06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3.19	30,000	4.70	AA+(한신평/한기평)	2019.03.19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5.22	58,000	3.65	AA+(한신평/한기평)	2015.06.23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07	40,000	91일물 CD+0.08	AA+(한신평/한기평)	2013.12.09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11	60,000	91일물 CD+0.33	AA+(한신평/한기평)	2015.09.11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14	10,000	3.82	AA+(한신평/한기평)	2017.06.14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14	30,000	3.67	AA+(한신평/한기평)	2016.03.14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14	20,000	91일물 CD+0.08	AA+(한신평/한기평)	2013.06.14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14	10,000	3.55	AA+(한신평/한기평)	2013.06.14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18	58,000	91일물 CD+0.33	AA+(한신평/한기평)	2015.09.22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22	10,000	91일물 CD+0.10	AA+(한신평/한기평)	2013.07.22	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22	10,000	91일물 CD+0.10	AA+(한신평/한기평)	2013.08.22	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22	50,000	91일물 CD+0.34	AA+(한신평/한기평)	2015.09.22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6.28	58,000	3.81	AA+(한신평/한기평)	2017.09.21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7.02	20,000	91일물 CD+0.11	AA+(한신평/한기평)	2013.07.0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7.03	20,000	4.15	AA+(한신평/한기평)	2019.07.03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7.24	50,000	91일물 CD+0.42	AA+(한신평/한기평)	2015.10.23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7.31	20,000	3.69	AA+(한신평/한기평)	2019.07.3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8.02	50,000	3.31	AA+(한신평/한기평)	2017.08.02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8.07	50,000	2.96	AA+(한신평/한기평)	2013.08.07	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08.09	20,000	91일물 CD+0.15	AA+(한신평/한기평)	2014.02.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0.08	50,000	3.13	AA+(한신평/한기평)	2014.10.08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0.17	70,000	91일물 CD+0.47	AA+(한신평/한기평)	2016.04.15	미상환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0.19	50,000	3.14	AA+(한신평/한기평)	2014.04.18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0.19	60,000	3.18	AA+(한신평/한기평)	2015.01.19	미상환	BS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0.22	40,000	3.20	AA+(한신평/한기평)	2015.10.22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0.29	40,000	3.13	AA+(한신평/한기평)	2015.10.29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1.06	10,000	91일물 CD+0.26	AA+(한신평/한기평)	2014.11.06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1.06	40,000	91일물 CD+0.13	AA+(한신평/한기평)	2013.11.06	상환	BS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1.12	10,000	91일물 CD+0.17	AA+(한신평/한기평)	2014.02.12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1.12	30,000	91일물 CD+0.20	AA+(한신평/한기평)	2014.05.12	미상환	이트레이드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1.21	30,000	3.24	AA+(한신평/한기평)	2018.02.21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1.27	10,000	3.12	AA+(한신평/한기평)	2015.11.27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1.27	10,000	3.23	AA+(한신평/한기평)	2017.11.27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2.06	40,000	3.32	AA+(한신평/한기평)	2017.12.06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2.12.06	10,000	3.16	AA+(한신평/한기평)	2015.12.06	미상환	NH농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1.21	53,000	3.16	AA+(한신평/한기평)	2018.04.02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1.29	53,000	3.16	AA+(한신평/한기평)	2018.05.29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3.07	50,000	2.95	AA+(한신평/한기평)	2017.03.07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3.07	60,000	2.95	AA+(한신평/한기평)	2017.03.07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4.04	50,000	2.77	AA+(한신평/한기평)	2017.04.04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5.07	60,000	91일물 CD+0.24	AA+(한신평/한기평)	2017.05.04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5.07	60,000	91일물 CD+0.19	AA+(한신평/한기평)	2015.11.06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5.13	60,000	91일물 CD+0.25	AA+(한신평/한기평)	2016.11.1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5.14	20,000	2.91	AA+(한신평/한기평)	2017.11.14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6.04	30,000	91일물 CD+0.26	AA+(한신평/한기평)	2016.12.02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6.07	20,000	3.10	AA+(한신평/한기평)	2016.09.07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6.12	40,000	91일물 CD+0.30	AA+(한신평/한기평)	2017.06.12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6.24	20,000	3.58	AA+(한신평/한기평)	2018.06.24	미상환	NH농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01	10,000	3.51	AA+(한신평/한기평)	2018.07.01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02	60,000	91일물 CD+0.35	AA+(한신평/한기평)	2016.07.01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02	50,000	91일물 CD+0.39	AA+(한신평/한기평)	2017.01.02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02	20,000	91일물 CD+0.41	AA+(한신평/한기평)	2017.06.30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04	50,000	91일물 CD+0.39	AA+(한신평/한기평)	2017.01.04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10	30,000	91일물 CD+0.39	AA+(한신평/한기평)	2017.01.10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16	50,000	3.54	AA+(한신평/한기평)	2018.07.16	미상환	신영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7.19	20,000	3.16	AA+(한신평/한기평)	2016.01.19	미상환	NH농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8.06	30,000	3.26	AA+(한신평/한기평)	2016.08.06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8.09	50,000	3.41	AA+(한신평/한기평)	2017.08.09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8.13	50,000	3.38	AA+(한신평/한기평)	2017.08.13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8.13	40,000	91일물 CD+0.35	AA+(한신평/한기평)	2018.08.13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8.21	50,000	3.58	AA+(한신평/한기평)	2018.09.21	미상환	NH농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8.22	60,000	3.13	AA+(한신평/한기평)	2016.02.22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8.22	20,000	3.34	AA+(한신평/한기평)	2017.02.22	미상환	NH농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09.02	35,000	91일물 CD+0.29	AA+(한신평/한기평)	2018.09.21	미상환	아이엠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01	60,000	91일물 CD+0.35	AA+(한신평/한기평)	2018.10.01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02	50,000	3.27	AA+(한신평/한기평)	2017.04.03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07	20,000	3.23	AA+(한신평/한기평)	2017.01.06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07	60,000	3.21	AA+(한신평/한기평)	2016.10.07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11	40,000	91일물 CD+0.30	AA+(한신평/한기평)	2016.10.1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14	20,000	91일물 CD+0.29	AA+(한신평/한기평)	2016.10.14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16	30,000	3.10	AA+(한신평/한기평)	2016.01.15	미상환	한화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16	10,000	3.52	AA+(한신평/한기평)	2018.10.16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21	50,000	3.23	AA+(한신평/한기평)	2017.01.20	미상환	대우증권,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28	30,000	3.02	AA+(한신평/한기평)	2015.10.28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28	50,000	3.19	AA+(한신평/한기평)	2016.11.28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29	20,000	3.73	AA+(한신평/한기평)	2020.10.29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31	30,000	3.17	AA+(한신평/한기평)	2016.10.31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0.31	30,000	3.05	AA+(한신평/한기평)	2016.01.29	미상환	SK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01	20,000	3.20	AA+(한신평/한기평)	2016.11.01	미상환	NH농협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01	30,000	91일물 CD+0.33	AA+(한신평/한기평)	2016.11.01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04	30,000	91일물 CD+0.43	AA+(한신평/한기평)	2018.11.02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07	30,000	3.27	AA+(한신평/한기평)	2016.11.07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11	20,000	3.68	AA+(한신평/한기평)	2019.11.1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13	20,000	3.65	AA+(한신평/한기평)	2018.11.13	미상환	한화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14	40,000	3.19	AA+(한신평/한기평)	2016.05.13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20	50,000	3.68	AA+(한신평/한기평)	2018.11.20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21	20,000	91일물 CD+0.49	AA+(한신평/한기평)	2018.11.21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21	20,000	91일물 CD+0.45	AA+(한신평/한기평)	2018.05.21	미상환	메리츠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27	70,000	3.53	AA+(한신평/한기평)	2017.11.27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1.28	50,000	3.71	AA+(한신평/한기평)	2018.11.28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04	20,000	3.85	AA+(한신평/한기평)	2019.06.0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04	30,000	3.79	AA+(한신평/한기평)	2018.12.04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05	30,000	3.80	AA+(한신평/한기평)	2018.12.05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06	20,000	3.82	AA+(한신평/한기평)	2018.12.06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10	30,000	3.40	AA+(한신평/한기평)	2017.01.10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10	20,000	3.47	AA+(한신평/한기평)	2017.06.09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10	10,000	3.76	AA+(한신평/한기평)	2018.12.10	미상환	BS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13	50,000	3.51	AA+(한신평/한기평)	2017.07.13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공모	2013.12.17	20,000	3.13	AA+(한신평/한기평)	2016.01.15	미상환	코리야에셋투자증권
현대카드	회사채	사모	2011.01.31	447,600	3.92	AAA(Moody's/Fitch)	2014.04.21	미상환	ING, Mizuho
현대카드	회사채	사모	2011.01.31	449,960	3.47	-	2015.07.20	미상환	BTMU
현대카드	회사채	사모	2011.12.08	30,000	4.95	AA+(한신평/한기평/한신정)	2012.12.0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6	2,000	2.8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3.0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6	100,000	3.8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4.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18	50,000	4.1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0	100,000	3.9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1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0	3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2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1	2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5.1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6	50,000	4.07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1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5	3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2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26	100,000	4.2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7.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19	50,000	4.46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8.1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30	100,000	4.8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6.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13	100,000	4.24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9.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16	50,000	4.24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9.1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28	100,000	4.97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7.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7.26	100,000	4.3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10.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7.28	100,000	4.9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8.2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19	50,000	4.5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11.1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29	100,000	4.9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09.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1	55,000	3.9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12.2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1	55,000	3.9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12.2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14	100,000	4.2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12.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16	50,000	4.2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12.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28	100,000	4.97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10.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04	100,000	4.1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4.04	미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26	100,000	4.02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1.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01	100,000	5.1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11.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18	50,000	4.55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2.17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8	100,000	5.1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1.12.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14	60,000	3.77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6.11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14	30,000	3.79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9.1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14	150,000	4.18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3.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28	100,000	5.11	A1(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1.3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26	90,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12.04.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26	10,000	3.63	A1(한신평/한기평)	2012.04.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30	100,000	5.10	A1(한신평/한기평)	2012.02.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7	50,000	4.52	A1(한신평/한기평)	2012.05.1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8	100,000	5.09	A1(한신평/한기평)	2012.03.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14	50,000	4.12	A1(한신평/한기평)	2012.05.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14	100,000	4.17	A1(한신평/한기평)	2012.06.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28	50,000	5.10	A1(한신평/한기평)	2012.04.27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02	50,000	5.10	A1(한신평/한기평)	2012.04.27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6	100,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12.07.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7	100,000	5.11	A1(한신평/한기평)	2012.05.2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14	50,000	4.17	A1(한신평/한기평)	2012.08.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18	50,000	4.54	A1(한신평/한기평)	2012.08.17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29	100,000	5.10	A1(한신평/한기평)	2012.06.2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14	100,000	4.17	A1(한신평/한기평)	2012.07.1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9	100,000	5.10	A1(한신평/한기평)	2012.07.3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13	100,000	3.77	A1(한신평/한기평)	2012.09.1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25	100,000	3.30	A1(한신평/한기평)	2012.07.31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30	100,000	4.80	A1(한신평/한기평)	2012.08.3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01	100,000	3.65	A1(한신평/한기평)	2012.10.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4	50,000	3.70	A1(한신평/한기평)	2012.11.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7	50,000	4.21	A1(한신평/한기평)	2012.11.1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30	100,000	4.79	A1(한신평/한기평)	2012.09.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13	100,000	3.65	A1(한신평/한기평)	2012.12.1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0	30,000	3.20	A1(한신평/한기평)	2012.10.0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0	30,000	3.20	A1(한신평/한기평)	2012.10.0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1	10,000	3.20	A1(한신평/한기평)	2012.10.0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1	10,000	3.20	A1(한신평/한기평)	2012.10.0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1	10,000	3.20	A1(한신평/한기평)	2012.10.0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1	10,000	3.20	A1(한신평/한기평)	2012.10.0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8	100,000	4.75	A1(한신평/한기평)	2012.10.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25	100,000	3.16	A1(한신평/한기평)	2012.10.31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31	50,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12.11.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1	100,000	3.15	A1(한신평/한기평)	2013.01.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14	50,000	3.35	A1(한신평/한기평)	2012.11.3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19	50,000	3.85	A1(한신평/한기평)	2012.11.3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26	50,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12.12.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03	50,000	3.85	A1(한신평/한기평)	2013.02.1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03	50,000	3.35	A1(한신평/한기평)	2013.02.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12	30,000	2.98	A1(한신평/한기평)	2013.01.10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13	100,000	3.39	A1(한신평/한기평)	2013.03.1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26	50,000	3.96	A1(한신평/한기평)	2013.01.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25	100,000	3.14	A1(한신평/한기평)	2013.04.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25	50,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13.02.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14	50,000	3.34	A1(한신평/한기평)	2013.05.1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19	50,000	3.83	A1(한신평/한기평)	2013.05.1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25	50,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13.03.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13	100,000	3.31	A1(한신평/한기평)	2013.03.2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25	50,000	3.83	A1(한신평/한기평)	2013.04.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29	100,000	3.31	A1(한신평/한기평)	2013.06.1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25	50,000	3.82	A1(한신평/한기평)	2013.05.2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25	100,000	3.09	A1(한신평/한기평)	2013.07.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14	50,000	3.19	A1(한신평/한기평)	2013.06.28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16	50,000	3.69	A1(한신평/한기평)	2013.08.19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24	50,000	3.64	A1(한신평/한기평)	2013.06.2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4	50,000	3.63	A1(한신평/한기평)	2013.07.2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6	10,000	2.75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6	20,000	2.75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6	10,000	2.75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6	10,000	2.75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6	20,000	2.75	A1(한신평/한기평)	2013.07.26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24	50,000	3.62	A1(한신평/한기평)	2013.08.2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25	100,000	2.96	A1(한신평/한기평)	2013.10.24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3	50,000	3.62	A1(한신평/한기평)	2013.09.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8	50,000	3.16	A1(한신평/한기평)	2013.11.1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25	50,000	3.62	A1(한신평/한기평)	2013.10.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24	100,000	2.96	A1(한신평/한기평)	2014.01.24	미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25	50,000	3.62	A1(한신평/한기평)	2013.11.25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15	50,000	3.15	A1(한신평/한기평)	2014.02.14	미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25	50,000	3.62	A1(한신평/한기평)	2013.12.23	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23	50,000	3.62	A1(한신평/한기평)	2014.01.23	미상환	-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30	20,000	2.95	A1(한신평/한기평)	2014.02.28	미상환	-
현대캐피탈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31	10,000	2.70	A1(한신평/한기평)	2013.08.28	상환	-
현대캐피탈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3.07.31	20,000	2.70	A1(한신평/한기평)	2013.08.30	상환	-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1.06	10,000	4.3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1.0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1.06	30,000	5.5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1.06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1.13	10,000	5.5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1.13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1.14	30,000	5.6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1.14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1.27	789,600	4.38	Baa2/BBB+(Moody's/S&P)	2016.07.27	미상환	ING,JP Morgan, Morgan Stanley,RBS,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01	80,000	4.2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2.01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01	20,000	4.64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2.0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01	30,000	4.9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5.02.0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01	10,000	5.2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2.01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08	50,000	5.2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2.08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09	10,000	5.3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2.09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11	50,000	4.7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8.11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14	10,000	4.1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2.14	상환	키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14	70,000	5.25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2.14	미상환	교보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17	10,000	4.5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2.17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17	10,000	4.9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5.02.17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17	50,000	5.2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2.17	미상환	키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17	20,000	5.7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2.17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21	10,000	5.5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7.02.2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25	10,000	5.5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2.25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2.25	20,000	5.7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2.25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03	20,000	4.14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10.03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03	10,000	5.4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7.03.03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10	30,000	4.5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3.10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10	30,000	5.54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3.10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15	10,000	3.9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9.15	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15	20,000	4.3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3.15	미상환	교보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15	20,000	4.7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3.15	미상환	교보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18	10,000	5.45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3.18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21	10,000	5.4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3.2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22	10,000	5.4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3.22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3.31	10,000	4.7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5.03.31	미상환	한양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06	10,000	5.4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4.06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07	10,000	4.4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4.07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07	80,000	4.8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4.07	미상환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12	20,000	4.1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10.12	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12	50,000	4.9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4.12	미상환	키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12	20,000	5.5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4.12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14	27,313	2.74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4.14	상환	산업은행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15	5,000	5.5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4.15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18	50,000	4.1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10.18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18	50,000	4.84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6.22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25	20,000	4.24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4.25	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25	10,000	4.5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4.25	미상환	KT&T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25	10,000	5.3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4.25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25	10,000	5.0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4.25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25	10,000	5.5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4.25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27	108,400	1.3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4.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4.29	194,400	USD 3M Libor+1.4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4.29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5.02	20,000	5.3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5.02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5.09	10,000	4.2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11.09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5.19	50,000	4.74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6.20	미상환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5.25	235,484	4.15	BBB+/AAA(S&P/AM)	2013.11.25	상환	Am Investement Bank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5.27	186,000	2.00	Baa2/BBB+(Moody's/S&P)	2013.11.27	상환	BNP Paribas, UBS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5.27	186,000	3.00	Baa2/BBB+(Moody's/S&P)	2016.05.27	미상환	BNP Paribas, UBS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6.03	10,000	4.3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12.03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6.07	30,000	4.2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6.07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6.07	40,000	4.6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6.07	미상환	한양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6.09	40,000	4.8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7.04.09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6.15	50,000	4.7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6.21	미상환	한화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6.23	100,000	4.0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6.23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04	50,000	4.1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1.04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07	70,000	4.9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7.07.07	미상환	교보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11	10,000	4.4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1.1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11	10,000	4.9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7.07.11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11	20,000	4.9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7.01.11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21	20,000	5.0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7.2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21	10,000	5.1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7.2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22	10,000	4.35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1.22	미상환	키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27	20,000	5.15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7.27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28	10,000	4.69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7.28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7.29	10,000	4.4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7.29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04	50,000	4.2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8.04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10	50,000	3.9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08.10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11	10,000	4.43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8.1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17	50,000	91일물 CD+0.7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8.17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18	30,000	91일물 CD+0.9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8.18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18	30,000	91일물 CD+0.75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8.18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25	50,000	91일물 CD+0.8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2.25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26	20,000	4.4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8.26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8.29	25,000	4.4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3.20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9.08	53,000	4.4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10.06	미상환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9.09	10,000	4.7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09.09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9.15	54,000	4.2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9.22	미상환	아이엠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9.19	30,000	4.11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3.19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9.19	20,000	4.1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9.19	상환	하이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9.26	50,000	91일물 CD+0.9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3.26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09.29	50,000	4.6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09.29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04	20,000	5.12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10.04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06	30,000	4.1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1.06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06	20,000	4.4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5.10.0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06	20,000	4.5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10.06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10	50,000	4.3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05.10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10	10,000	4.9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10.10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13	10,000	4.95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8.10.13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0.18	20,000	4.46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4.12.1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1.03	50,000	4.2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5.03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1.10	300,000	4.26	AAA(한신평/한기평)	2015.12.18	미상환	대우증권, 산업은행, HMC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2.08	50,000	3.80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3.05.08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2.09	50,000	91일물 CD+0.77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5.06.09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1.12.12	50,000	4.28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6.12.12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05	70,000	3.84	AA+(한신평/한기평)	2013.01.04	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05	70,000	3.90	AA+(한신평/한기평)	2013.07.05	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05	20,000	4.64	AA+(한신평/한기평)	2019.01.05	미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05	10,000	4.72	AA+(한신평/한기평)	2019.01.05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10	20,000	3.96	AA+(한신평/한기평)	2014.01.10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10	50,000	91일물 CD+0.75	AA+(한신평/한기평)	2015.01.10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12	50,000	3.80	AA+(한신평/한기평)	2013.01.11	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18	50,000	3.76	AA+(한신평/한기평)	2013.01.18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18	58,000	3.82	AA+(한신평/한기평)	2015.03.23	미상환	IBK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1.31	22,500	4.20	AA+(한신평/한기평)	2016.12.21	미상환	한화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2.15	243,400	2.50	Baa2/BBB+(Moody's/S&P)	2017.02.15	미상환	BNP Paribas, UBS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2.17	50,000	91일물 CD+0.28	AA+(한신평/한기평)	2013.08.16	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2.23	118,912	4.20	AA+(한신평/한기평)	2017.02.23	미상환	스탠다드차타드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2.29	112,400	USD 3M Libor+1.70	-	2015.02.27	미상환	DBS, BNS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3.13	566,000	3.50	AA+(한신평/한기평)	2017.09.13	미상환	BNP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04	20,000	3.59	AA+(한신평/한기평)	2013.05.04	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04	20,000	3.62	AA+(한신평/한기평)	2013.11.04	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04	10,000	3.64	AA+(한신평/한기평)	2014.05.04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04	50,000	3.75	AA+(한신평/한기평)	2015.06.22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08	20,000	3.56	AA+(한신평/한기평)	2013.05.08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08	10,000	3.57	AA+(한신평/한기평)	2013.11.08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08	20,000	3.59	AA+(한신평/한기평)	2014.05.08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11	20,000	3.56	AA+(한신평/한기평)	2013.05.11	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11	10,000	3.57	AA+(한신평/한기평)	2013.09.11	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11	20,000	3.58	AA+(한신평/한기평)	2013.11.11	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23	50,000	3.54	AA+(한신평/한기평)	2013.05.23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5.25	137,982	4.00	BBB+/AAA(S&P/RAM)	2015.05.25	미상환	Deutsche Bank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6.07	100,000	91일물 CD+0.08	AA+(한신평/한기평)	2013.06.07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6.13	81,690	USD 6M Libor + 1.70	-	2015.06.13	미상환	Mizuho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6.15	50,000	3.57	AA+(한신평/한기평)	2015.02.16	미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6.15	30,000	91일물 CD+0.33	AA+(한신평/한기평)	2015.06.15	미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05	100,000	91일물 CD+0.11	AA+(한신평/한기평)	2013.07.05	상환	대우증권,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10	110,000	91일물 CD+0.34	AA+(한신평/한기평)	2015.07.10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12	80,000	91일물 CD+0.16	AA+(한신평/한기평)	2014.01.10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12	60,000	91일물 CD+0.34	AA+(한신평/한기평)	2015.07.10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20	57,000	3.44	AA+(한신평/한기평)	2017.09.22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20	57,000	3.44	AA+(한신평/한기평)	2017.09.22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23	20,000	91일물 CD+0.36	AA+(한신평/한기평)	2015.01.23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23	30,000	91일물 CD+0.44	AA+(한신평/한기평)	2016.01.22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7.30	50,000	3.16	AA+(한신평/한기평)	2015.07.30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8.01	100,000	3.06	AA+(한신평/한기평)	2014.05.0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8.07	120,000	2.96	AA+(한신평/한기평)	2013.08.07	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8.09	10,000	91일물 CD+0.31	AA+(한신평/한기평)	2015.02.09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8.09	30,000	91일물 CD+0.32	AA+(한신평/한기평)	2015.05.08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8.09	40,000	91일물 CD+0.33	AA+(한신평/한기평)	2015.08.07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9.04	80,000	3.00	BBB+(S&P)	2014.03.04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9.04	89,100	3.25	AA+(한신평/한기평)	2014.03.04	미상환	ANZ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9.12	70,000	91일물 CD+0.33	AA+(한신평/한기평)	2015.09.11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9.20	110,000	91일물 CD+0.13	AA+(한신평/한기평)	2013.09.17	상환	대우증권,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9.20	60,000	91일물 CD+0.39	AA+(한신평/한기평)	2017.09.20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9.21	50,000	91일물 CD+0.20	AA+(한신평/한기평)	2014.03.21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09.26	33,500	3.26	AA+(한신평/한기평)	2017.09.21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11.14	272,000	0.77	BBB+/A+(S&P/JCR)	2014.05.14	미상환	BoA ML,Mizuho,MUMSS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11.14	108,800	0.87	BBB+/A+(S&P/JCR)	2014.11.14	미상환	BoA ML,Mizuho,MUMSS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12.11	50,000	91일물 CD+0.35	AA+(한신평/한기평)	2015.12.11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12.24	40,000	3.23	AA+(한신평/한기평)	2015.12.24	미상환	이트레이드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12.24	70,000	91일물 CD+0.37	AA+(한신평/한기평)	2015.12.24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2.12.24	30,000	91일물 CD+0.42	AA+(한신평/한기평)	2016.12.23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04	50,000	3.31	AA+(한신평/한기평)	2018.03.20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04	53,000	3.31	AA+(한신평/한기평)	2018.03.21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08	50,000	3.29	AA+(한신평/한기평)	2018.04.02	미상환	한국SC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10	53,000	3.25	AA+(한신평/한기평)	2018.04.02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17	53,000	3.17	AA+(한신평/한기평)	2018.04.03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17	20,000	3.45	AA+(한신평/한기평)	2020.01.17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23	53,000	3.16	AA+(한신평/한기평)	2018.04.02	미상환	IBK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28	20,000	2.98	AA+(한신평/한기평)	2016.01.28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1.28	20,000	3.39	AA+(한신평/한기평)	2020.01.28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07	50,000	91일물 CD+0.21	AA+(한신평/한기평)	2016.08.05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08	54,000	3.08	AA+(한신평/한기평)	2018.03.2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14	53,000	3.11	AA+(한신평/한기평)	2018.05.02	미상환	한화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18	38,000	3.07	AA+(한신평/한기평)	2018.05.02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18	40,000	3.38	AA+(한신평/한기평)	2020.02.18	미상환	한양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21	20,000	3.01	AA+(한신평/한기평)	2017.02.21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22	60,000	3.02	AA+(한신평/한기평)	2018.02.22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2.25	20,000	3.35	AA+(한신평/한기평)	2020.02.25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3.20	30,000	3.19	AA+(한신평/한기평)	2020.03.20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3.22	20,000	3.19	AA+(한신평/한기평)	2020.03.22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4.09	80,000	2.75	AA+(한신평/한기평)	2017.01.0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4.11	70,000	91일물 CD+0.21	AA+(한신평/한기평)	2016.10.11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4.17	60,000	91일물 CD+0.24	AA+(한신평/한기평)	2017.04.17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4.18	113,000	2.89	AA+(한신평/한기평)	2018.06.21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4.26	50,000	2.78	AA+(한신평/한기평)	2015.04.24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5.16	139,144	BBSW+1.50	BBB+(S&P)	2017.05.16	미상환	ANZ, Citi, HSBC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5.16	139,144	4.29	BBB+(S&P)	2017.05.16	미상환	ANZ, Citi, HSBC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6.04	10,000	91일물 CD+0.26	AA+(한신평/한기평)	2018.06.04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6.04	10,000	3.05	AA+(한신평/한기평)	2016.12.02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6.07	20,000	3.10	AA+(한신평/한기평)	2016.09.0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6.07	300,000	3.02	AAA(한신평/한신평)	2017.06.18	미상환	대우증권,HMC투자증권,KB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6.14	100,000	3.01	AA+(한신평/한기평)	2016.03.14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6.25	50,000	91일물 CD+0.31	AA+(한신평/한기평)	2017.06.25	미상환	산업은행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08	10,000	3.60	AA+(한신평/한기평)	2018.07.08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08	20,000	3.62	AA+(한신평/한기평)	2018.10.08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11	30,000	91일물 CD+0.34	AA+(한신평/한기평)	2016.01.11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11	50,000	91일물 CD+0.36	AA+(한신평/한기평)	2016.04.11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15	10,000	3.50	AA+(한신평/한기평)	2018.07.15	미상환	NH농협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16	50,000	3.41	AA+(한신평/한기평)	2017.07.16	미상환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18	30,000	3.55	AA+(한신평/한기평)	2018.07.18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7.22	300,000	3.22	AAA(한신평/한신평)	2017.07.18	미상환	대우증권,HMC투자증권,KB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01	50,000	3.55	AA+(한신평/한기평)	2018.08.01	미상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06	50,000	91일물 CD+0.26	AA+(한신평/한기평)	2016.08.06	미상환	산업은행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08	40,000	3.58	AA+(한신평/한기평)	2018.08.08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08	50,000	91일물 CD+0.34	AA+(한신평/한기평)	2017.08.08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13	30,000	3.53	AA+(한신평/한기평)	2018.08.13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21	30,000	3.58	AA+(한신평/한기평)	2018.08.21	미상환	삼성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26	40,000	3.35	AA+(한신평/한기평)	2017.02.26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8.28	50,000	3.02	AA+(한신평/한기평)	2015.08.28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04	50,000	3.25	AA+(한신평/한기평)	2016.09.04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05	20,000	3.55	AA+(한신평/한기평)	2018.09.05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06	50,000	3.21	AA+(한신평/한기평)	2016.03.04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09	20,000	3.22	AA+(한신평/한기평)	2016.09.09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13	20,000	3.25	AA+(한신평/한기평)	2016.09.13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16	60,000	3.19	AA+(한신평/한기평)	2016.03.16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25	30,000	3.67	AA+(한신평/한기평)	2020.09.25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09.26	40,000	3.21	AA+(한신평/한기평)	2016.09.26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0.18	275,500	0.75	AA+(한신평/한기평)	2015.10.16	미상환	BoAML, Citi, Mizuho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0.23	50,000	3.07	AA+(한신평/한기평)	2016.01.22	미상환	SK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0.24	20,000	3.28	AA+(한신평/한기평)	2017.10.24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0.24	40,000	3.01	AA+(한신평/한기평)	2015.10.23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0.25	20,000	91일물 CD+0.42	AA+(한신평/한기평)	2018.10.25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0.28	20,000	3.19	AA+(한신평/한기평)	2016.11.28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0.31	40,000	3.02	AA+(한신평/한기평)	2015.10.30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05	30,000	3.25	AA+(한신평/한기평)	2016.11.04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05	50,000	3.05	AA+(한신평/한기평)	2015.11.05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05	10,000	91일물 CD+0.33	AA+(한신평/한기평)	2016.11.04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06	318,600	2.68	-	2018.03.21	미상환	Citi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07	30,000	3.27	AA+(한신평/한기평)	2016.11.07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11	50,000	91일물 CD+0.36	AA+(한신평/한기평)	2017.02.10	미상환	대우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13	20,000	3.78	AA+(한신평/한기평)	2019.11.13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13	30,000	3.13	AA+(한신평/한기평)	2015.11.13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14	30,000	3.19	AA+(한신평/한기평)	2016.05.13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1.22	50,000	3.36	AA+(한신평/한기평)	2016.11.22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2.02	60,000	3.40	AA+(한신평/한기평)	2016.12.02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2.03	50,000	3.80	AA+(한신평/한기평)	2018.12.03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2.13	60,000	3.59	AA+(한신평/한기평)	2017.12.13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2.17	50,000	3.70	AA+(한신평/한기평)	2018.12.17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2.20	50,000	3.49	AA+(한신평/한기평)	2017.12.20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2.27	50,000	3.66	AA+(한신평/한기평)	2018.12.27	미상환	K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공모	2013.12.30	10,000	3.11	AA+(한신평/한기평)	2016.01.29	미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회사채	사모	2011.08.25	434,160	2.44	AAA(Fitch)	2016.01.21	미상환	Citi, BTMU
현대캐피탈	회사채	사모	2011.10.19	50,000	91일물 CD+1.55	AA+(한신평/한기평/NICE신용평가)	2012.10.19	상환	사모사채
현대캐피탈	회사채	사모	2012.05.30	57,250	AUD 3M BBSW+2.18	-	2015.05.30	미상환	HSBC
현대캐피탈	회사채	사모	2012.06.28	205,520	5.38	BBB+(S&P)	2015.06.29	미상환	ANZ
현대캐피탈	회사채	사모	2012.10.17	557,250	2.86	-	2017.02.21	미상환	BTMU
현대캐피탈	회사채	사모	2012.12.04	56,850	AUD 3M BBSW+1.33	-	2014.12.04	미상환	HSBC
현대캐피코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20	30,000	3.24	A1(한신평,나이스신용평가)	2012.10.19	상환	신한은행
현대캐피코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30	70,000	3.19	A1(한신평,나이스신용평가)	2012.10.30	상환	신한은행
현대캐피코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30	20,000	3.07	A1(한신평,나이스신용평가)	2014.01.14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30	20,000	3.12	A1(한신평,나이스신용평가)	2014.07.15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30	40,000	3.17	A1(한신평,나이스신용평가)	2015.01.13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21	50,000	3.13	A1(한신평,나이스신용평가)	2015.02.24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합 계	-	-	-	64,696,054	-	-	-	-	-

(2) 채무증권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180일 이하	180일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129,233	254,380	278,287	205,475	20,000	93,000	-	-	980,375
	합계	129,233	254,380	278,287	205,475	20,000	93,000	-	-	980,375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180일 이하	180일 초과 1년 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1,600,000	1,600,000
	합계	-	-	-	-	-	-	1,600,000	1,600,000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5,116,354	6,613,638	6,882,525	5,405,579	3,586,997	669,593	-	28,274,687
	사모	734,775	2,342,725	1,929,867	886,333	1,067,964	-	-	6,961,664
	합계	5,851,129	8,956,364	8,812,392	6,291,912	4,654,961	669,593	-	35,236,351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30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5년 초과	10년 초과	20년 초과	30년 초과	합 계
------	-------	-------	-------	-------	-------	-------	--------	--------	--------	-----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30년이하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XII. 부속명세서

I.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1. 금융자산

(1)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됩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가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및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손익을 제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해 누적 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차이로 측정하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 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출채권과 금융업채권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한편,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지만,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통제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됩니다.

(2)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차감한 금액

(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부채에 지급된 이자비용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5)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제거합니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시기는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위험(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외화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상품의 구분

(1) 당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 정된 파생상품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	6,872,430	-	-	6,872,430	6,872,430
장단기금융상품	-	14,910,783	-	-	14,910,783	14,910,783
매출채권	-	3,528,654	-	-	3,528,654	3,528,654
기타채권	-	2,845,387	-	-	2,845,387	2,845,387
기타금융자산	448,892	248,721	2,515,396	26,696	3,239,705	3,239,705
기타자산	-	363,352	-	-	363,352	363,352
금융업채권	-	41,013,607	-	-	41,013,607	41,566,247
계	448,892	69,782,934	2,515,396	26,696	72,773,918	73,326,558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 정된 파생상품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	6,759,338	-	-	-	6,759,338	6,759,338
장단기금융상품	-	12,385,416	-	-	-	12,385,416	12,385,416
매출채권	-	3,730,625	-	-	-	3,730,625	3,730,625
기타채권	-	2,559,883	-	-	-	2,559,883	2,559,883
기타금융자산	87,152	24,209	1,556,535	62	35,805	1,703,763	1,703,763
기타자산	-	403,974	-	-	-	403,974	403,974
금융업채권	-	39,494,231	-	-	-	39,494,231	39,894,670
계	87,152	65,357,676	1,556,535	62	35,805	67,037,230	67,437,669

(2)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장부금액	공정가치
매입채무	-	6,722,740	-	6,722,740	6,722,740
미지급금	-	4,703,454	-	4,703,454	4,703,454
차입금 및 사채	-	47,966,862	-	47,966,862	48,636,232
기타금융부채	3,063	19,711	561,408	584,182	584,182
기타부채	-	1,664,019	-	1,664,019	1,664,019
계	3,063	61,076,786	561,408	61,641,257	62,310,627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장부금액	공정가치
매입채무	-	6,841,326	-	6,841,326	6,841,326
미지급금	-	4,550,278	-	4,550,278	4,550,278
차입금 및 사채	-	45,207,252	-	45,207,252	46,237,968
기타금융부채	4,162	144,039	356,303	504,504	504,504
기타부채	-	1,288,182	-	1,288,182	1,288,182
계	4,162	58,031,077	356,303	58,391,542	59,422,258

(3) 공정가치의 추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조정되지 않은)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수준2 : 수준 1 에 해당되는 공시된 가격을 제외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가격으로부터 도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수준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8,927	409,965	-	448,89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	26,696	-	26,696
매도가능금융자산	2,187,434	98,620	229,342	2,515,396
계	2,226,361	535,281	229,342	2,990,984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3,063	-	3,063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	561,408	-	561,408
계	-	564,471	-	564,471

전기말 현재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87,152	-	87,15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	35,805	-	35,805
매도가능금융자산	1,287,409	5,023	264,103	1,556,535
만기보유금융자산	-	62	-	62
계	1,287,409	128,042	264,103	1,679,554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4,162	-	4,16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	356,303	-	356,303
계	-	360,465	-	360,465

당기 중 상기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초	매입	매도	평가	수준간 이동	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	264,103	2,829	(42,064)	4,474	-	229,342

전기 중 상기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초	매입	매도	평가	수준간 이동	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	273,070	9,042	(21,162)	3,153	-	264,103

(4)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로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비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비용
비금융업:						
대여금및수취채권	573,439	-	-	586,507	-	-
매도가능금융자산	961	11,096	-	3,769	15,024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1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229,750	-	-	311,113
계	574,400	11,096	229,750	590,277	15,024	311,113
금융업:						
대여금및수취채권	2,640,111	-	-	2,757,27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141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14,464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1,351,481	-	-	1,430,910
계	2,646,252	-	1,351,481	2,757,278	-	1,445,374

(5) 당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 및 부채 총액	상계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총액	재무제표 표시 순액	상계되지 않는 관련금액		순액
				금융상품	현금당보	
금융자산:						
매출채권	3,590,967	62,313	3,528,654	-	-	3,528,654
기타채권	3,160,005	314,618	2,845,387	-	-	2,845,38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4,637	-	34,637	-	-	34,637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자산	26,696	-	26,696	24,438	-	2,258
계	6,812,305	376,931	6,435,374	24,438	-	6,410,936

금융부채:						
매입채무	6,972,764	250,024	6,722,740	-	-	6,722,740
미지급금	4,830,361	126,907	4,703,454	-	-	4,703,45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3,063	-	3,063	-	-	3,063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부채	561,408	-	561,408	24,438	-	536,970
계	12,367,596	376,931	11,990,665	24,438	-	11,966,22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거래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또는 파산할 경우 회사가 상계권리를 가지게 되는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로, 당기말 현재 상계 가능한 파생상품부채 및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함.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 및 부채 총액	상계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총액	재무제표 표시 순액	상계되지 않는 관련금액		순액
				금융상품	현금당보	
금융자산:						
매출채권	3,850,475	119,850	3,730,625	-	-	3,730,625
기타채권	2,794,774	234,891	2,559,883	-	-	2,559,88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87,152	-	87,152	-	-	87,152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자산	35,805	-	35,805	32,811	-	2,994
계	6,768,206	354,741	6,413,465	32,811	-	6,380,654
금융부채:						
매입채무	7,139,826	298,500	6,841,326	-	-	6,841,326
미지급금	4,606,519	56,241	4,550,278	-	-	4,550,27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162	-	4,162	-	-	4,162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부채	356,303	-	356,303	32,811	-	323,492
계	12,106,810	354,741	11,752,069	32,811	-	11,719,25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거래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또는 파산할 경우 회사가 상계권리를 가지게 되는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로, 전기말 현재 상계 가능한 파생상품부채 및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함.

(6)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이외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금융업수익)은 각각 1,646,100백만원 및 1,616,825백만원이며, 수수료비용(금융업매출원가)은 각각 897,756백만원 및 808,147백만원 입니다.

(7) 연결실체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 중 수준1과 2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8) 다음은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주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 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대상 파생상품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된 선도환율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선도환율이 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공시된 기간별 선도환율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선도환율을 추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선도환율 등을 통해 도출되므로, 연결실체는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로 분류하였습니다.

- 회사채 등 채무상품

회사채 등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공정가치 측정대상 회사채 등 채무상품과 신용도 및 기간이 유사한 채권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되는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신용스프레드를 기초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채 등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수인 할인율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도출되므로 연결실체는 회사채 등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로 분류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업종의 상황 등에 기초한 매출액 증가율, 세전 영업이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유사한 상장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서 언급된 주요 가정과 추정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3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수준 3)에 대한 양적 정보와 관측가능하지 않은 주요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치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말 공정가치	가치평가방법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 입변수	범위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치 간의 연관성
비상장주식	229,342	현금흐름할인	매출액증가율	0.5% ~ 7.0%	매출액증가율과 세전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할인율이 하락한다면 공정 가치는 증가
			세전영업이익률	2.7% ~ 22.3%	
			할인율	6.1% ~ 14.2%	

연결실체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유의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I.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공정가치 평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독립된 평가인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결실체는 동 공정가치 평가일자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이 중요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가치평가를 재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정가치 평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평가기관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연결회사와 독립적인 평가인임)
평가방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공정가치	4,411,286백만원
평가전 장부가액	1,954,751백만원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